

성서본문 분석과 번역에 대한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접근법 -바울의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에른스트 벤트란트*

장동수 역**

일반적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빌레몬서를 주된 예시자료로 활용하여, 성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번역하고 전달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사이의 의사소통 작업을 다루는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방법이라고 명기한 것이 무엇인가를 부분적으로 소개하고자 함에 있다.

특정한 목표들-다음 사항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함:

- “문학(literature)”이란 무엇이며, 왜 성서도 본질적으로는 그 특성상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성서가 시적(*poetic*), 즉 형식-집중적(form-focused) 의사소통 기능을 뛰어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함.
- “수사학(rhetoric)”이란 무엇을 말하며, 왜 성서의 많은 본문들도 본질적으로는 성격상 “수사학적(rhetorical)”인지, 다시 말해서, 성서가 의사소통의 표현(*expressive*)과 명령(*imperative*)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인식 가능한 설득 효과와 감정에 대한 호소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함.
- 성서문학의 다양성을 일련의 특정한 예술적(스타일과 구조적) 그리고 수사학적 담화분석과정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함.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프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침례교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 빌레몬서의 주요한 문체적 특질과 의사소통 전략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학-지향적(literary-oriented)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를 이해하도록 함.
- “번역(translation)”이란 무엇이며, 제안된 개념정의가 어떻게 실제로 문맥에 민감한 본문교환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하는가를 이해하도록 함. 이 프로그램은 분명한 과제에 대한 동의와 위임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고 관리된다(적요서, *Brief*).
- 문학적 기능적-동등성(Literary functional-equivalence=LiFE) 접근법이 성서, 즉 빌레몬서 번역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지를 의사소통중심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고려되고 있는 특정한 목표청중, 사회적 배경, 실제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 환경)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함.
- 어떻게 이 LiFE(문학적 기능적-동등성) 방법론이 더 나아가서 오늘날 상이한 전달 양식과 매체를 통하여 성서를 재연하는 여타의 방법과 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함.

“문학적” 성서 번역자들을 위한 훌륭한 좌우명 하나:

<p>רָחַשׁ לְבַיִּי. רָבִיבָהּ מִטּוֹב אֵינִי מְעַשֶׂה אֶת מַעֲשֵׂי מַלְאָכָי לְשׁוֹנִי עֵטָא סוֹפֵר מְהֵרָא:</p>	<p>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들의 붓끝과 같도다</p>
--	--

[시편 45:1; 히브리어로는 2절-영어번역은 수정된 GNB(Good News Bible); 이 구절에서 탁월한 작문 양식(manner)뿐만 아니라 시적인 의사소통 매개 수단(medium), 이 둘을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

1. 사사기 4-5장으로부터 예시한, 성서본문을 분석하는 문학적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적 개관

필자는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제시하면서 시작하여 왜 성서의 많은 구절들을 “문학적”이라고, 즉 본질상 예술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학적이라고 생각하여도 되는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체적 특질은 본문분석에 있어서 그에 적합한 이중 형식-기능적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1.1). 그래서 필자는 사사

기 4-5장에서 발췌한 “짜을 이론” 단락의 선택적 특징들을 사용하여 히브리 성서에 등장하는 산문문학과 시문학간의 차이점을 예시하였다(1.2).

1.1. 정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영어사전은 **문학(literature)**을 “영원한 가치, 형식의 탁월성, (그리고) 위대한 정서적 감동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글들”이라고 정의한다(*Webster’s New World Collegiate Dictionary*). 여기 언급된 세 가지 특질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그래서 문학적 “**형식(form)**”의 “탁월성”(아름다움, 매력, 정교함, 독창성 등)은 독자나 청자들 내부에서 소중한 “**정서적 감동**”을 창조하거나 자극하며, 동시에 기록된 글에게 다소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인지 가능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가치 기준은 또한 보통은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 대부분의 문학적 산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시되는 주제(즉, 영감을 주고, 풍성하게 하며, 영향력이 있고, 삶과 연관이 있는)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비록 어떤 작품들에 대한 감상은 특정 화제(예를 들면, 과학 소설)나 글쓰기 유형(예를 들면, “탐정” 소설)에 관심이 있게 되는 사회의 어떤 부분에는 더 제한되어있지만 그러하다.

우리는 앞에 제시한 문학에 대한 개념이 꽤 상대적이며 문맥상으로 조건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누가 “형식의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혹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와 비슷하게, 정확히 무엇이 “위대한 정서적 감동”으로 혹은 “영구적인 가치”로 여겨져야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인 선호도 혹은 “취향”의 문제이다. 그러나 만약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본문에 대한 자신들의 호의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면, 비록 논쟁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을 지라도, 그것이 성격상 “문학적”이라고 분류되는 것이 몇몇 객관적 근거로(예를 들면, 통계적인 근거) 정당화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정의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평가(evaluation)**의 문제와 그와 연관된 **품질(quality)**에 대한 상대적 등급에 더 관계가 있다. 달리 말한다면, 모든 공적인 글이 “문학”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뉴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간 신문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글들을 본질상 “문학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왜 혹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가? 아마도 위에 열거한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감명을 주는 문체, 중요한 내용, 분별 가능한 정서적 감동, 그리고 화용론적 가치. 그러면 평가 과정을 한데 묶어 주는 한 가지 길은 이 **모든 요**

소들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의 작품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평가 작업을 수행할 때, 질적인 수준들, 예를 들면 우등, 뛰어난, 평균 이상, 평범한, 수준 이하, 열등 등에 대한 평가도 허락함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연관하여 우리가 “문학”에 대하여 내린 애초의 정의도 필자의 관점을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영원한 가치, 형식의 탁월성, (그리고) 위대한 정서적 감동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도록 의도된 모든 글들.” 많은 작가들이 노력하지만, 사실상 공적인 인증을 얻는데 실패한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열등한 작품들이 일반적으로 전문 문학 비평가나 분석가들을 감동시키는 데 실패한다-이들은 형식, 내용, 그리고 혹은 인정된 문학적 범주나 유형의 기능, “장르” 등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지지할 수 있는 이들이다(아래의 2.2.1을 보라).

성서의 경우, 어떤 이는 그 주된 내용과 기능에 관하여는 많은 논쟁을 예상하지 않은 것이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견해는-학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성서는 대체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위대한 정서적 감동”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본문의 형식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우리는 신구약의 다양한 문서의 구조와 문체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적 “탁월성”을 발견하는가? 적어도 번역본에서 그것들이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무지, 불확실성, 그리고 의구심이 있다. 종종 이것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많은 사안들이 관련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통 성서를 “문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서의 다양한 형식의 본문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지 않았고, 물론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빌레몬서에 대한 분석과 번역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성서 담화의 형식적 차원들, 즉 다양한 동사 사용기술과 유형화된 배열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서의 책들-큰 책(예를 들면, 이사야서, 로마서) 뿐만 아니라 작은 책(예를 들면, 오바다서, 빌레몬서)의 의미론적 내용과 의사소통 목적을 상당한 정도로 기호화한다.

1.2. 예: 야엘의 대담한 행동에 대한 세 종류의 진술

아마도 예술적(*artistic*) 문학과 다른, 즉 비-예술적 타입(장르)의 글 간의 차이는 다음의 예 하나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다: 아래에 예시된 A, B, C의 세 종류의

글을 주의 깊게 읽고 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본문이 다른 본문보다 더 분명하게 “문학적”이며 또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더 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여기 예시된 세 종류의 글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상이한 스타일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선호도와 견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A

그러나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자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그녀가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B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

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꿰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C

메로스를 향한 저주와는(역자 주. 23절) 날카롭게 대조되게 야엘을 위해서는 축복이 예비되었다. 그 여인은 중립에 서있기를 거절하였다... . 그녀는 처음에 시스라를 그의 고상한 지위에 걸맞게 대우했다. 그러나 한때는 장대했던 이 지도자는 갑자기 무너졌다. 이 여장부는 노련한 공사와 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꿨다”는 동사와 “꿨었도다”는 동사는 민 24:8과 욥 20:24에서 화살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시스라는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대하고 파괴적인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파괴하던 자 바로 그가 파괴된 것이다(비교. 사 33:1).

우선 우리는 앞에 제시된 글들의 대체적인 주제는 개략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체가 상이한 것 외에 이 세 본문은 각각의 의사소통 목적의 측면에서도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본문 A는 직접화법을 여럿 포함하고 있어서 성격상 아주 극적이다. 이 글은 이야기 같아서, 어쩌면 인쇄된 페이지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본문 B는 A와 개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좀더 다채롭고 덜 정돈된 것 같고, 더욱이 반복구절을 많이 짜 넣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본문 C는 A와 B 둘 다와는 아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C는 좀더 “객관적”이며,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이야기를 더 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분석적 논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두 글만큼 덜 직접적이다.¹⁾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글들을 어떻게 분류해야하며 무엇이 되든지 어떤 차이점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담화의 유형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적용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예배 상황에서는 A와 B 대신에 C를 선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C는 주석으로서 의식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성서본문 자체에서는 제거되어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A와 B가 내용에서 서로 더 많이 비슷할지라도, 이 두 글은 분명히 외견상의 의사소통 목적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각각이 선호하는 실제 상황의 측면에서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1) 본문 C는 K. L. Baker and J. Kohlenberger III, eds., *Zondervan NIV Bible Commentary*, vol. 1,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339에서 발췌하였다.

예를 들면, 본문 A는 성서 역사 시간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며, 반면에 B는 대중적인 종교 노래나 합창의 기본재료로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A와 B의 현저한 차이는, 히브리어 본문의 실제형태를 더 문자적으로 반영하는 번역판을 통해서 좀 더 현저하게 드러날 수 있다.²⁾ 이것은 또한 각각의 인쇄 형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좀더 가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문 A의 각 줄을 채워서 표준 문단 단위 틀에 맞춘다든지, “드보라의 노래”(삿 5:1, 7)인 본문 B를 줄 배열을 다시 하여 아래처럼 시의 형태로 읽을 수 있다.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영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꾸부러지며
 옆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꾸부러져
 옆드러져서
 그 꾸부러진 곳에
 옆드러져
 죽었도다

본문 B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하여 맛소라 본문을 줄을 바꿔서 아래와 같이 배열하여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의 시적인 성격과 특성이 아주 극명하게 두드러진다:

תְּבָרַךְ מְנַשִּׁים יָעַל

אִשֶּׁת חֶבֶר הַקִּינִי

2) A와 B는 각각 Revised Standard Version(RSV)의 사사기 4:17-21과 5:24-27을 인용한 것이다. (번역자는 한글 개역성경을 활용하였다).

מְנַשִּׁים בְּאֵהָל הַבְּרָדִי:
 25 מִיָּם שָׁאֵל חֶלֶב נְתָנָה
 בְּסֹפֶל אֲדִירִים הַקְּרִיבָה חֲמָאָה:
 26 יָדָה לִיחֵד תְּשַׁלְּחָנָה
 וַיִּמְיָנָה לְהִלְמוֹת עַמְלִים
 וְהִלְמָה סִיסְרָא מִחֻקָּה רֵאשׁוּ
 וּמִחֻצָּה וְחִלְפָה רִקְחוּ:
 27 בֵּין רִגְלֶיהָ קָרַע נָפֶל שָׁכָב
 בֵּין רִגְלֶיהָ קָרַע נָפֶל
 בְּאֶשֶׁר קָרַעְשָׁם נָפֶל שְׂדוּדִי:

이 시적 서사(poetic narrative)의 중요한 부분에 나타나는 몇 가지 두드러진 문체적 특징을 아래에 간단히 기술하였다.

- 새로운 시적인 문단(“절”)인, 24-27절은 본문의 여결인 “야엘”(עַל)에 대하여 선언하는 “복”(תְּבִרָה)으로 시작하여 강조되고 있다.
- 중심 인물, “야엘”은, 어휘의 **교차대구법(chiasm)**으로 그녀의 이름을 넣고 신분을 밝힘으로써, 더 각광을 받는다: “복”-“여인 중에서” (מְנַשִּׁים) // “여인 중에서”-“복” (24절)
- 이 문단은 전형적인 히브리 시의 반복되는 행의 **병행 배열(parallel arrangement)**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행은, 절정에 이른 27절을 제외하고, 셋이나 네 단어들로 단위를 이룬다. 맛소라 본문의 행들은 처음에 더 길게 보인다. 그러나 앞에 제시한 영어 번역본(RSV)의 배열에서 보듯이, 각 행들은 수사학적으로 매우 짧고, 반복되는 어구, 그리고 예견된 행동을 효과 있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동사-중심(예를 들면, [27절에 세 번 나오는] “그가 쓰러졌다”, נָפֶל)의 표현들로 나눌 수 있다.
- 본 문단의 어법에는 인지 가능한 **응축법(condensation)**(산문인 본문 A와 비교하여)이 존재한다; 위에서 주지한 대로, 특히 27절의 행동의 **절정(peak)** 부를 구성하는 짧은 절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곳에서 유난히 그러하다.
- 극적 분위기 고조를 표현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주의를 끌기 위하여 소위 “시적 단어 짝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26 절의 첫 두 행에 나오는 “[그녀의] 손”(יָדָה)과 “[그녀의] 오른 손”(וַיִּמְיָנָה) 등이다.
- 26절의 충격적인 표현에서 특별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음운론적 전경이 사용되었다 - 즉, 두 행에서 **유운(類韻)(assonance)**(“아” 소리)과 **각운(end rhyme)**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절에서 마찰 후음, 특히 (ח)와 (נ)음이 연속적

으로 나오는 **두운법(alliterative)**도 나오고 있음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두 행에는 또 다른 도식적 단어 짝인 “그의 머리”(שׂאֵר)와 “그의 성전”(מִקְדָּשׁוֹ)이 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다.

- 극적 긴장감을 나타내는 운율은, 주된 악한이며 희생자인 “시스라”(סִיסְרָא)의 이름이 야엘이 그의 머리를 가격하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26하반절에 가서야(비교. 20하반절) 밝혀지게 한, 이야기의 구조 속에 내장시켰다.
- **단어 배치법(word placement)**이 어느 정도의 동사적 효과를 유발시키는데 활용되었다. 이것은 절의 맨 마지막 단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이 단어는 시스라가 “엎드려진” 결과를 요약해준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무너져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몰락하고, 멸망하였다’(מָוָה)는 의미이다.
- 또한 우리는 26절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 유희(play on words)**를 감지할 수 있다: 야엘은 “방망이(מַלְמָה)”로 시스라의 머리에 “방망이질을 한다(מַלְמָה)”. 여기서 우리는 극적 수수께끼(enigam)와 아이러니(irony) 기법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동사가 22절에서 죽일 자를 향하여 가는 군사들을 태우고 달려가는 군마들의 “땅을 울리는” 말굽소리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들이 누구의 말들인가? 처음 보기에는 이 노래가 시스라의 방대한 군대의 군마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비교. 20하절). 그러나 26절에서 발견되는 반복되는 병행어를 포함한 다른 곳에서는 꽤 상이한 해석이 대두된다. 아마도 그것은 실제로 “하늘의 별들”로 표현된 우주적 종마(種馬)들을 언급하였을 것이다(20절)-즉, 야웨께서(혹은 “주의 사자”, מַלְאָכֵי יְהוָה, 23절) 이스라엘 편에서 그 날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하여 전쟁터에 보내신 천군들이다.
- 상당한 **변형들(variations)**로 구성된 어휘 **반복(repetition)**기법은 절(27절)의 마지막 단이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마지막이자 세 번째 예인, “거기서 ... 죽었다!”에서 그러하다). 이 강력한 서사시의 대단원의 역할을 하는 마지막 어구는 또한 뒤따라오는 28-30절의 비꼬는 시를 위한 무대를 설정한다(비교. 사사기 4장).

그러면 이 예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본문 B가 A보다 질적인 면에서 더 “문학적”인가? 아니다, 다만 그것은 분명히 특성상 더 시적일 뿐이다. 본문 A는 문체상으로 B의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그 나름대로의 산문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연대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진행; 인물과 장소들에 대한 더 명시적인 언급; 익살 혹은 말재롱(paronomasia)(야엘은 “아이벡스(ibex), 즉 야생 산 염소”를 의미한다. 이 야엘이 [염소] 가죽부대에서 [염소?] 젖을 가져

다가 시스라에게 마시도록 주었는데, 표면상으로 그것은 그가 요청한 “물”보다는 더 비싼 음료였다, 19절); 상이한 관점들을 보여주고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등장인물 간의 극적인 대화의 단편들; 반어적인 어휘의 반복(평범한 농부의 아내인, “헤벨의 아내”가³⁾ 그녀의 장막에서 한때는 막강한 장수였던 시스라를 반복해서 “이불로 덮었다”);⁴⁾ 21절에서 절정을 이루는 오래 끄는 행동에 대한 점진적인 구성(“말미 강조”의 탁월한 예); 동일한 문단에 이야기 줄거리의 절정을 강조해주는 연속된 사건들을 집중시키는 기법; 그리고 22절의 (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반복적인 대단원 등이다.

이제까지 나온 피상적인 비교연구의 요점은 분석에 있어서 문학적 방법론이 성서 담화의 예술적인 문체적 측면들을 충분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본문의 문체적 특성들에 각각 그리고 총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 **구조(Structure)** — 연구하는 단락이 계층적 배치의 측면에서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좀 더 크거나 좀 더 작은 동사 유형과 구성요소는 어떠한가, 예를 들면, “거시적”-그리고 “미시적”- 본문의 건축구조의 수준들은 어떠한가; 어떻게 한 단락이 이제는 다른 단락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 **기능(Function)** — 연구하는 담화가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의사전달하려고 하는지, 특별히 그 담화의 관념적 내용(우선적으로 정보적 (informative) 기능을 포함하여), 인간관계의 맥락(표현적, 명령적, 종교 의식적, 그리고 관계적 기능), 혹은 본문의 건축구조(문체적 그리고 시적 기능) 등을 조사한다.

-
- 3) “헤벨의 아내”(4:17, 21; 비교. 5:24)라는 별칭 이면에는 어떤 극적인 풍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야엘의 남편, 헤벨은 아마도 시스라와 모종의 동맹관계에 있었을 것이다(11-12 절). 그리고 아마도 그 때문에 시스라가 패배 후에 안전을 위하여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하였을 것이다(17 절, 곧 바락이 따라왔지만, 22 절). 야엘이 자신의 남편의 동맹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충성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낸 것일까? 이 이야기의 다른 여결, 즉 여선지자 드보라에 의하여 이 예상치 않았던 결과가 예견되었거나 “미리 암시되었다”(9 절). 이처럼 복잡한 반어적 채색기법과 화제의 층 깔기 표현법은 히브리 서사에서는 전형적이다. 표층에는 단순한 듯하게 보이나 심층에는 좀 더 복잡하게.
 - 4) 고대근동 관습에 따르면 남편이나 아버지 이외의 남자가 여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헤벨의 친구이자 동맹관계에 있는(17 절) 시스라는 완전한 피난처를 발견하였다-그렇지 않은가?
 - 5) 이것들과 또 다른 문학적 고려사항들이 단락 3.2에서는 더 충분히 조사되었다; 또한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04)를 보라.

◇ **장르(Genre)** — 인습적으로 인식되고 널리 인정되는 **문학적 유형들**, 주요한 것과 사소한 것 모두, 그 본문의 거시적인 형태를 구성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배열된 유형들, 성질상 분명히 산문인 것에서부터 완전히 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연속되는 범위를 따라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인가 등을 조사한다.

◇ **예술성(Artistry)** — 연구하는 담화의 편성형식이 정서적인 충격, 심미적인 호소력, 그리고 형식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작품과 분석적 문체 비교를 통하여 증명되고 평가될 수 있는 질적인 효과들을 보여주도록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한다.

◇ **수사학(Rhetoric)** — 다양한 본문 형태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확인된 청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자가 정해놓은 의사소통 목적(혹은 일련의 관련된 목적들)을 달성하도록,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었는가를 조사한다.

문학적 본문의 이러한 상호연관된 이 다섯 가지 국면은, 히브리어 성서와 그리스어 성서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석의적 결론, 그리고 동등하게 중요한 그 결론이 **함축하는 것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번역이라는 최종적인 과업에 대한 실제적인 정의에까지 도달하게 한다.

● **결론(Conclusion)** — “성서”로 알려진 종교적인 문서는 많은 본문들과 단락들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은 풍성한 본문적 그리고 비교적 증거에 기초하여 문체적 측면에서 “예술적인” 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본문들은, 추정되는 고대근동의 정황과 관련하여 식별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의 측면에서, 아주 수준 높은 “수사학적인” 것들로 분류될 수 있다.

● **함축성(Implication)** — 성서가 성격상 분명히 “문학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친다면, 원저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존경하기 위하여, 해당 본문이 다소 문자적 혹은 관용 어법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 성질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과 주어진 성서본문을 번역하는 동안에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 **번역(Translation)** — 주어진 원천 본문을 다른 목표(표적) 본문으로, 상이한 개념적 체계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형태들, 언어학적 조사,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화적 환경에서 선택적 **재-제시하기(re-presentation)**(다시 쓰기, 다시 말하기)가 번역작업이다. 이것은 기록된 본문이, 줄 만들기, 행간, 띄어쓰기, 들여쓰기, 배치, 글자 크기, 글자종류, 기타 등등(시청각 생산품들에 적용되는 매체와 연관된 특성들과 함께)과 연관 되어 인쇄된 페이지에 전시되는 모양인 외형도

포함한다.

앞에 나온 결론, 함축성, 그리고 정의는 다음에 나오는 단락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울의 빌레몬서를 통하여 실체화되고 예시화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 서신은 성서 혹은 여타 “문학”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한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동사 표현의 강력한 수사학적 기법을 동반하는 문체에서 아주 높은 예술적 양식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

2. 바울의 빌레몬서에 대한 본문 분석 작업에서 명시된 문학적 작문의 중요한 다섯 가지 기법에 대한 설명과 예증

조사해야 할 본문을 소개한 후에(2.1), 필자는 본 단락의 대부분을, 원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특정한 목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예를 들면, 창조적으로,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등등) 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특정한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학적 담화의 다섯 가지 핵심 측면의 탐구에 할애하였다(2.2). 이 다섯 가지 특질들은 바울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 호소문을 참조하여 예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학적 접근 방법의 주된 요소들이 열 단계 과정이라는 형태로 요약될 것이다. 이 과정은, 특별히 성서의 형식적 문체 구조와 일차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본문 중심 그리고 문맥에 민감한 성서본문 분석방식을 제공할 것이다(2.3).

2.1. 담화에 대한 개관

빌레몬서의 분석과 번역에 문학적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일차적인 개념적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문(Paratext 6의 UBS 그리스어 신약성서)을 아래에 문자적 번역(주로 RSV, 한글은 주로 개역성서-역자주)과 함께 평행으로 배열하였다. 그리스어 본문은 추정되는 리듬을 따른 “말의 단위”를 반영하도록 편성하였다.⁶⁾ 즉, 이 서신이 공중 앞에서 크게 읽혔다면, 인식 가능

6) “바울의 말하는(글 쓰는) 유형이, 긴 경험을 통하여 발전되고 다듬어졌겠지만, 자연스럽게 리듬적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단순히 인정해야만 한다.” D. G.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6), 224.

한 잠재적인 휴지 지점에서 끝나는 행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두 다소 추측적이다. 그러나 나는 부분이 완전히 임의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눔은 어느 정도의 자연스러운 구문론적 구조 끝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서신이 처음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구두-청각적인(oral-aural)** 형태로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담화의 이러한 **음운론적 차원(phonological dimension)**도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신의 작성도 아마 이렇게 구두로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관례가 암시하는 바들은 성서 번역자들을 위하여 본 논문 제 3부에서 좀 더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p>¹ Παῦλος δέσμι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καὶ Τιμόθεος ὁ ἀδελφὸς Φιλήμονι τῷ ἀγαπητῷ καὶ συνεργῷ ἡμῶν ² καὶ Ἀπφία τῇ ἀδελφῇ καὶ Ἀρχίππῳ τῷ συστρατιώτῃ ἡμῶν καὶ τῇ κατ' οἶκόν σου ἐκκλησίᾳ,</p>	<p>¹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테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²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p>
---	---

<p>³ 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p>	<p>³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p>
---	---

<p>⁴ Εὐχαριστῶ τῷ θεῷ μου πάντοτε μνείαν σου ποιούμενος ἐπὶ τῶν προσευχῶν μου, ⁵ ἀκούων σου τὴν ἀγάπην καὶ τὴν πίστιν, ἣν ἔχεις πρὸς τὸν κύριον Ἰησοῦν καὶ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ἁγίους, ⁶ ὅπως ἡ κοινωνία τῆς πίστεώς σου ἐνεργῆς γένηται ἐν ἐπιγνώσει παντὸς ἀγαθοῦ τοῦ ἐν ἡμῖν εἰς Χριστόν</p>	<p>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⁵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⁶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6 and I pray that the sharing of your faith may promote the knowledge of all the good that is ours in Christ.⁷⁾</p>
--	---

<p>⁷ χαρὰν γὰρ πολλὴν ἔσχον καὶ παράκλησιν ἐπὶ τῇ ἀγάπῃ σου, ὅτι τὰ σπλάγχνα τῶν ἁγίων ἀναπέπαιται διὰ σοῦ,</p>	<p>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p>
--	--

7) 한글성서와는 많이 달라 참고로 그냥 두었다.

ἀδελφέ.

형제여

⁸ Διὸ πολλὴν ἐν Χριστῷ παρρησίαν ἔχων
ἐπιτάσσειν σοι τὸ ἀνῆκον

⁹ διὰ τὴν ἀγάπην μᾶλλον παρακαλῶ,
τοιούτος ὢν ὡς Παῦλος πρεσβύτης
νυνὶ δὲ καὶ δέσμιος Χριστοῦ Ἰησοῦ·

¹⁰ παρακαλῶ σε περὶ τοῦ ἐμοῦ τέκνου,
ὃν ἐγέννησα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Ἰονήσιμον,

¹¹ τὸν ποτέ σοι ἄχρηστον
νυνὶ δὲ [καὶ] σοὶ καὶ ἐμοὶ εὐχρηστον,

¹² ὃν ἀνέπεμψά σοι, αὐτόν,
τοῦτ' ἔστιν τὰ ἐμὰ σπλάγχνα·

¹³ ὃν ἐγὼ ἐβουλόμην πρὸς ἐμαυτὸν κατέχειν,
ἵνα ὑπὲρ σοῦ μοι διακονῆ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¹⁴ χωρὶς δὲ τῆς σῆς γνώμης
οὐδὲν ἠθέλησα ποιῆσαι,
ἵνα μὴ ὡς κατὰ ἀνάγκην τὸ ἀγαθὸν σου ἦ
ἀλλὰ κατὰ ἐκούσιον

⁸ 이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⁹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¹⁰ 아들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¹¹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¹²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¹³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¹⁴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¹⁵ Τάχα γὰρ διὰ τοῦτο ἐχωρίσθη πρὸς ὥραν,
ἵνα αἰώνιον αὐτὸν ἀπέχῃς,

¹⁶ οὐκέτι ὡς δοῦλον
ἀλλ' ὑπὲρ δοῦλον,

ἀδελφὸν ἀγαπητόν,
μάλιστα ἐμοί,

πόσω δὲ μᾶλλον σοὶ
καὶ ἐν σαρκὶ καὶ ἐν κυρίῳ

¹⁵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¹⁶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네게라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¹⁷ Εἰ οὖν με ἔχεις κοινωνόν,
προσλαβοῦ αὐτόν ὡς ἐμέ

¹⁸ εἰ δέ τι ἠδίκησέν σε
ἢ ὀφείλει,

τοῦτο ἐμοὶ ἐλλόγα

¹⁹ ἐγὼ Παῦλος ἔγραψα τῇ ἐμῇ χειρὶ,
ἐγὼ ἀποτίσω·

ἵνα μὴ λέγω σοι
ὅτι καὶ σεαυτὸν μοι προσοφείλεις

¹⁷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¹⁸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¹⁹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p>²⁰ ναὶ ἀδελφέ, ἐγὼ σου ὀναίμην ἐν κυρίῳ· ἀνάπαυσόν μου τὰ σπλάγχνα ἐν Χριστῷ.</p>	<p>²⁰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p>
---	--

<p>²¹ Πεπειθὼς τῇ ὑπακοῇ σου ἔγραψά σοι, εἰδὼς ὅτι καὶ ὑπὲρ ἃ λέγω ποιήσεις. ²² ἅμα δὲ καὶ ἐτοίμαζέ μοι ξενίαν· ἐλπίζω γὰρ ὅτι διὰ τῶν προσευχῶν ὑμῶν χαρισθήσομαι ὑμῖν.</p>	<p>²¹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²²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바라노라 너희 기도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p>
---	--

<p>²³ Ἀσπάζεταί σε Ἐπαφρᾶς ὁ συναιχμάλωτός μου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²⁴ Μάρκος, Ἀρίσταρχος, Δημᾶς, Λουκᾶς, οἱ συνεργοί μου.</p>	<p>²³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²⁴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의 동역자</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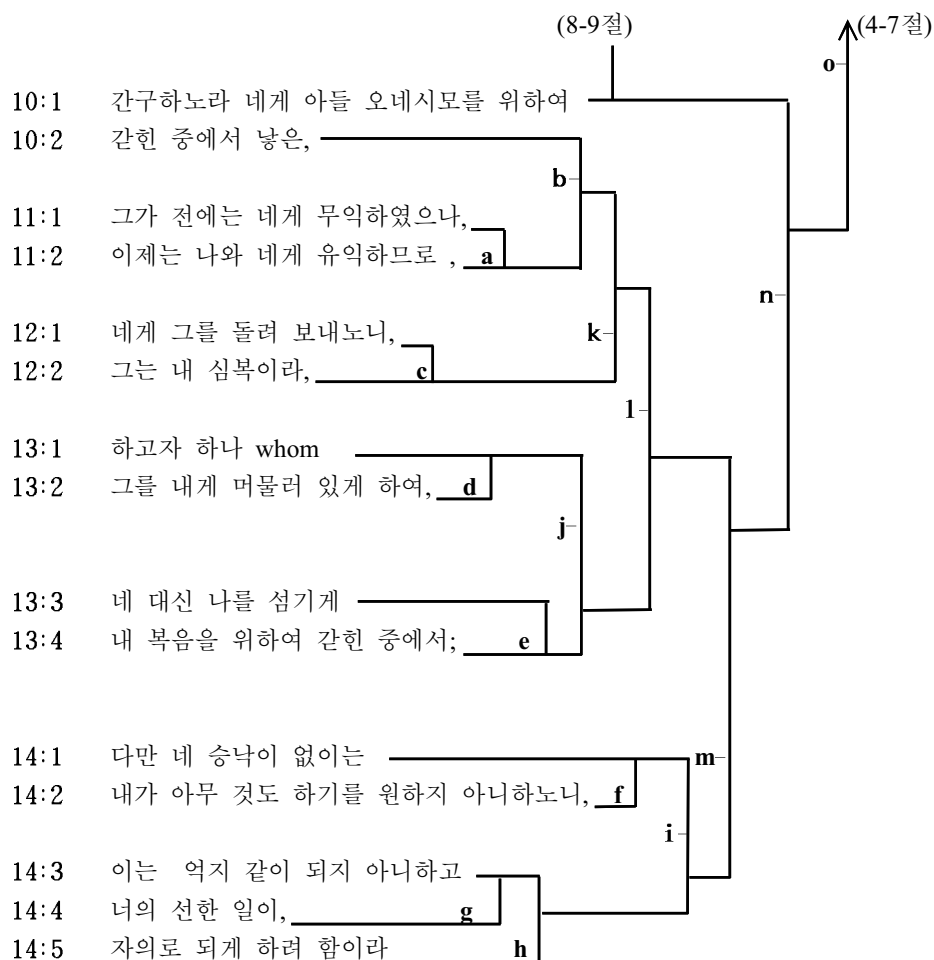
<p>²⁵ Ἡ χάρις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μετὰ τοῦ πνεύματος ὑμῶν.</p>	<p>²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p>
---	---

전체 담화를 **구문론적-의미론적으로 진열(syntactic-semantic (SS) display)**함으로써 바울의 빌레몬서에 대한 우리의 본문 준거 틀은 의미심장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포괄적인 석의적 연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며 동시에 뒤따라오는 주어진 구두 혹은 기록된 본문에 대한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비교. 다음에 요약된 일련의 과정들 중의 제 7 단계).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SS 차트는 여기에 수록하기 않겠지만, 그와 같은 조직적이고, 담화 중심적인 연구의 본질을 예시하기 위하여 한 가지 견본은 제시할 것이다.⁸⁾ 필자가 참고로 선택한 부분, 즉 10-14절은 바울이 종,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보낸 호소문의 “심장부”이자 핵심부를 형성하고 있다(이에 대한 증거는 아래에 나와 있다). UBS 그리스어 본문에서 8-14절을 단 한 문장이 되도록 구두점을 찍었는데, 이 단편(10-14절)이 여기에 포함된다.⁹⁾ 처음에 나오는 위로 난 두 줄은 이 구절이 앞에 나온, 크고(4-7절) 작

8) 이것은 미출간 논문인, “The dynamics of discourse: Rhetorical structure and strategy in Paul’s appeal to Philemon,” 1-49. 본인이 1985년에 이 논문을 쓴 직후에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 박사의 유용한 여러 조언을 듣는 혜택도 누렸다. 본문중심의 의미론적 분석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Ernst R. Wendland, *Analyzing the Psalms: With Exercises for Bible Students and Translators*, 2nd ed. (Dallas: SIL International, 2002), ch.3 을 보라.

9)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을 뱅커(Banker)의 순수한 의미론적 배열과 비교해 볼 수 있다. John Banke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Philemo*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1990), 26-38.

은(8-9절) 담화 단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또한 그것들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본문도 다음에 나오는 서신의 소 단락(15-16절)을 위한 기초를 놓고 있다



구문론적-의미론적, 절간 관계들의 목록:

a) 기초-대조	b) 기초-확충	c) 양보-반대 예상
d) 기초-내용	e) 기초-환경	f) 근거-결론
g) 기초-내용	h) 기초-대조	i) 이유-목적
j) 수단-목적	k) 기초-확충	l) 기초-확충
m) 기초-대조	n) 기초-귀속	o) [근거-호소]

(주해: 이분적 의미론적 관계들을 짝으로, 본문의 순서를 따라, “기초” 절을 중심으로, 혹은 쿨론으로, 각 짝의 논리적 분리 점을 표시하면서, 목록으로 만들었다. 어떤 경우는 여러 가능한 관계들이 짝으로 적용할 수 있었지

만, 바울의 현재 논지의 구조를 고려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택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관계 c는 **기초-귀속**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다. 물론, 분석가들마다 이런 연결관계의 확인작업, 각 연결관계가 지니는 담화구조 내의 의존 수준, 각 연결관계의 호칭, 그리고 그것들이 최선으로 도식화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쾌한 도해는 면밀한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서, 상이점들이 강조되고 그것을 근거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런 도해의 목표는 본문을 “공간화 해서” 절간연결고리가 더 명백히 시각화되어서 원저자의 문학적 담화의 기본 내용 단위들에 대한 선택, “짜기”, 그리고 배열 등을 좀 더 잘 이해하는 수단을 가지고 조사될 수 있게 해주는데 있다. 관계 [o]는 이 전체 문단이 4-7절로 이루어진 이전의 주된 담화 단위에서 발견되는 자료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준다.)

이와 같은 도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서신의 의미론적 내용의 유기적 구성, 담화의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구조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전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해는 사도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긴급하나 자제하는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복잡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단지 전체 그림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도해는 우리에게, 이 서신이 저자의 주요한 의사소통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얼마나 정교하게 문체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 다듬어졌는지에 대하여 어렵פות하게 알게 해준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의 일차적인 목적-즉, 빌레몬을 향한 개인적인 청원-을 발설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야기를 숨씨 있게 발전시키기 전까지는 재치 있게 **뒤로 미루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10:1 에 나오는 그의 “호소”는 이 단락 어디에도 실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사실상, 바울은 17절 이전까지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사도의 마음 속 깊이 있는 갈망은 후에 나오는 목적절의 중간에서(13:3) 암암리에 제안되는데, 전체적으로 빌레몬의 권위와 “자유의지”에 대한 바울의 표현에서 주의 깊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다른 목적절은 14:3-5이다).

또한 우리는 대조의 삼각형을 바울이 “증거”를 집결시키는 곳에(예를 들면, 위에 언급된 짝 a, h, m 등이다) 내장시킴으로서, 심각했던 대인관계가 어떻게 상당히 더 좋게 변화되도록 만드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섬세하게, 빌레몬이 모든 당사자들의 관심사인 궁극적 선이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야만 할 중대한 결정(들)을 위한, 토양(근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본문에 대한 건설한 석의적 이해는, 모든 관련된 배경지식들과 짝을 이루어서, 그 본문의 예술적 탁월성과 수사학적 능력을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맥

락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빌레몬서의 문학적 연구조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본문을 연속적인 절 배열의 관점에서 시각화함으로써 그 본문의 언어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대안적 방법 하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더 단순한 과정은 위에 예를 든 방법대신 혹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도표가 서신의 다음 문단 단위인 15-16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는 기술의 예이다.

구절	연결어	전-동사	동사(적)	후-동사 1	후-동사 2
15a	왜냐하면 이 때문에	아마	그가 떠나게 된 것 은	잠시	
15b	함이리니	영원히 그를	너로 하여금 두게		
16a			-----	이후로는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16b	곧		-----	종 이상으로	사랑 받는 형 제로 둘 자라
16c			-----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16d	그러나		-----	하물며 네게라	
16e	(둘 다)		-----	육신	
16f	과		-----	주 안에서 상관 된	

본문을 연구하는 이 방법은 전체 담화 구조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휘적 대응관계(유사점들과 대조점들)와 평행구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서 뒤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무동사 어구 전면에 나오는 사람이(주격대명사와 동사) 대조되어 있는 짝의 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을 이렇게 도표화하는 것도 교차대구적 배열을 드러내 주는데, 위 도표의 15 절에서 굵은 글씨부분과 이탤릭체 부분에 의하여 강조된 것들이 이러한 예이다. 절 단위들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뒤따라오는 문학 형식 분석을 위한 길을 예비해준다.

2.2. 다섯 가지 문학적 기법

본 단락에서 필자는 성서 본문의 두드러진 다섯 가지 문학적 특징들을 요약하고 예시화 하기 위하여 위에서 토론한 내용들을 활용할 것이다. 선행되는 언어학적 분석처럼, 이 담화중심적 접근법은, 말하자면, 해석 과정을 이끌어 주는 “내

적” 준거 틀에 “살을 붙이는” 역할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이 방법은, 어휘들이 원래 말하여지거나 기록되었던 전체 정황과 대인관계의 배경에 의하여 제공되는(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별개의 연구분야다), 본문-“외적” 전망과 항상 짝을 이룬다. 성서 번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개념적 틀이 다른 환경적 틀의 영역 안에(대본이 되는 본문의 틀인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처하게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성서 구절, 단락, 혹은 전체 책에게 정보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해주는, 의미의 다양한 차원들은 이제 주어진 번역본에서 그 본문의 언어학적 재-제시(혹은 “재-문화”)를 지배하고 모양을 만들어주어야만 하는 참조 구조로서의 역할을 한다.

필자의 주된 관심은 그러한 의미론적 도해는 또한 저자가 자신의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든 맥락화하기-동기를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위하여 동원한 모든 상이한 **문학적** 장치와 **수사학적** 전략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의사소통 목표(들)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유용하다면(프로젝트 계획을 따라), 표적언어(번역문) 내에서 기능적으로 동등한 수단들이 발견되어야 한다. 어떤 점으로는, 이러한 문학적 기술들은, 원저자가 고의적이든 직관적으로든 본문 안에 내장시켜놓아서 자신의 표적(목표) 청중(혹은 독자)이 그 길을 따라 자신이 말로 전달하고자하는 의도된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인도해주는, 다양한 해석학적 “단서들”을 드러내도록 도와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단서들 중에 어떤 것은 더 분명해서 이해할 만하고(번역으로도), 다른 것은 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의미론적, 주제적, 심미적, 수사학적, 상징적 의미가 충분히 인식되고 이해되기까지는 원문 및 문맥과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들도 있다.

아래에 토론된 다섯 가지 본문 전략은 각각이 수많은 국면 혹은 과정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문학 범주들이다. 이것들은 본문 분석과정에서 적용하도록 제안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목록화할 수 있다¹⁰⁾

10) 필자는, Timothy L.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Manchester: St Jerome, 2003) 에서 다음의 아홉 가지 문학적 특성의 일반적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통일성, 다양성, 수사학적, 구조, 양식화, 전경(前景)화, 이미지(심상), 음성법, 연출법 등이다. 필자는 이것들을 세 조로 다음과 같이 짜보았다: “첫 조는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의하여 그 정도가 변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조는 대략적으로 본문의 거시적 구조와 연관이 있고, 세 번째 조는 문학적 담화의 미시적 구조와 더 연관이 있다. 이러한 관점들은 물론 보완적이고 긴밀하게 서로 연관이 있고, 심지어는 성서의 다양한 본문에서 나타날 때는 종종 겹치기도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필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재조정하고 단순화했다.

형태적 범주	기능적 작용
장르 선정	전체적 담화작문 형판을 택하기
작문 전환	담화가 펼쳐지는 진행과정에 변화를 주기
모형 반복	좀 더 큰 담화배열 형식에 모양내기
예술적 강조	담화 내부의 선정된 부분이나 지점을 강조하기
수사학적 모양내기	담화에 어떤 힘과 감정을 부여하기

이러한 서로 겹치고 상호관련이 있는 전술들은, 원래 기록될 때 특별한 신학적 혹은 윤리적 목적들을 반영하는, 성서의 특별한 구절을 저자가 현재의 본문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마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 결과로 나온 “담화 구조”는 이제 전반적인 번역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또한 본 연구과정에서 지적인 대로, 성서 독자들을 위해 본문편성체제의 측면들을 적절하게 배열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인쇄 체제**와 **판형**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습을 예시화 하기 위하여 왜 **빌레몬서**가 선택되었나? 분명한 것은 짧은 문서여서(그리스어로 335 단어뿐이다)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문서 전체를 조사할 수 있다. 아마도 문서의 길이와 아주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이 서신은 바울 서신들의 “위대한 것들”에 들지 않았다. 사실, 이 서신은 종종 논의 자체에서 제쳐놓는다. 신약문서에 대한 대부분의 학문적 연구에서 이 서신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빌레몬서 본문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는 우리가 상이한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한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많은 문학적-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특성들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호론적 의미로 뜻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서신의 전반적인 감화력, 호소력, 그리고 목적에 효과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빛 아래서 우리는 이 서신의 특질과 오늘날의 모든 성서 독자-그리고 번역자-들을 위한 서신의 적실성에 대한 우리의 평가 작업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2.1. 장르 선정

“장르”라는 용어는 문학적 담화의 관습적인 범주를 지칭하데, 종종 특별한 사회적 혹은 어문적(구두로 혹은 기록된) 맥락에 사용되는 말이다. 장르 분석은 어떤 예술적 혹은 수사학적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측면이다. 이것은 사람

이 처음으로, 종종 자동적으로, 알아채지 못하고,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특성이다. 왜냐하면 그/그녀가 작업하고 있는 문체의 종류에 대한 지식은 그/그녀가 본문을 해석하는(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각 장르가 주어진 문학 전통 내에서 전형적인 형식(구조), 내용(주제), 그리고 기능(어법)을 지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어진 장르는 안내책자와 함께 주어지는 지도처럼 예상되는 유형을 형성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분석자들로 하여금 담화 내에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더 큰 확신과 이해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지를 알게 해준다.

성서에는 문학의 많은 상이한 장르들(그리고 하부-유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의 첫 번째 과정은 이러한 장르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¹¹⁾ 이러한 주제를 여기서는 상세히 다룰 수가 없지만¹²⁾ 이것은 번역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번역자들은 제일 먼저 원문을 그 해당되는 문학적 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자신들의 언어로, 비단 단어, 구, 절, 그리고 문장들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더 큰 담화의 단위의 관점에서 또한 그것들이 암시하는 의사소통목적들과 더불어, 다시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본문을 배열하는 다양한 유형들은 종종 글의 독특한 장르들과 연합되는데, 이러한 각 장르는, 우리가 세속적이든 성서적이든 간에 문학적인 본문을 인식해가고 이해해 갈 때에, 초기 해석학적 준거 틀 역할을 한다.

다음 도표는 히브리 성서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본문유형, 혹은 장르들의 요약이다. 예를 들면, 사사기 4장은 분명히 “찬양시”(eulogy 혹은 praise-poem)이지만, “서사”(narrative, 내러티브, 이야기)로 (더 상세한 하부-범주로 세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기”) 분류되곤 한다. 신약성서의 문학 자료들도 약간 수정을 하면 이런 일반적인 분류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는 아마도 아래의 “강해”와 “권면”의 영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산문적(prosaic) 이중(異種) 범주에 속할 것이다.¹³⁾

11) 엄밀하게 말하면, 장르라는 용어는 **이미크(imic)**, 언어, 문화 현상 등의 분석기술에 있어서 기능 면을 중시하는 관점에 관해서 말함) 문학적인 범주들, 즉 주어진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전통 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크고 작은 담화의 종류들, 예를 들면, 그리스어로 서신(επιστολη)과 비유(παροβολη) 등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그리고 “(하부)유형들”이란, 문학적 분류법의 **에틱한(etic)**, 언어행동의 기술에서 기능 면을 문제 삼지 않는 관점에 대해 말함), 즉 비-문화특성의 혹은 “보편적”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세목을 가리킨다.

12)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ch.3.

13) 구약 장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D. Brent Sandy and Ronald L. Giese, Jr., *Cracking Old Testament Codes: A Guide to Interpreting the Literary Genres of the Old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5)를 보라. 이 분류법(이와 같은 다른 것들도)에 내재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산문->시문의 연속선상에서 이러한 범주들 중의 몇몇의 상대적인 일반성과 융통성 때

산문

- ↑ - **보고**(사건, 사람, 장소 등에 대한 순차적인 기록[+/-진술], 예를 들면, 겔 40-48; 또한 **편지**와 **초서들**, 예를 들면, 스 6-7; 최소량의 형식=**족보**, 예를 들면, 창 36, 혹은 **인구조사**, 예를 들면, 대상 23-27)
- | - **(을)법**(공적인 명령들, 의식적이거나 건축에 대한 교훈들, 계약적 언어)
- | - **강해**(의미에 대한 설명, 예를 들면 창 41; 예 9:26-28)
- | - **권면**
- | **축복, 격려**(내가 올바르게 행하면, 주께서 너로 형통케 하시리라)
- | **저주, 경고**(내가 악하게 행하면, 주께서 너를 벌하시리라, 신 28)
- | **논증+/-호소**(말라기서의 예언적 고발)
- | - **기도**(하나님께 대한 호소와 연결된, 좀 더 공적인 권면, 예를 들면, 왕상 8; 느 9에 있는 **고백**의 범주도 포함한다)
- | - **서사**(역사적, 드라마[+줄거리], 비유, 산문적 환상보고/진술)

산문적

- **예언**
- 시문 **목시적 환상들**(장식적이고 요원한 구원신탁, 특별한 어법; 상징적이고 환상적; 본문은 해석학적인 열쇠를 요구한다)
- | * [교훈적 지혜담화는 형식 측면에서는 여기에 적합하다]
- | 구원 신탁(축복, 회복, 풍성한 수확 등에 대한 신적인 약속)
- | 심판 포고(죄/완고함의 심판에 대한 신적인 예언)
- | - **지혜문학**(잠언, 전도서)
- | **잠언적**(최소한의 길이; 간결하고 농축되고 기억하기 좋은 미소형)
- | * **교훈적**(더 긴 길이; 비유적, 지혜의, 교훈적, 수수께끼 같은 시)
- | - **시문**(시편, 아가)
- | **탄식시**(보호, 구출, 치유, 그리고 다른 종류의 도움에 대한 호소)
- | **찬양시**(하나님 혹은 사람의 성품, 속성, 그리고 행위 등을 찬양함)
- ↓ **감사시**(받은 축복이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

시문

성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예를 들면 고전 13)에서 산문과 시문간의 차이는 다소 불투명하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연속선상의 양끝에 있는 장르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사기 4장의 서사는 분명히 산문이고, 그것을 노래로 축하한 것(5장)은 분명히 히브리시이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노래는 다음과 같은 시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많은 어휘 반복, 짝을 이룬 평행 구절, 음운적 호소력, 회화적 언어의 집중화, 자주 나오는 농축된 수수께끼 같은(예를 들면, 4장의 배경과는

문에 대두된다. 예를 들면, 구원 혹은 심판에 대한 예언적 신탁은 보통 “강해”와/혹은 “권면”의 구절들도 포함할 것이다. 이 표는 여기서 단순히 분류 문제에 대한 좀 더 정교한 연구를 위한 도약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예로써 보여주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주어진 성서 본문을 형식과 기능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작업과 연관이 되는 가를 밝혀주고자 제시한 것이다.

관계없는), 암시적인, 심지어 신비적인 표현, 강화된 수사학의 화려함, 그리고 소위 “산문적 요소들”(전치사, 직접 목적어 표시, 정관사, 그리고 관계사)의 발생의 전반적 제한 등이다. 그러나 도표의 중간지점에서는, 해당 구절에서 산문 혹은 시문에 해당하는 문학장치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세하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형식상의 범주 정하기가 주어진 어떤 경우라도 다 정교하게 분류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학적 문체들이 어떤 것을 징후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기능적 암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내용, 그리고 담화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 할 때의 경우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산문 쪽 끝의 **정보전달** 기능에서부터 **정서적**(감동적인 + 피할 수 없게 하는) 및 **예술적** 기능들을 지니는 순수 시문의 경우까지를 연결하는 점진적인 연속선도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모든 의미 있는 본문의 특성인, 장르 선정의 필요성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빌레몬서가 가장 짧은 신약 서신들(오직 요한이서와 삼서만이 더 짧고)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의 전체적 담화구조와 기본적 문체상의 특성들은 이것보다 더 큰 서신들의 그것들에 필적한다. 헬레니즘 시대의 서신들의 더 큰 구조는 아주 단순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의례적 **서두**와 **결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긴 정보전달 그리고/혹은 정서적인 **본체**로 구성된다.¹⁴⁾ 바울 서신들에는 이런 기본적 삼분 배열은 종종 특별한 정황에서 사도가 선택한 의사소통 목표들에 맞게 수정되곤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서신의 주요 부분 각각은 적어도 두 가지 하부구조로 분화되곤 한다[해당 구절을 괄호 속에 넣었음]:

- 서두

- 인사
 - 발신인 [1]
 - 수신인 [2]
 - 인사 [3]
- 감사 [4-7]

- 본체

- 이론적 근거/강해 [8-16]

14) David E. Aune, *The New Testament in Its Literary Environment* (Philadelphia: Westminster, 1987), 204-212; James L. Bailey and Lyle D. van der Broek, *Literary Forms in the New Testament: A Handbook*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2), 23-30; Stanley K. Stowers, *Letter-writing in Greco-Roman Antiquity* (Philadelphia: Westminster, 1986), 185-186 등의 논의를 보라.

○ 호소/권면 [17-22]

● **결말**

○ 부차적인 인사 [23-24]

○ 은혜 축복 [25]

그의 자필서명[19]과 손대접 요청[22]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울서신의 보다 작은 구조적-주제적 요소들은 위치-기능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사도가 개인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지지하기 위하여, 더 자연스러운 위치인 “결말” 부분에서 “본체”로 옮겨졌다.¹⁵⁾ 우리가 아래에서 보듯이, 고대 근동(Ancient Near Eastern, 약자로 ANE)의 공적인 논쟁과 연설문의 작문원리들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서신 배열은 그 서신의 수사학적 구조와 겹치거나 보완적이다.

빌레몬서의 본문유형은 그 문학적 장르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추천서”라고 더 세세하게 분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추천서는 또 서로 연관이 있는, 소개서신과 중개서신의 두 하부유형으로 나뉘는데,¹⁶⁾ 후자의 일반적 특징들은 데메트리우스(Demetrius)의 고대 서신 안내서에 기술되어있다¹⁷⁾

추천하는 유형(systatikos)

1. 두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2.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한다.
3. 형성된 적극적인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예를 들면, 우정, 가족, 의뢰인-고

15) 이런 보조적인 장르 구성요소들은 빌레몬서에는 달리 더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서전적 진술**(예를 들면, 갈 1:13-2:14), **디아트레베**(통렬한 비평)(롬 2:17-29), **미드라쉬**(랍비들의 설교 방식중의 하나)(갈 3:6-14), **모형론**(롬 5:12-21), **중말론적 예언**(살전 5:1-13), **구약 인용**(롬 9:25-29), **덕/약의 목록**(갈 5:19-23), **가정법전**(골 3:18-4:1), **예배형식에 대한 교훈**(고전 11), **행정에 대한 교훈**(예를 들면 고전 16:1-4), **찬양시**(빌 2:6-11), **여행계획**(예를 들면, 고전 16:5-9), **건강소식**(예를 들면 엡 6:21-22), **송영**(롬 16:25-27) 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과 또 다른 많은 신약 장르 형식들과 기능들에 관하여는 James L Bailey and Lyle D. van der Broek, *Literary Forms in the New Testament: A Handbook* 를 보라.

16) “중개서신”(혹은 추천서)이외에, 스타우어스(Stowers)(1986)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로마 편지 유형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그 예들을 제시한다: 우정, 가족, 칭송-비난, 권면-조언(격려, 경고, 책망, 힐책, 위로), 송사, 변증, 그리고 계산서 등이다. 바클레이(Barclay)는 플리니(Pliny)가 기록한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 후기의 서신을 인용하면서, “주인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으로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보기”라고 설명한다. John M. G. Barclay, *Colossians and Philemon, New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7) Stanley K. Stowers, *Letter-writing in Greco-Roman Antiquity*, 54.

객).

4. 서신의 기록자는 제 삼자를 대신하여 수신자와 제 삼자 사이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혹은 고치기 위하여 중재한다.

분명히, 이런 상황적이고 기능적인 요소들은 바울의 빌레몬서에 잘 적용되는데, 이 빌레몬서는 스타우어스(Stowers)가 주지한 대로, “소개서신과 중개서신의 여러 국면과 주제적 그리고 형식적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¹⁸⁾(상게서, 155).

문학적 분석에서 장르 선정의 상이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얻는 몇 가지 이점은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들의 형식적 조직의 관점에서 여기에 진술한다(아래에는 특별히 빌레몬서와의 관계에서):

- 하부구조를 가진 기본적 삼분적 서신 구조 틀은 읽는 이에게 담화의 전체적 배열에 대한 초기 관점을 제공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빌레몬서와 같이 접하게 되는 특별한 서신에 부합하게 원용될 수 있다. 한 서신의 각 부분들-주요 개념과 표현들로부터 전 문단 단위들에 이르기까지-종종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서신(심지어는 세속 서신)의 해당부분들과 일치되어서, 해석의 과정을 도와준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골로새서, 골로새서/빌레몬서, 디모데서신/디도서 등과 같은 관계이다.
- 바울이 서신의 서두에서 “감사”부분을 작문하는 양식(내용, 특별한 강조, 변용 등)은 종종 더 큰 “본체”에서 차후에 토론되거나 논의될 주제와 사안을 알아볼 수 있는 임시적 단서나 신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감사 부분은 서신에 지명된 수신자들이 그들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환경 속에서 최근에 가지고 있는 관심사,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황화된다.”
- 고대서신들이 절반 정도는 공공 대화 혹은 공식적인 연설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고대근동의 수사학적 담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체적 범주와 전략적 장치의 관점에서 종종 분석될 수 있다(아래를 보라). 그와 같은 특성이 특히 서신의 본체에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바울이 “자신의 권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의적 수사학(*deliberative rhetoric*) 장르”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를 볼 수 있다.¹⁹⁾ 더욱이, 이 의사소통

18) Ibid., 155.

19) Clarice J. Martin, “The rhetorical function of commercial language in Paul’s letter to Philemon (verse 18),” Duane F. Watson, ed., *Persuasive Artistry: Studies in New Testament Rhetoric in Honor of George A. Kennedy* (Sheffield: JSOT Press, 1991), 322; “심의적 수사학은 ... 그 강조점

에 기반을 둔 관점은 이 대화의 다른 (암시된) 반쪽을, 서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공동체나 개인에 대한 문맥상의 정황을(예를 들면, 소위 “수사학적 급박성”[rhetorical exigency]) 가능한 한 많이 조사함으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서신 안에서 특별한 문체적 혹은 수사학적 형식과 논의 전략을 확인하는 작업은 크고 작은 사고 단위(unit of thought)들과 그것들이 펼쳐지는 담화 내에서 복잡하게 맺어진 상호연관성을 밝히도록 도와줘서, 그 본문전체뿐만 아니라 각 부분들까지 더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기여한다.

분명한 것은, 장르 및 이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로부터 도출된 통찰력은, 이러한 구조적 및 수사학적 특성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성서 본문을 재-제시하려고 작문할 때, 미묘한 기능적(형식까지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등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성서 번역자들에게도 커다란 적실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유의점: 문학적 장르와 그 형식-기능적 요소들은 획일적이거나 변화하지 않는 어문적 구조는 아니다. 숙련된 저자(혹은 연설자)의 마음속에서, 본 단락에서 토론한 모든 전략들처럼, 장르는, 그/그녀의 예술적 천재성과 특별한 수사학적 의도를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종종 미묘하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합되거나 합병되든지 아니면 보완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담화 형판(型板)이다. 예를 들면, 서신의 어떤 부분은 본문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사 부분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피터슨(Petersen)은 바울의 빌레몬서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가서/빛을 지고, 회심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예상되는 바울의 빛 갚음의 이야기는 빌레몬의 회심/빛 짐 그리고 바울의 호소에 반응하는 형식으로 그의 예상되는 빛 갚음의 이야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²⁰⁾

을 미래에 적절한 것 (혹은 부적절한 것)과 유리한 것 (혹은 불리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두는 수사학이다” (Ibid., 322-323.) 왓슨(Watson)은 이러한 특성을 결합한 방법론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이 서신적 및 수사학적 관례에 맞게 하는 시종일관한 전체의 부분임을 보여줌으로써,” 신약 서신의 통일된 특성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Duane F. Watson, “The integration of epistolary and rhetorical analysis of Philippians,” S.E. Porter and T.H. Olbricht, eds., *The rhetorical analysis of Scripture: Essays from the 1995 London Conferenc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399.

20) Norman R. Petersen, *Rediscovering Paul: Philemon and the sociology of Paul's narrative world* (Philadelphia: Fortress, 1985), 66.

이 서사는, 더 큰 영향력과 호소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숙련된 내레이터에 의해 종종 재배열되거나(예를 들면, 과거로 돌아가기, 미래로 돌아가기) 아니면 보완되는(예를 들면, 반복, 생략, 두드러진 강조 등을 통하여), 일련의 연대기적으로 배열된 사건들(“이야기”[story])로 구성된다. 후에 재-구성되고,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사건 순서는 “줄거리”(plot)라 불리는데, 그것은 종종 한 가지 이상의 행동(“정점”)과/혹은 감정(“절정”)의 높은 지점들을 보여준다.²¹⁾

피터슨은 빌레몬서의 이야기 사상(事象)(그는 이것을 “언급 순서” [referential sequence-RS]라 부른다)과 줄거리 사상(事象)(그는 이것을 “시적 순서” [poetic sequence-PS]라 부른다)을 비교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것은 다음처럼 도표화 된다²²⁾

언급 순서	나타나는 본문	시적 순서
1. 빌레몬이 바울에게 빛을 진다.	19하	7
2. 바울이 투옥된다.	9(비교. 1, 10, 13, 23)	2
3. 오네시모가 도망하고 빛을 진다.	15(비교. 11-13, 18-19상)	5
4.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에 의해 회심한다.	10	3
5.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듣는다.	4-7	1
6.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	12	4
7. 바울이 오네시모를 빛을 갚겠다는 호소의 편지를 보낸다.	17-19상	6
8. 오네시모가 편지를 가지고 도착한다(예상됨).	12(암시됨)	8
9. 빌레몬이 바울의 호소에 반응한다(어떻게?)	20-21(비교. 9)	9
10.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하여 빛을 갚는다.	22	10

우리는, 이야기 사상(事象)으로 가상한 언급순서의 관점에서 파악된 본문의 순서로부터, 전략적으로 장소를 이탈한 세 개(예를 들면, 7, 5, 1 번)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이동의 예들은 규범, 즉 엄격한 연대기적인 사건진행 순서를 벗어난 변형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예술적** 중요성을 지니는데, 오히려 이것들은 그 **수사학적** 암시 때문에 더 중요하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인하여(RS5) 그를 칭송하는 것으로(PS1)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형제,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하고자 하는 호소를 향하여 빌레몬을 준비시

21) 이야기(이상화된 연대기적 순서) 줄거리(인식되는 본문 순서)에 대한 구조적 범주들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Karl Beckson and Arthur Ganz, *Literary Terms: A Dictionary*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and Arthur Ganz, 1960), 187-188을 보라.

22) Norman R. Petersen, *Rediscovering Paul: Philemon and the Sociology of Paul's Narrative World*, 69-70.

킨다. 오네시모가 집에서 도망침으로 빌레몬에게 심각하지만 명기되지 않은 사회적 물질적 빚을 졌다는 사실은(RS3) 바울이 그를 대신하여 중재의 요청을 위한 기반을 닦기까지 의도적으로 연기된다(PS5). 다른 한편,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영적인 빚에 대한 언급(RS1)은, 사도의 제안을 빌레몬이 무시하거나 거절하기가 어렵도록 말하게 되는, 자신의 논의의 절정에 도달하기 전까지 미루어진다(PS7).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형제도 안에서 발생하는 빚지고 갚는, [권력과 연관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리고 이런 주제들은, 문자적이거나 은유적이지만, 경제의 기본적인 사안, 그리고 형제도의 고결함[그리고 연대감]을 고양시킨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한다²³⁾

2.2.2. 작문 전환

어문적 작문은 저자에 의하여, 주제들과 하부 주제들의 계층적 조직을 반영해 주는, 여러 가지 크기와 다양한 구문론적 모양의 본문 덩어리(chunks)로 구축된다. 이 덩어리들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든지 모두 주어진 담화의 주요 주제 혹은 행동-선 그리고 목적과 연관이 있다-다시 말해서, 그 담화의 주요 장르 범주와 일치한다(2.2.1). 그래서 주어진 본문은, 진행함에 따라 그 내용의 다양한 측면들이 소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좀 더 다루기 쉬운 분량으로 나뉘었다. 초점이 되는 한 주제, 인물, 사건, 배경, 혹은 환경에서 문장론적 및 공시적(주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순서로 전개되는 다음으로 전환한다.

“덩어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저자가 자신의 독자(청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길을 지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요한 내적(인지적) 준거 틀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본문의 부분들을 우리가 읽거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가공한다.” 이때 문단(산문에서, 시에서는 “절”)이 가장 두드러지는 담화 단락이 되는데, 이는 그 문단이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건, 이미지, 이슈, 그리고/혹은 아이디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어떻게 저자는 이러한 해석의 필수적인 과정 동안에 그의 독자들을 인도하는가? 본 단락에서 우리는 문학적 본문이 좀 더 다루기 쉬운 그리고 기억할 만한 형태, 즉, 작문 전환을 통하여 “구성되는”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 만한 방식을 조사할

23) Ibid., 78. (이탤릭체 부분은 첨가되었음.)

것이다.

장르에 상관없이 어떤 본문에서라도 끊어지는 부분과 전이 부분을 확인하는 주요 전략은 작문진행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이 발생하는 곳을 주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에 열거한 담화 특징들 중에서 한 가지 이상과 관련이 있는, 눈에 띄는 수식어가 감지되어야 한다:

- **중심 토픽(주제)** 혹은 앞으로 논의하거나 언급될 **주요 사건 진로(event line)**
-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참여하는(인물 선정) **주요 행위자** 혹은 **일군의 참여자들**
- 직접화법이 있다면, **화자** 그리고/혹은 **청자(들)**
- 본문의 **장르** 혹은 **하부유형**(예를 들면, 산문/시, 직접/간접 화법, 심판/구원 신탁)
- 담화 **배경**(시간, 장소, 환경)
- 유력한 **이미지**의 유형(예를 들면, 가뭄과 황폐함에서 풍성한 정원의 낙원으로)
- 두드러진 수사학적 **장치** 혹은 담화 **기능**(예를 들면, 반어적/풍자적 고발에서 공적 심판으로)
- 뒤따르는 **감동적인 어조**(예를 들면, 슬픈 탄식에서 기쁜 환호로)
- **틈을 예고하는 문체적 특성**의 새로운 층(예를 들면, 호격어, 명령법, 수사학적 질문, 연결사 생략)
- 미리 주어지는 어조가 강한 혹은 구별되는 **종결**을 알리는 형식들(예를 들면, 후렴, 요약, 감탄문, 직접 인용)

이러한 열 가지 요소들이 본문 실현과정에서는, 한 단위의 종결인 동시에 다음 단위의 개시를 알리는, 장르에 특화된 서두 혹은 종결부 접속사, 공식, 전이 표현, 그리고 결론적 요약 진술 등과 함께 종종 충돌하거나 한데 모이기도 한다(예를 들면, 룻 1:5, 22; 2:23). 작문 과정의 특별한 지점에서 활성화되는 특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에서 발생하는 분리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주목할 만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미한” 분리현상은 “주요한” 분리현상들-예를 들면, 새로운 단락, 에피소드, 혹은 논의의 한 단계(혹은 예언 시에서 새로운 신탁)-과는 구별된다

본문의 어떤 유형들은 이와 같이 변화하는 요소들을 기반으로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서사(이야기)는, 한 장면, 배경, 혹은 연속된

사건들이 다음 단계로 움직일 때, 문단으로 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사사기 4장의 주어진 진술에서 관심집중이 한 인물에서 다른 인물로의 전환, 일련의 사건 혹은 화자의 변화 등을 살펴보자: 1절(이스라엘을 한 나라로-서사의 배경), 4절(드보라), 8절(바락), 9절(드보라), 11절(헤벨), 12절(시스라), 14절(드보라, 바락, 시스라-에피소드의 정점), 17절(시스라), 18절(야엘), 19절(시스라), 21절(야엘), 22절(바락, 야엘, 시스라-담화의 절정), 23절(하나님, 이스라엘-대단원).

시의 경우, 이러한 분할 과정은 아주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맥락과 관련하여 문체적 증거의 특성과 분량을 조심스럽게 저울질해야만 한다. 사사기 5장을 예로 들자: 1절(서사의 배경/서언), 2절(노래/시적 장르의 개시), 3절(호격어, 명령법), 4절(호격어, 신현현의 이미지가 시작된다), 6절(강조적 종결로 시작되는 역사적 요약), 10절(묘사와 함께 새로운 청자들), 11하반절(역사적 단락이 시작된다), 13절(새로운 참여자의 목록과 묘사), 19절(시적 서사부분이 시작된다), 24절(찬양의 환호, 여결에 대한 소개), 28절(인물과 관점의 전환), 31상반절(청자의 변화, 감탄사), 31하반절(결론적인 서사 배경/종언).

이와 같은 담화를 그 구성요소 단위로 윤곽을 그려보는 발견적 과정들은 분류표가 실제로 주어진 본문에 적용되어질 때 현상들을 창조적으로 검토해보는 지혜를 요구한다. 번역본들과 주석들에서 상이한 견해들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것들은 연구하는 본문의 조직과 일치하는 가장 설득력 있고 조리가 서는 해답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하면서 조사되어야 한다. 성서 해석자들과 번역자들도 원문의 형식, 내용, 감정, 그리고 의도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관심 하에 다양한 구조적 그리고 문체적 단서들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 전체적 의미-꾸러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본 단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섯 가지 일반적인 문학적 전략은 우리에게 이 과업에 대해 공동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장르 선정**과 **작문 전환** 연구에 의하여 공급되고, 더 나아가서 (아래에서 논의될) **모형 반복**, **예술적 강조**, 그리고 **수사학적 모양내기** 등에 의하여 실체화된 다양한 증거들을 함께 저울질함으로써, 분석자들은 본문 전체나 어느 특정한 단락 어디에 주된 분기점, 전이 지점, 정점, 절정이 있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게 된다. 이것은 서신의 긴 중심 부분(“본체”)에서 특별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담화의 의미론적 개요가 형식적 문장론 구조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문학적 기준들은 어느 한 가지 배열을 선호해서 다른 것으로 균형이 전환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필자가 빌레몬서(8-22절)에 대해서 제공하는 제안이다:

화살표(→)가 있는 절에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 작문 전환에 기초를 둔 증거와 연관되고 응집력이 있는 속성들을 기술했다.

- 8 → 바울의 “감사”(Εὐχαριστῶ--4절)의 말이 7절 끝에서 전경(前景)적인 호격어 “형제”(ἀδελφέ)와 함께 끝난다. 그의 “호소”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접속사 “이러므로(Διό)로 표시된 8절에서 시작된다. 바울의 초점은 빌레몬(4-7절)에서 자신(8-9절)에게로 옮겨지고, 그의 어조는 “위로”(παράκλησιν)에서 “담대함”(παρρησίαν)으로 옮겨진다.
- 13 → 앞에서 그리스어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10절에서 시작된 관계절의 연속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호소를 위한 준비(8-11절)로부터 옮겨가는 담화 전개상의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 대상(Ονήσιμον)을 포함하여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겠다”(ἀνεπεμψά--12절)로 시작하는 그의 행동 계획 등이 그것이다. 14절에서 끝나는 문장 후에는 새로운 문단이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제적 강조가 새로운 “사랑하는 형제”(ἀδελφὸν ἀγαπητόν) 오네시모 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 17 → 바울의 오네시모를 위한 명시적 그리고 무언의 소망에 대한 개관은, 16절에서 이전의 종과 그의 주인 간에 “주 안에서”(ἐν κυρίῳ) 현재 존재하는 변화된 관계를 강조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사도의 분명한 호소는 17절 시작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절은 그의 논지에 대한 앞선 근거들과 결과 접속사 “그러므로”(οὖν)로 연결되어 있다. 바울이 “형제” 빌레몬에게 한 청원의 핵심이 17-20절에 전개되는데, 이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ἀνάπαυσόν μου τὰ σπλάγχνα ἐν Χριστῷ--비교. 7절)는 열렬한 중언으로 끝을 맺는다.
- 21 →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는”(ἔγραψα) 확신에 찬 목적에 대한 요약이, 서신의 본체를 고요한 결말(21-22절)로 인도하는, 이 전이 부분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미래적 전망이 사도의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ἐτοίμαζέ μοι ξενίαν)는 마지막 요청으로 강화되는데, 이것은 오네시모의 일이 어떻게 바뀌었을 지를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기회가 그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게 만든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Ἀσπάζεται σε)는 23절에서 서신의 공적인 끝맺음을 시작한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담화 조직과 그 본문 단서들의 여러 측면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표적(목표) 언어에서도 가능한 정도까지 자연스런 방식으로 재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사의 적절한 단위들(특별히 문단들)의 시작과 끝은 번역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이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주요 어휘적 요소의 반복, 단락시작 어순의 원용, 혹은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접속사, 등장인물의 소개, 논리적 논쟁 등과 같은 경계표들을 표적 언어에 좀 더 분명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몇몇 치체와(Chichewa) 번역본의 예들이 단락 3에서 인용될 것이다).

분명하게 표시된 외적인 경계선들은 주어진 단위에 포함된 본문의 분량에 대한 증거 틀을 제공해서, 이를 보는 이들이 그것의 내적 **일관성(coherence)**(내용)과 **응집력(cohesion)**(형식)의 끝들을 인식하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예를 들면, 만약 번역자들이 단순히 어느 하나나 둘 혹은 여러 개의 표준이 되는 번역본의 문단 나누기를 단순히 따라가는 식의, 어문적 작문의 더 큰 배열(그리고 그것이 지시하는 개념적 전개)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마지못해 하는 과정은 번역자들이, 연속되는 문단에서 독특하게 구분되는 각 단위의 특별한 기능을 포함하여, 성서 본문에서 말하여 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일일 것이다.

사실상 의견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은 특정한 담화 단위의 경계구분의 측면에서 참고해본 주요 번역본들에 의하여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빌레몬서 8-23 절의 영어번역본들의 예이다(**C**ontemporary **E**nglish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G**ood **N**ews **B**ible, **R**evised **E**nglish **B**ible, **N**ew **J**erusalem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필자가 위에서 제안한 **EW**; X표시는 문단구분이 표시된 구절을 말한다; **GR**은 그리스어 원문에 문장구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절	CEV	NRSV	GNB	REB	NJB	NIV	EW	GR
8	X	X	X	X	X	X	X	X
12	X		X			X	X	
15	X		X					X
17	X	X	X	X		X	X	X
19								X
20								X
21	X		X	X			X	X
22		X			X	X		

23	X	X	X	X	X	X	X	X
----	---	---	---	---	---	---	---	---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분단을 해야 한다고 참조한 번역본들이 모두 일치한 곳은 (선택한 아홉 구절에서) 단지 두 곳뿐이다-8절과 23절에서.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영어 번역본 어느 하나도 그리스어 문장 단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들이 그 담화를 마음속으로 다루어 갈 때 순서적으로나 주제적으로나, 다소간 자동적으로 인쇄된 본문의 단위구분에 의존한다. 이것은 그들이, 형성된 전통적 억양, 쉬기, 리듬, 소리 크기, 강세가 필요한 때인 공적 의식적 예배에서 동시에 합독하는 형식으로, 본문을 크게 읽을 때에 특별히 그러하다(그리고 종종 이것을 단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문단은 더 큰 구획분할과 함께 독자들로 하여금, 성서 기자가 자신의 논의를 어떻게 형성하고, 과정 중에서 특별한 강조지점을 포함하여 사고 성향을 어떻게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시켰는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체제(형식)를 인쇄된 본문에 원용해 보라,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시된 메시지를 인식하고 종종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형식)는 의미를 지닌다!

2.2.3. 모형 반복

어떤 장르의 전통적인 체제(형식) 만들기 기술과(2.2.1) 작문 변환의 순서(2.2.2)에 이어서, 문학적 본문은 보통 서로 다른 종류의 언어학적 “반복”(recursion)에 의하여 다양하게 조직된다. 그러한 반복은 음성, 형태론적 요소, 어휘적 항목, 문법적 구조, 그리고/혹은 담화 구조의 더 큰 유형들을 포함한다. 어문 형식과 그와 연합된 내용의 반복은, “되풀이”라고 한다면, 정확할 것이다. 혹은 예를 들면, 비슷한, 대조적, 은유적 혹은 환유적이라고 한다면, 거의 정확하거나 본질상 상응할 것이다.

본문을 다양한 크기의 단락으로 세분하고 정렬하는 일을 돕는 것과 아울러, 반복 기법도 본문 전체뿐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단위들에게 언어학적 응집력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일관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공급해준다. 이런 다양성 속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감싸고 통합하는 전체 내에서 기능하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라는 기본적인 문학적 속성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를 담화 내용의 정확한 해석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수사학적 강력함의 내재적인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준다.

본 단락에서 우리는, 더 큰 작품, 즉 바울의 빌레몬서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단

위들의 경계를 더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환 기법들과 함께 사용된 반복의 여러 유형들을 조사할 것이다. 반복되는 요소들을 기초로 제안된 본문 배열은, 담화 전체 내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극히 중요한 구조적 준거 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한계를 정하는** 기능은, 반복이 그 특성상 항상 기여하는,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기능에 더하여(첨가적으로) 존재한다.

앞에서 주시하였듯이, 문학적 특질들의 **결합**은 항상 작문 단위의 시작과 끝의 경계를 표시해주는 더 강한 증거를 공급한다는 원리를 마음에 두는 것은 도움이 된다. 간단히 말해, 한 구절에 나오는 표시(marker) 혹은 구조적 지표가 **많을수록**, 분석자는 별개의 본문 단위가 거기서 시작하거나 끝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반복 기법의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면, 반복(즉, 되풀이)이 **정확하면 할수록**, 그것은 담화 구조의 신호(표시)로서의 기능을 **더 강하게** 한다. 경계를 나누는 구조적 분석 방법은 성서의 어떤 본문에서도 수행될 수 있지만, 비-서사적 담화, 즉 시, 예언, 그리고 서신 문학의 경우에 특별히 도움이 된다.

다음은 빌레몬서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형 반복의 예들 몇 개를 뽑아본 것이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자적인 영어 번역만 수록하였고, 주요한 대응 요소들은 이탤릭체로, 밑줄을 그어서, 그리고/혹은 굵은 글씨로 썼다:

-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5)

[서신의 시작에서 그리고 그 끝에서-구조적 묶음 쇠(*inclusio*)-익숙한 바울의 서신 형식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그가, 빌레몬에게 형제애적 요청-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준“*은혜*”-을 하는, 필수적인 신학적 맥락을 강조하는데 공헌한다. 이런 중재의 행동은 “*너희*”(복수)라는 단어에 의하여 주어지는 대인관계의 틀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즉, 빌레몬의 “가정교회”(2하반절).]

-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킴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가 문안하느니라 ... 나의 동역자들. (23-24)

[우리는 다시 바울 서신체에서 한계를 정하는 측면을 다루게 되는데(즉, 앞에 나왔던 것과 연결하는 *묶음 쇠(inclusio)*),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의 형제 자매 관계를 강조하는, 인접한 배경과 에워싼 내용에 맞춰서 원용되었다.]

-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Εὐχαριστῶ*) 나의 기도할 때에 너(단수)를 말함은 (4)

... 내가 바라노라 너희(복수) 기도로 너희에게(복수) 나아갈 수 있기를 (*χαρισθήσομαι*). (22)

[바울이 빌레몬에게 행하는 호소의 본체는 서로를 위한 기도에 대한 언급으로 더 에워싸지는데. 이 기도는 모든 배경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드러진 속성이다.]

- ... 너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이(창자가)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형제여. (7)

오 형제여, 나의 마음이(창자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20)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자신의 중심 청원을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써,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잘 알려진 그의(빌레몬의) 품성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자신의 호소를 마무리하면서, 그들 가운데 불화의 원인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을 향하여 그의 “형제”가 그 덕목을 다시 한 번 발휘하도록 요청한다. 여기서 주요한 용어들이 반복되는 교차대구 구조 속에 상호적인 행동에 대한 개념이 비쳐지고 있다: 즉, $A : B :: C :: C' :: B' : A$. 이러한 예술적 특성(1.1.4로 보라)은 서신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부단위들의 종결지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에피포라 [*ἐπιφορά*, 동일단어 반복으로 절들을 연결하는 수사학적 기법, 역자주]로 불리는 *묶음 쇠*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하부유형).]²⁴⁾

24) 성서의 담화구조에서 반복되는 몇몇 주요 모형들에 대한 요약을 위하여, Timothy L. Wilt, “A New Framework for Bible Translation,” J. A. Naude and C. H. J. van der Merwe, eds.,

- ... 내가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 (12)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너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7)

[담화 내에서 이 결정적인 문단들의 시작은 (예를 들면, 아나포라-첫머리 말 [구]를 되풀이하는 구조) 대명사 어법을 복합적으로 짜 넣는 특징이 있다-이것은 논쟁이 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빌레몬과의 논쟁이다.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상호 교제의 끈을 스스로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요청에 반응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붕괴시킬 것인가?]

- ...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1)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16)

[위의 예에서 강조된 첫머리 말을 되풀이하는 경계구조는(예를 들면, 12절과 17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단위들) 각각 앞에 나온 문단 단위 끝에서 개념적 반복을 통하여 강화된다(예를 들면, 에피포라 구조가 11절과 16절에 나온다). 16절 끝에서의 확충(부연)은 바울이 발생시켰던 미묘한 수수께끼를 해명한다. 그는, 이전에 절박했던 사회적 관심사(“육신 안에서”)위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주 안에서”)를 높인다.]

-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20상)

[위에서 언급한 16절과 평행하게, 이 소원도 흡사하게 담화 단위의 결론이 된다. 예를 들면, 강한 개인적 강조가 포함된 12-16 절과 17-20절(에피포라 구조). 그래서 권위가 있는 두 사람, 바울과 빌레몬이 서로 병치된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주님”이신데, 두 사람 모두는 그를 섬기고 있다. 또한 그 주님의 뜻이, 그가 주신 하늘의 사명이 진행되는 것을 붕괴시키거나 연기시킬 수도 있는, 이 인간의 위기 가운데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앞에 나오는 연속된 평행구절들은 담화 전체를 관통하여 펼쳐지고 있는 더 중요한 유형 반복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묶여진다-즉, 모든 것을 포함하는 교차대구적 본문 구조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약술할 수 있다:

A (1-2) 서두 인사(“그리스도 예수” + 다섯 이름)

| **B** (3) “은혜” 축복(“주 예수 그리스도”)

| | **C** (4) “기도”-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 | | **D** (5-7) 호소 전의 기도-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하여 활동적일 수 있도록

| | | **E** (8) 바울의 권위: 그는 “담대하게”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의 빛을 용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 | **F** (9-10)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 바울의 곤경에 초점을 맞춘다

| | | **G** (11) 대조: 이전에 오네시모는 쓸모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빌레몬)와 나(바울)에게” 필요하다

| | | **H** (12) 행동: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냄

| | | **I** (13) 갈망: 바울이 진정 하고 싶은 것: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빌레몬 대신 복음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

| | | **H'** (14) 비-행동: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지 않는다

| | | **G'** (16) 대조: 오네시모는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러운 형제”, “나에게”와 “너에게”도 사랑스러운(17-19상)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호소: 그의 약속에 초점을 맞춤

| | | **E'** (19하) 바울의 권위: 그는 빌레몬이 자기에게 진 빛을 불러들인다

| | | **D'** (20-22상) 호소 후의 간청-빌레몬이 바울에게 “선”을 베풀고 “순종”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 | **C'** (22하) “기도”-바울을 위한 빌레몬의

A' (23-24) 결말 인사(“그리스도 예수” + 다섯 이름)

B' (25) “은혜” 축복(“주 예수 그리스도”)²⁵⁾

확실히, 위에서 살펴본 구조적 평행구 중에서 어떤 것은 대조뿐만 아니라 유사성을 지니고 있고, 어떤 것은 다른 것 보다 더 믿을 만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본 서신의 전체적인 주제적 구조가 강하게 특성상 동심원적이며 반복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담화의 반전하는 문학적 구조로 배열하는 것은 선적이고 구문론적으로 배열하는 것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전자는 후자의 주요 강조점들을

25) 맨 끝에서 일반적인 모형에서 뒤틀려 있는 것을 유의하라, 예를 들면, A'-B'의 순서가 바뀌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자체가 공식적으로 서신의 결론을 표시하는 또 다른 조심성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되돌아오면서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이러한 구성의 핵(이 서신의 중간지점)이 저자의 논의 혹은 논제의 심장부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바울의 주요 목표는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돌아와 빌레몬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의 감옥 사역을 위하여 그를 섬기도록 하는 자신의 갈망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위의 도표에서 중앙에 위치한 I 부분).²⁶⁾ 이 소원은 매우 암묵적인 양식으로 전달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10-13절에 있는 또 다른 종속절(관계절의) 안에 박혀있는 의존적 구문론적 구조(목적절) 안에 깊숙이 파묻혀 있다.

2.2.4. 예술적 강조

저자의 문학적 전략의 재고창고 안에 있는 이 범주는, 저자가 산문이든 시문이든 어떤 선택된 본문의 일정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거나 강조할 때 사용하는, 작문에 있어서 **미세구조(microstructure)**상의 상이한 문체적 형식들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특성들의 작동은 좀 더 **집중적으로** 조합되어 특정한 주제적 개념이나 화용론적 효과에 대한 논의를 서로서로 강화해주는 곳에서 발견될 때 특히 분명해진다. 여기서 생각해볼 예술적 고안 장치들의 범주는 넓지만, 경험 있는 성서 해석자와 번역자들에게는 그것들의 대부분이 익숙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성서 본문의 선택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전경을 까는데 사용된 좀 더 일반적인 형식들을 나열한다면, 다양한 회화적 언어, 관용 표현, 두드러진 구문론적 전진과 후진, 어휘 반복, 수사학적 혹은 선도하는 질문, 생략법, 과장법, 아이러니 등이다.²⁷⁾ 이러한 문체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그 특성상 미적이거나 장식적

26) “바울의 돕는다(*διακονέω*)”라는 단어 선택은(13 절에서) 인상적이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가 16절에서 사용한 단어 “중”(δούλος)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에서 왔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언급할 때에 *διακονέω*의 동족어를 사용한다(골 1:7, 23; 4:7, 17에서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을 돕는 자(사역자)다. 그러므로 그는 빌레몬을 대신하는 유용한 자이다 Robert W. Wall, *Colossians and Philemon*, The IVP New Testament Commentary Seri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209-210. 브루스(Bruce)는 “빌레몬을 대신하여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예는, 바울이 세운 지역교회가 그들을 대신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헌금과 함께 파송한,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이다”라고 언급한다. F. F. Bruce,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to Philemon, and to the Ephesian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4), 215.

27) 문학적 기능적-동등성(Literary functional-equivalence=LiFE) 접근법을 발전시킨 초기 단계에서, 필자는 문학의 **형식적** 차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묘사하기 위하여 “예술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시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제는, 일상적인 영어에서 “시적”이라는 용어는 너무 특별하게 보이는데(순수한 시와 밀접하게 동일시된다) 반하여 “예술적”이라는 용어는 범위 상 아주 넓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예술적”이라고 지명하는 것은 “형식, 효과에 대한 감

인 것만은 아니다(예를 들면, “예술을 위한 예술”처럼); 오히려 성서 문학에서는 이것들이 항상 모종의 “수사학적”(기능적-의사소통적) 목적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체적인 요소들은 빈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어떤 작업을 하도록 요구된 담화 틀을-즉, 그 틀의 주요한 구조적 경계들과 주제적 절정들의 관점에서-“접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단락에서, 필자는 빌레몬서에서 그와 같은 창조적 강조하기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측면을 확인하고 예시할 것이다. 이것들은 심지어 비평적 주석에서도 자주 관심을 쏟는 것도 아니고 논의되는 것도 아니다: 즉, 구문론적 자리배치, 개념적 재순환, 본문 간 공명, 그리고 음운론적 전경 깔기 등이다.²⁸⁾

인상적인 **구문론적 자리배치**(*syntactic placement*)의 여러 예들은 이미 빌레몬서의 거시적 구조에서 살펴보았다. 예를 들면, 강조 인칭대명사들로 강조된 13절의 중심 구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배열을 관찰하였다:

<p>ὁν ἐγὼ ἐβουλόμην πρὸς ἑμαυτὸν κατέχειν, ἵνα ὑπὲρ σοῦ μοι διακονῇ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p>	<p>그를 내가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 네 대신 하나 나를 섬기게 하고자-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p>
---	---

“그를”-“내가”-“너를”: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세 명의 사람이 사도의 소원을 차별하게 표현하는 곳에 친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심복”(창자), 오네시모에에 관하여(12절) 마음(창자) 속에 느끼는 갈망을 가장 가까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밝혀지지 않은 불성실한 행동을 통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노예다. 그러나 이곳 로마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로, 이제는 세 사람 모두 “형제”(16절)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복음”을 위하여-끊을 수 없이 함께 묶여진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소망하는 계획은, 그 상황의 실재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 공동체 조직의 평등주의적 양태(**형제-형제/자매**)와 대조되는 계

성과 상상력 등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Webster)을 언급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사람의 예술성에 의하여, 특별히 형식의 관점에서 적용된, 창조적인 생산품을 언급하는 지에 대하여는 선택이 필요하다.

28) 이런 종류의 서신에서는 놀라우리만치 많은 다른 예술적 특성들이 있다. 특별히, **은유**(예를 들면, “함께 된 군사”-2절, “자녀”-10절, “심복”[창자]-12절), **환유**(예를 들면 “쇠사슬”[간헐]-10절, “복음”-13절, “손”[친필]-19절, “너 자신”-19절, “심령”-25절) 등과 같은 회화적 언어와 주제적으로 중요한 **관용적** 표현(“나의 마음[창자]을 시원케 하라”-7, 20절) 등이다.

층적 사회-문화적 관습과 관련된(주인-노예) 상황이다. 확실히, 초대교회에는, 그가 회심시킨,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였던(10절), 사도 바울과 같은 권위를 지닌 인물들이 있었다. 또한 빌레몬과 같은 지역 지도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나 세속 사회에서 동시에 높이 존경을 받았다. 바울은 잠잠히 바로 다음 구절에서(14절), 빌레몬이 지니고 있는 복음 사역에서의 사랑 받는 동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그의 위치와 자신의 그것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일련의 대조를 펼쳐 보이면서, 그러한 자신의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을 한다. 정황에 대한 예상과 급박한 사정 사이의 이러한 상황적 차이가 13 절과 관련된 14절에서 대조적인 평행적 구문 배열에 반영되어 있다:

13: “나는”(ἐγώ)	14: “네 승낙이 없이는”(χωρίς δὲ τῆς σῆς γνώμης)
“하고자 하나”(ἐβουλόμην)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οὐ...ἠθέλησα)
“머물러 있게”(κατέχειν)	“아무 것도 하기를”(οὐδὲν ποιῆσαι)
“하여”(ἵνα)	“되지 아니하고 하려 함이라”(ἵνα μὴ)

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런 극적인 대안적 표현은 14절에서 결론이 맺어지는데, 정상적인 문법적 위치선정을 원용해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인 덕(“선[을 행함]”-중양에서)을 그것을 성취하고자하는 올바른 태도(“자유의지”-절정의 종결 부 강조)와 짝지어서 강조하고 있다:

ἵνα μὴ ὡς κατὰ ἀνάγκην
τὸ ἀγαθὸν σου ἦ
ἀλλὰ κατὰ ἐκούσιον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너의 선한 일이 [하려 함이라]
자의로 되게

강조 대명사 사용과 짝을 이룬 구문적 자리배치의 또 다른 인상적인 예는, 바울이 자신의 호소의 정점에 이른, 20절에서 나온다: ἐγὼ σου ὀναίμην ἐν κυρίῳ·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이 구절은 위에 나온 13절과 본문의 형식이 그 핵심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평행구를 이룬다: 바울은 빌레몬으로부터 “오네시모”(ὀνήσιμον -11절)라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 (“좋은 일” ὀναίμην)의 구체적인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단락 2.2.3에서 우리는 어휘들이 문학적 본문의 담화 내에서 구조적으로 의미 있게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호소에서 주요한 주제들을 강조해 주고 전체 작문에 인지 가능한 준거적 결속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반복 중에서 좀 더 느슨하게 연결된 종류의 예들만을 단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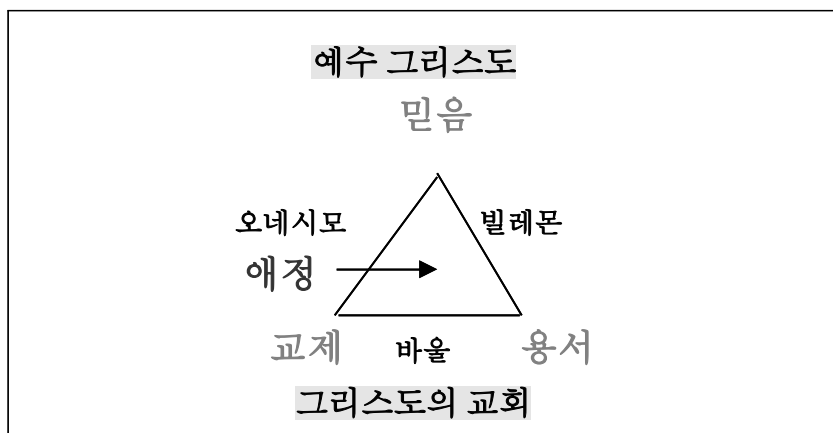
목록만 열거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의 반복은 전형적으로 형성된 일련의 의미론적 범주들을 창조하는데, 이들 각각은 주요 주제, 즉 “주요 개념” 주위에 떠올리어 모여게 된다. 이 주요 개념은 전체적인 범주에 대한 라벨로 추상화된다. 빌레몬서의 준거적 영역 내에서는 네 가지 주요 개념들이 확인되었다. 다음 표가 이러한 네 가지 인지적 계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된 개념들의 목록을 절의 순서를 따라서 열거한 것이다.²⁹⁾

구절	호의	매임/빛짐	친척-/동반자의식	봉사
1	사랑을 받는	간힌 자	형제, 동-	-역자
2			자매, 교회, 동-	-군사
3	은혜		아버지	주
4	감사		기도	
5	사랑		성도	주
6			교제	역사 하는
7	기쁨, 사랑, 위로		형제	마음이 평안함 얻음
8				마땅한 일을 하다
9	사랑	간힌 자		
10		간힘(매임)	자녀(아들), 낳은	
11				[무익한], 유익한
12	내 심복			
13		간힘		섬기다...복음
14				선한 일, 자의로
15				저를 두다
16	사랑 받는	종, 종	형제	주
17			동무	저를 영접하다
18		불의를 하다, 지다, 회계하다		
19		값다, 이외로 빛지다		
20			형제	기쁨 얻고, 마음

29) 이 분석을 어느 정도 단순화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된 개념들은 하나의 포괄적인 범주로 통합되었다. 예를 들면, 매임과 빛짐; 혈족관계, 교제, 그리고 동반자의식 등이다. 여기서 각 사전적 항목들의 선택과 배치는 다소 주관적인 작업이지만, 바라기는 이 차트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람이 한 본문을 의식적으로 처리해나갈 때 그/그녀의 마음속에 형성된 의미론적 연결들을 반영할 것이다. 어떤 주요 용어들은 이 목록에 나오지 않지만, 필자는 그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범주들 중의 하나와 개념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민음”(5-6)-->친족/교제 관계에 속한다.

				평안함
21				순종, 내가 할 것이다
22			너희 기도	처소를 예비하다
23	문안하다		함께(동)-	-군사
24			함께(동)-	-일군(역자)
25	은혜		너희, 심령	주

어휘목록과 개념적 완성도의 관점에서 볼 때 빌레몬서는 분명히 매우 탄탄하게 짜인 서신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중심 개념들이, 논의를 지지하며 중심 호소를 위한 기반의 역할을 하도록, 담화 전반에 걸쳐 짜 넣어졌다: 즉, 중심 개념들은 애정, 매임, 동반자 의식, 그리고 봉사 등이다. 많은 구절에서 이러한 개념들 중에서 셋 이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신 내에서 적은 수의 인물들에 의하여 실연되고 있다: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다-이 세 사람 모두는 한편으론 그리스도(하나님)와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론 교회(연합을 이루는 믿는 자들의 교제)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주제적 상호연관성은 아래의 도형에 보이는 것처럼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담화를 시작하고 끝내는데(1, 25절), 이로써 자신의 충성된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감싸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세 사람의 중심 참여자의 팽팽한 상호작용의 맥락을 형성하는 준거의 인간적 분야로서 행동한다: 바울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즉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리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1, 3, 25절)와 그의 보이는 교회(2, 23-24절)의 영적인 틀 안에서 이 서신의 드라마는 공연되고 있다. “믿음”(5-6절)은, 신도들 개인을 그리스도와 서로서로를 묶어줘서 하나님의 가족의 독특한 “교제”를 창조해내는, 지울 수 없는 끈이다.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사랑”(5, 7,

9-10, 16절)의 다양한 행동을 통하여 실제로 나타낸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애정”은 “용서”-사회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빛으로부터 자유롭고 온전한 해방(17-19)-와 “봉사(섬김)”의 상호적 행동을 통하여 보여진다.³⁰⁾ 봉사는 복음 사역(11, 12, 20, 21-22)과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의 연합(4, 7, 15-16)과 관계된 필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루어진다.³¹⁾

그리스도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개인적인 사랑을 격려하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상호적인 섬김을 통하여 인간의 노예적인 매임을 변화시켜 형제애적인 동반자의식으로 바꾼다.

서신에 나오는 중심 개념들의 의미론적 능력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주제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는 본문 안의 일정한 핵심 구절들에서 감동적인 표현이 집중된 양식으로 실현된다. 특별히 9 절과 17절은 함께 서신의 일차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도리어 사랑으로써(애정) 간구하노라-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매임) 되어 ...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동반자 의식)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봉사).

또 하나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는 12하-13절에 나오는데, 매우 수동적인 방식으로 바울의 마음속의 갈망을 표현한다 - 즉, 이것은 전체 서신의 실제적인 동기이다:

그/오네시모는 내 심복(애정)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매임) 네 대신(동반자 의식)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봉사),

이런 방식으로 저자의 의사소통 기능을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담화의 내

30) 벅첼(Burtchaell)은 노예제도(종의 도가 아닌)가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최고의 은유”라고 지적한다. James T. Burtchaell, *Philemon's Problem: A Theology of Grace*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1998), 17.

31) 앞의 요약에서 누락된 두 구절만이-즉, 8절(권위적인 명령)과 14절(강압)-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의 현재 상황에서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행동과 태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용은 그 문학적 형식(예를 들면, 반복, 본문 구축)에 의하여 강조된다-이것이 사 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적 목적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술성 이다.

13절에 언급된 “복음”은 이러한 질문을 유발한다: 왜 이 서신에서는 “기쁜 소 식”(εὐαγγελίον)에 대하여 이렇게 적게 말하고 있는가? 즉, 구원에 관한 사도적 메시지의 핵심(죄-회개-구속-성화 등등)은 신자들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인 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저자의 문학적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소개한다- 즉, 그가 안전하게 자신의 청중(독자)이 아주 익숙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정보에 대한 암시를 자아내는 설득력 있는 **본문간의 공명(intertextual resonance)**을 활 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전제는 바울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보낸 그의 개인서신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준다.³²⁾ 다른 말로 하 면,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가정 교회”에 있는 이들과 모두 함께, 그리스도와 그 의 사도들이 전했고 다른 초대교회 기독교 담화에서 표현되었던,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배경 정보를 공급해준 가장 가능성이 있는 대안-빌레몬서의 주요한 **하 부분문(subtext)**-은 바울의 **골로새서**이다. 이 서신은 확실히 빌레몬서와 거의 동 시에 기록되고, 보내졌고, 배달되어서, 그 내용이 전해졌다(골 4:9).

그래서 빌레몬서의 여러 중심 단어, 표현, 그리고 언급들이, 바울 혹은 그의 동 료 중 한 사람(에바브라일 것이다, 골 1:7; 몬 23)이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회중에 게 과거 언젠가 말로나 글로 제시하였을, 필요 불가결한 사안들과 때에 맞는 주 제들이 생각에 떠오르게 하는 어문적 단서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바울은 오 네시모를 위하여 논의할 때, 그들의 공동 신앙과 삶의 밑에 있는 이런 신학적이 고 윤리적인 기초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본문간의 암시만으로도 이와 같은 복음적 교훈, 즉 “진리의 말씀”(골 1:5-6)을 마음에 떠오르게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바울이 빌레몬을 그의 “신앙”과 “사랑”(5절)을 들어서 칭찬할 때, 빌레몬의 마음속에서 골로새 교회들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기도하며 칭찬하는

32) 암시는 또한 바울의 논의의 예술적-수사학적(회화적)요소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 면, “바울이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나누고자 준비되어있다고 진술한 것은(18절)그가 빌레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심에 경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상업적 암시들은, 바울이 예상되 는 경제적 장애물과 자신의 요청을 충분히 허락하는 것을 앞지르는 어떤 방해도 막기 위하여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증의 정수로서의 역할을 한 다... . 개인적인 빛에 대한 언어도 빌레몬의 이야기 방향을 19절에서 절정에 오르도록 한다.” Clarice J. Martin, “The rhetorical function of commercial language in Paul’s letter to Philemon (verse 18),” Duane F. Watson ed., *Persuasive Artistry: Studies in New Testament Rhetoric in Honor of George A. Kennedy* (Sheffield: JSOT Press, 1991), 336-337.

이와 비슷한 내용을 상기했었을 것임이 확실하다(골 1:3-4):

³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었.

비슷한 방식으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선을 충만히 알게 하도록” 빌레몬을 인도하시리라고 기도할 때에(6절), 이 기도의 영역은 골로새서 (1:9-10)의 상응하는 구절에 의하여 더 풍성해졌을 것이다:

…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¹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암송할 만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으로 말한다면,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보다 더 좋은 요약은 없을 것이다(1:13-23상, 2:9-15):

^{1:13}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¹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¹⁵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¹⁶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¹⁷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¹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¹⁹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²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³³⁾

33) 아마도 빌레몬서를 위하여 추가적인 본문간 적용을 가져온 이 기독교적 요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윤리적 암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와의 위기와 관련하여 빌레몬에게 네 가지 요구를 한다(17-22절: “[그를] 환영하라” … “[나에게] 청구하라” …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 …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네 가지 행동 모두가 “마음에 있는 오네시모의 빛을 위한 바울의 지불 계획과 교환될 수 있다… . 바울은 빌레몬에게 강조된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반면, 교환의 아이디어와 묶여져 있는 각 요구사항은 바울의 기독교론을 예시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다… (골 1:18-20).” Robert W. Wall, *Colossians and Philemon*, 213.

²¹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²²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²³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¹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¹¹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¹²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¹³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¹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¹⁵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적인 측면에 관하여는, 종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과 불화한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윤리적, 교회적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러 중심 구절들이 골로새서에 있다. 첫째로, 그들 각자와 주와의 관계에서 상호적인 책임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가 기록되어있다:

^{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²³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²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3)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²⁵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둘째로, 골로새서 3:12-15절에 나오는 바울의 포괄적인 경고에 비취볼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영접해야하는” 방식이 분명해지고(몬 17), 바울이 요청하는(몬 20) 다소 애매한 “기쁨(혜택)”이 해명된다: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¹³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¹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¹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서 저자들이 자신의 담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담화의 의도된 해석의 방향을 지도하는 수단으로써 빈번히 사용하는,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예술적 방법론이 있다. 이 방법은, 내용, 의도, 감정, 태도, 그리고 심미적 가치와 연관된 다양하고 미묘한 효과들을 창조해내기 위하여, 작문의 구두-청각적 (*oral-aural*) 차원에 적용되는 어떤 장치들-두운법, 유운법, 리듬, 각운법, 말 재롱 등과 같은 특성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음운론적 상승효과 (*phonological enhancement*)는 실제 청중에게 특별히 중요한데, 고대에도 문학작품은 종종 떨어져 있는 독자라도 크게 소리 내어 읽곤 하였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성서 전반을 통하여 원문이 결국에는 공중 앞에서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증거들이 풍성하다.³⁴⁾ 다른 말로 하면, 저자는, 어떤 장르이든, 그것이 큰 소리로 읽혀질 수도 있게-여러 필수적인 측면으로 의사소통 되도록 메시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자신의 작문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면, 주요 주제 혹은 이야기의 극적인 부분들의 특정 측면들을 장식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담화 구조 내에서 두드러진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리고 본문 전체를 좀 더 쉽게 기억하고 또 기억할 만하게 만들기 위하여, 음성효과(소리)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빌레몬서에서 이러한 예술적 장치의 가장 분명한 예는, 바울이 자신의 호소에서 마침내 인간적인 목적을 소개하는 데까지 미쳤을 때-그는 즉시 주제적으로 기반을 두면서 이름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재담(동음이의의 익살)을 형성한다: “오네시모”-“유익한, 쓸모 있는”(형용사 *ὀνήσιμος*로부터), 이전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ἄχρηστον*), 이제는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그의 주인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도, 가장 “유익한” (*εὐχρηστον*) 사람(10하-11절)이 되었다.³⁵⁾ 이 재담의 효과는 “그리스도(*Χριστός*)” 호칭의 어근인 *χρηστος*와의 유사성 때문에 더 강화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세 단어 각각이 완전한 문장론적 구성요소의 끝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음운론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용법의 희미한 반향이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호소를

34) “그리스어 단어 *ἐπιστολή*(“서신”)는 원래 전달자에 의하여 보내진 구두 의사소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Herodotus 4.10.1; Thucydides 7.11.1)” David E. Aune, *The New Testament in its Literary Environment*, 158.

35) “이 두 단어는 고대 도덕문학에서 자주 대조되는 단어이고 전형적으로 사람의 일의 특성보다는 그의 성품을 지칭한다” Robert W. Wall, *Colossians and Philemon*, 206.

마무리하고 주 안에 있는 자기 형제에게 특별한 “기쁨(유익)”(*ὀναίμην*)을 요청할 때에(20절), 서신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단락 1.3에 그리스어 본문을 배열하여 예시한 것처럼, 전 담화가 상대적으로 짧고 율동적인 운율이 있는 “언사의 단위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 각각은 추정되는 “말 길이”(speech span)를 나타낸다. 즉, 한 번 숨을 쉬고 나올 수 있는 발성의 의미 있는 길이이다.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종종 좀더 예술적으로 구성된 구절들이 드러난다. 바울의 중보기도의 감동적인 구성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만났다(15-16):

τάχα γὰρ διὰ τοῦτο ἐχωρίσθη	아마 그가 떠나게 된 것은
πρὸς ὥραν,	잠시
ἵνα αἰώνιον	영원히
αὐτὸν ἀπέχης,	그를 너로 하여금 두게 함이리니
οὐκέτι ὡς δοῦλον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ἀλλ' ὑπὲρ δοῦλον,	종 이상으로
ἀδελφὸν ἀγαπητόν,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μάλιστα ἐμοί,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든
πόσω δὲ μᾶλλον σοὶ	하물며 네게라
καὶ ἐν σαρκὶ	육신과
καὶ ἐν κυρίῳ	주 안에서 상관된

이 설득적인 논의의 대조적인 성격은 주의 깊게 배치된 문장론에 의하여 강화된다-처음에는 중간을 강조하는 교차 대구구조가(15절), 그 다음은 각 단위의 끝에서 절정에 이르는 이중 층층단으로 된 모형이(16절) 배치된다. 16절(15하절과 겹쳐서)의 코가 짙한 정점은 그리스어에서는 작은 리듬 구 구성으로(위의 밑줄 친 부분) 증대되었고, 두음법과 유음법이 동반되었는데, 이것은 저자의 관심에 대한 어문적 스포트라이트를 참여자들에게 직사각형으로 비추는 역할을 한다: 즉, “그”(오네시모), “나”(바울), “너”(빌레몬), 그리고 “주”(비교. 평행구인 20상과 21하반절에서 나오는 흡사한 사람과 음성의 병치).

그러므로 이같이 분명한 음운론적 고양의 잠재적 영향력은, 최소한 이를 복사하고자 시도하는 현대의 성서 번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국어(自國語) 본문은 가장 빈번하게 공중 앞에서 구두로 읽혀짐으로 전달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음성의 측면이외에 인쇄된 지면의 글의 가시적인 배열에도 동등한 고려를 해야 한다-특별히, 인쇄의 체재(體裁)(글자 체, 활자선의 굵기, 모양; 행간을 고르게 하지 않거나 하이픈으로 연결하

기), 공간의 활용(예를 들면, 들여 쓰기, 행간 간격), 그리고 담화에서 모형, 문단 나누기, 잇기, 대응부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포맷을 조작하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 잘 읽기 쉽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이런 중요한 가시적 측면들은 위에서 배열한 많은 문단들에서 예시되었다.

2.2.5. 수사학적 모양내기

위의 장르 선정에 관한 단락에서(1.4.1), 빌레몬서는, 모든 고대근동의 서신들과 같이 기본적인 삼분적 담화구조를 반영하는, “추천서”로 분류되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탁월한 문학 작품은 보통은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즉, 스타일과 구조의 두 측면에서 모두 호소력이 있는 방법으로-뿐만 아니라 그 의도된 독자들이 그 메시지를 그 주제와/혹은 도덕적 의무들의 관점에서 받아들일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배열된다.³⁶⁾ 이 세 가지 기능들-정보적(*informative*), 예술적(*artistic*), 그리고 수사학적(*rhetorical*)-은 서로 구별되지만, 대부분의 성서 문학에서 긴밀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본 단락에서 필자는, 이 서신이 모양을 갖추게 한 전문가의 방식에 대해 좀 더 예민한 견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적 호소의 주요한 구조적 측면 몇몇을 살펴볼 것이다. 이 서신의 설득력과 영향력은, 상호적 섬김, 동반자 의식, 빚 짐, 그리고 사랑(애정)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적실성을 지녀야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오늘날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미 요약하여 언급한 서신적 형태이상으로 구조의 또 다른 양태에 주의해야 하는가? 대답으로 온(Aune)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⁷⁾:

고대 사회에서 서신 형태는 꽤 융통성을 보여준다. 기록된 본문의 어떤 유형이건 거의 서신 형태로 개인들이나 무리들에게 보내졌다... . 그러므로 서신은 구두 의사전달의 대응품이었고 여러 면에서 거의 연설과 같은 기능을 하였다... . 주전 1세기경에는, 특별히 식자층에서, 수사학이 서신 작문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들의 서신은 의사전달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설득의 세련된 도구와 문학적 솜씨를 보여주는 매체의 역할도 하였다.

연설을 구성하는 한 가지 표준 형식, 혹은 서신의 논조는 본체 안에 네 가지 주

36) 다른 이들도 있지만 벳첼(Burtchaell)은 빌레몬서를 “그리스 설득의 걸작품”이라고 여긴다 James T. Burtchaell, *Philemon's Problem: A Theology of Grace*, 17.

37) David E. Aune, *The New Testament in its Literary Environment*, 158, 160.

요 구분을 두는 것이 특징이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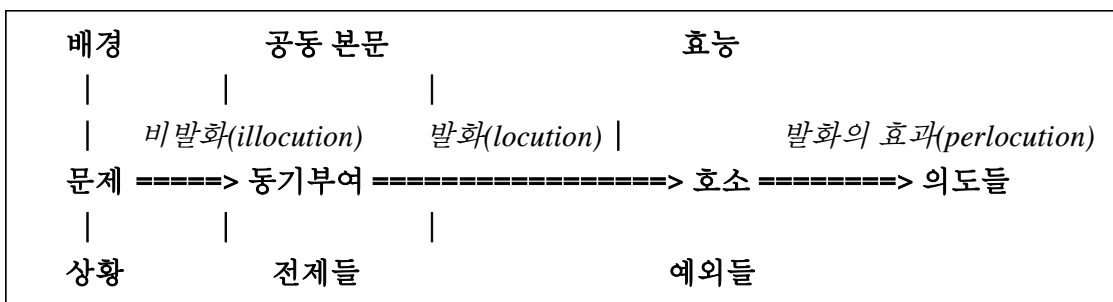
- **서론[exordium]**: 저자가 당면한 주제나 권고를 위하여 자신의 수신인들의 호의(*ethos*)를 이끌어내고 개념적이며 감동적으로 기초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담화의 시작(몬 4-7).
- **명제[narratio, propositio]**: 중심주제, 논제, 견해, 요청, 혹은 호소(신조 혹은 행위에 관한)와 이 제안에 대한 이유를 현재의 의사소통 배경 안에서 명확하게 요약 진술하기(*logos*)(10…[13]…17-18절).
- **상술[probatio, exhortatio, refutatio]**: 명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논의의 주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이것은 논리적(연역적) 생략삼단논법 혹은 평범한(귀납적) 예, 인용, 격언, 일화, 유비, 대조, 권위에 대한 호소, 등등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종종 개인적인 탄원과 경고 혹은 사안의 반대입장에서의 날카로운 논박 등이 병행된다(8, 10-16, 18-19절).
- **결론[peroratio]**: 중심 사안(들)에 대한 강화된 요약 혹은 되풀이된 요약과 동감하는 반응(*pathos*)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마지막 노력, 즉 저자와 그의 표현된 명제의 관점에서 수신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그 감정을 사로잡고자 하는 노력(20-22절).

중간의 두 구성요소들이 사도의 통찰력 있는 변론 전략의 일부로써 본문의 형

38) 필자가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장 근접하게, 대응되는 라틴어 (하부)명칭들을 괄호 속에 넣었다. 이러한 수사학적 단계, 범주, 심지어는 전체적인 구조조차도 완전하게 의견일치를 보는 두 명의 현대 학자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은, 이 주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배경적 독서의 관점에서, 필자가 인용된 자료들을 종합한 것이다. 우리는 빌레몬서가 일차적으로는 심의적 수사학의 예라는 것을 상기한다. 즉, 정략적이거나 모험적인 것에 관하여 긍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혹은 행하도록 청중을 확신시키는 것에 강조를 둔 수사학이다. 또한 서신적 형태 자체처럼(위에서 논의된 대로), 논지의 수사학적 구성은 그 구조와 내용의 관점에서 결코 속박물은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해야만 한다. 창조적인 저자(화자)는 종종 표준이 되는 형식들과 틀에 박힌 주제들을 자신의 탁월한 의사소통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원용하거나 정교하게 만든다. 이러한 탄력성의 예 중에서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로마인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기록하여 보낸 다양한 서신들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비교. David E. Aune,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and Rhetoric* (Louisville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354-355; Gerald F. Hawthorne and Ralph P. Martin,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823; Burton L. Mack, *Rhetoric and the New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41-42; Clarice J. Martin, “The rhetorical function of commercial language in Paul’s letter to Philemon (verse 18),” Duane F. Watson, ed., *Persuasive Artistry: Studies in New Testament Rhetoric in honor of George A. Kennedy* (Sheffield: JSOT Press, 1991), 323-326; Richard R. Melick Jr.,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1991), 340-341.

성에서 어떻게 서로 섞여 짜여졌는가를 살펴보라. 필자는 또한 밑에 있는 바울의 명백한 요청은, 즉 “명제”를 구성하는 부분(10, 17-18절),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요소라고 제안한다. 빌레몬서에서 이러한 네 가지 주요 수사학적 움직임의 특별한 측면들에 대하여는 나중에 제시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필자는 고대의 문학 실천가들이 손에 잡을 수 있었던 문체적 기술의 다양한 포진이 가능했다는 것만을 언급한다. 이것들이, 오네시모를 대신하는 중재편지로서 비록 짧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바울서신의 작문 발전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어떤 문학적 담화의 수사학적 차원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 이외의 배경(*extralinguistic background*)을 조심스럽게 조사해야한다-이 경우에는, 원래의 고대근동 환경 하에서 본문의 사회학적, 문학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을 의미한다. 이런 특성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필자는 단지 이러한 맥락 연구가 단일한 분석 틀의 범위 내에서 본문 연구 및 공동-본문 연구와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는지를 제안만 할 것이다.³⁹⁾ 이 같은 “논쟁-구조 분석”은 히브리 예언서와 사도들의 서신에서 발견되는 주로 권고(*paraenetic*, 권면-경고-위협적) 본문을 다룰 때 특별히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 분석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문적, 대인관계적,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논쟁의 공식적 제시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적 그리고 화용론적 주요 요소들은-어떤 사람을 위하여 호소하는 “연설 행위” 전체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와 또 다른 요소들-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아래와 같이 진열될 수 있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권면 담화의 열 가지 측면이 연설(그리고 “본문”)행위의 광의적 화용론의 틀 안에서 통합된 의사소통 체계로 작동한다.⁴⁰⁾ 여기서 언어

39) 다음 논의는,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의 단락 6.2.5에서 약간 인용하여 빌려온 것이다.

40) 바울 서신 분석에 “연설-행위” 접근법을 적용하는 적절성은 다음과 같은 관찰에 의하여 지지를

행위란 단어들이(구두로 혹은 기록된 것으로) 명백히 말하는 것과 구별되게 그것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면 언어 행위는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연합된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발화(illocution), 즉 뒤에 숨은 발언 의도, 발화(locution), 즉 주어진 언어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어문적 표현, 그리고 발화의 효과(perlocution), 즉 어떤 언어 행위의 바라던 결과 혹은 효과를 말한다. 더 큰 논쟁구조(argument structure)는 간단히 신약의 서신 담화로 보통 정의 내릴 수 있고, 바울의 빌레몬서를 특별히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본문은 괄호 속에 표기했다):

- **배경** — 기록된 의사소통 행위가 발생한 전반적인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저자와 그의 수신자/청자, 이 둘 모두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아마 그의 빌레몬서를 로마의 감옥에서(혹은 가택연금동안) 1세기 후반부 초기에 기록하였을 것이다(1절). 빌레몬은 분명히 소아시아의 번창하는 로마 식민지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콜로새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인 그리스도인이었다(2절). 빌레몬은 수년 전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사역을 통하여 회심하였다(19절). 이때는 상업 노예와 가정 노예제도가 널리 실행되고 또한 중요한 경제적 제도로 인정되던 시대였다. 또한 많은 노예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대두되었다: 그들의 영적인 지위의 변화가 성도들의 공동체 내에서의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문제** — 저자가 자신의 본문의 전체 혹은 일부에서 토론하거나 다루기 원하는 특별한 영적 혹은 도덕적 결여, 결함, 실수, 필요, 시험, 혹은 시련 등을 말한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사이가 떨어진 종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하거나 두 사람을 함께 데려오는 기회를 갖지 않고도, 어떻게 화해시킬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네시모가 콜로새로부터 도망 나온 것이나 분명해 보이는 그의 도적질(18절)은 서신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음을 주의해보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하다. 이것은 바울의 토론전략의 핵심부분일 수도 있다—즉, 사도는, 모든 “빛”을 완전히 용서해주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라고 넌지시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 편에서의 어떤 잘못도 암시하지 않

받는다: “바울의 입재에 대한 대응으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신들은 적절한 ‘대리인’같은 매개수단이 되는데,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회중들에게 연설을 할 수 있었다” Clarice J. Martin, “The Rhetorical Function of Commercial Language in Paul’s Letter to Philemon (verse 18),” 324-325.

는 침묵의 수사학을 구사하고 있다.

- **정황** —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격화시키는 인간사,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다; 관련된 한쪽 당사자이상으로부터 어문 반응을 요구하는 일련의 상황(“수사학적 긴박성”)이다. 노예일과 봉사로부터 도망함으로써, 오네시모는 중대한 재정적 범죄를 저질렀다. 만약 알려져서 잡혔다면, 그는 감옥에 가고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오네시모는 어찌되었든 로마에서 바울과 가깝게 접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10절). 아마도, 그가 행했던 일을 후회하고, 개인적으로 그의 주인 빌레몬의 가까운 친구인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을 기억하고, 오네시모는 중재자로 모시려고 실제로 사도를 찾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는 확실히 수치스러운 정치범 한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11절).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중재편지를 가진 사도의 개인 밀사로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려 한다(비교. 골 4:8-9).
- **호소** — 어떤 사고방식과/혹은 행동을 성서적 가르침과 그것과 연관된 기록한 삶의 방식을 증진시키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특별한 권면, 명령, 훈계, 책망, 혹은 경고 등을 가리킨다. 이 서신에서 두 가지 명백히 연관된 요청을 하는데, 둘 다 어떤 용서의 행동을 포함한다: 첫째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즉, 용서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를 그리스도인 형제(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 17절)로 돌려보내고 있다; 둘째는,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어떤 빛(흠치거나 못 다한 노동)도 바울의 계좌로 청구하라는 것이다(18절). 첫 번째 호소는 연합된 일련의 행동을 포함한다. 즉,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개인적으로나 공공법체계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라도 별해서는 안된다. 바울의 두 번째 청원은 한두 가지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한다.⁴¹⁾ 되 갚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자만이 용서받을

41) 여러 추가적인 고대근동의 사회학적 사실들이 여기서 적실성이 있다: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의 문화에서 중요하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나이에 호소한다(9절)… . 바울의 청원의 주안점(10절)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은인의 아들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 노예들은 가끔 해방되어서 어떤 신의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13절]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의 봉사를 위하여 자유를 주라고 요청한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빌레몬의 명예와 친구로써 호소한다… . 로마법은 노예들을 사람인 동시에 소유물로 보았다; 그러나 온전한 형제[16절]은 자연히 소유물로 보아서 안 된다… .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하면, 친구들은 호의를 갚아야 한다는[19절] 상호적인 의무에 묶여 있었다” (Craig S. Keener, *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New Testament* (Downers Grove: InterVarsity, 1993), 645-646 구절은 괄호 속에 표기했다).

수 있다.

- **의도** — 저자가 갈망하는 결과들을, 수신자(들)가 그 호소를 온전히 따른다면 곧 실제화 될 것이 기대되는 새롭고 강화된 생각과 행동의 관점에서, 요약하는 것이다. 오네시모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탄원의 결과로 바울은 빌레몬이 이 문제에 관하여 “내가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행할 것을” 바란다(21절). 여기서 주요한 의향(혹은 암시, 본문을 그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고려하기)은 빌레몬이 바울이 표면적으로 요청한 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20절)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을 할 정도로 행간을 읽는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과하지 않거나 최소한 논증의 여지는 있다. 이 의향은 의심할 여지없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가 로마에 바울의 선교사역의 “동반자”로(빌레몬의 대리) 돌아와 용서의 능력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으로서 있는 것이다(13, 17, 20-21).⁴²⁾ 이 바울의 암시적이며 개인적인 목표가 적용가능한지 아닌지, 즉 이 주인과 종간의 위기의 잠재적 영향력과 그 결과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참으로 지대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가정교회의 시험 사례였다. 만약 이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이 자신의 잘못된 노예를 향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 회중 가운데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몸의 연합을 견고히 하며 다른 그리스도인 노예 소유자들에게 본을 보이게 될 것이다(5-7).
- **효능** — 본문의 주요한 호소력과 지지하는 동기부여(들)가 표현되는, 언어학적이고 감동적인 능력의 상대적 등급(예를 들면, 직접성, 긴급성, 그리고 권위의 명백한 수준) 혹은 논의가 숨어서 진행되거나 명백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나타나는 완화와 에두름의 상대적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암시적 요청이 최대의 완화를 전달하는 반면에, 명령형 동사는 최소량의 어문적 완화를 보여줄 것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자신의 다면적 청원을 발전시킨 때, 그의 접근법은 매우 낮은 어조이다. 그는 오네시모의 사회적 법적 곤경과 연관되어 어떤 직접적인 명령도 발하지 않는다(8절). 비록 바울이 상이한 방법으로 자신의 특별한 개인적 요청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오네시모를 놓아주어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에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도 명하지 않는다. 전체 논의의 의향은 치밀한 암시에 의하여 발전되고, 주로 한편으로

42) “‘노예해방’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입술에서 떨리고 있는 듯하나, 그는 그 말을 발설하지는 않는다”-J. B. Lightfoot (Murray J. Harris, *Colossians & Philemon*, Exegetical Guide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1), 278 에 인용됨).

바울의 빌레몬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5, 7, 9). 다른 한편으론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존재하는 묶는 끝에(3, 5, 16, 20, 23-25)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더 큰 교제권의 공동선을 위하여 형제애적인 설득에 목표를 두고 능란하게 구성된 심의적 담화이다.

- **예외** — 중심 호소 혹은 명령에 대한 잠재적 반대들을 포함한다. 예외들은 대조, 정반대, 반대-경우, 반대 증거, 혹은 가정적 반박 등에 의하여 전달된다. 이것들은 보통 저자에 의하여 예상되고, 공공연하게 혹은 간접적으로-이것들에 너무 주의를 끄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담화에서 다루어진다. 예외들은 진술되기보다는 종종 암시되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그것들을 가정하는 것은 임시적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는 그의 청원의 일부로서, 노예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제안함으로써 그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훔쳐버린 기회를 대면한다(18-19상반절). 오네시모를 해방시키는 것이 빌레몬에게 의미하게 될 상당한 재정적 손실은, 바울이 빌레몬을 영적으로 해방시킴으로써 그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부드럽게 다루어진다(19하반절). 빌레몬이 묵인한다면 세속사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상당한 “수치”와 함께) 받을 지도 모를, 이 예민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있을 지도 모를 빌레몬의 더듬, 마지못해 함, 혹은 거절까지도 예상하면서, 바울은 가까운 장래에 빌레몬을 방문할 약속으로 못을 박는다(22절). 그때에는 바울이 몸소 이 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볼 수 있고, 또한 그 사안에 대한 현저한 관심을 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바울의 은밀한 동기부여의 전략과 병합된다(아래를 보라).
- **동기부여** — 저자의 호소(들)를 지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논증의 다양한 유형들을 상술한다. 이것들은 연역적(예를 들면, 원인-결과, 일반적-특수적,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이거나 귀납적(예를 들면, 증명, 격언, 삼단논법, 예, 유비, 사례연구)일 수 있다. 논증의 두 가지 종류는 모두 내용(로고스), 감정(파토스), 그리고/혹은 화자의 인격적인 진실성, 신뢰성, 그리고 권위(에토스)와 관련이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빌레몬서는, 인사로부터 작별인사까지, 본문 전체를 통해 펼쳐져 있는 다양한 효능과 상호 연결된, 동기부여들의 끈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체로 암시적이고 끈덕진 간청으로 이루어진, 이 반(半)-서사(semi-narrative)의 줄거리는 점진적으로 21하반절의 절정을 향하여 구축된다. 주요 요소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는 따라야 할 뛰어난 귀감으로 서있다(5-6절). =>
 -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행실은, 그리스도의 나라 일의 사랑스러운 동역자인,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다(1하, 7, 17절). =>
 - 사도 바울은 그의 영예로운 동역자 빌레몬(1절)에게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한다고(8절)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14절). =>
 - 바울은 최근에 비참하고 억압받는 상황에 살고 있다(9절). =>
 - 이전에 “무익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같은 신자가 되어서 간혀있는 사도에게 가장 “유익하고” 또한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11-12절). =>
 - 바울은 오네시모를 로마의 그의 곁에 두어서 복음 사역을 돕게 하고 싶다(13절). =>
 -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대신하여 바울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16절). =>
 - 빌레몬은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바울에게 빛을 지고 있다(19절). =>
 - 바울은 실제로 몇몇 예외적인 개인적 “지원함”을 빌레몬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20절). =>
 - 바울은 자기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예를 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하는 것)을 “빌레몬이 “순종하고” 또한 그 이상으로” 행할 것-즉, 오네시모를 복음사역을 위하여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아주 확신한다(21절)(이것이 바울의 동기부여 방침의 최고조에 달하는 절정이다). =>
 - 바울은 빌레몬을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여 오네시모의 일을 몸소 매듭지을 것이다. 아마도 그를 개인적인 조력자로 받아들일 것이다(22상반절)(이것이 하나의 가능한 대단원이다). =>
 - 궁극적으로 예상했던 결과: 바울의 기도와 빌레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만나게 것이고(22하반절), 사도는 다시 한번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역자가 보여주는 형제애적인 “사랑”에 의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1하, 5-7절).
- **공동 본문** — 연구하고 있는 본문과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본문을, 통합적으로(syntagmatically=intratextually[내부 본문적으로], 동일 문서의 한 부분으로써)나 예증적으로(paradigmatically=intertextually[간-본문적으로], 다른 문서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담화-구두로든 기록으로든) 확인하는 것이다. 빌레몬서는 짧은 문서이기 때문

에, 내부 본문적인 영향은 대부분 반복물과 담화의 한계를 정하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 유형들이다(비교. 2.2.3). 외부 원천으로서, 최대의 영향은, 거의 동시에 기록되고 보내진, 바울의 골로새서로부터이다(골 4:7-9). 사도가 안부를 전하는 이들의 동일한 이름들 외에(골 1:1-2; 4:10-14; 몬 1-2, 23-24를 보라), 몇몇 중요한 주제적 유사성들이 있다: 수신자들의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분명한 표명에 대한 칭찬(골 1:4; 몬 5); 신자들에게 서로를 용서하라는 요청(골 3:13하; 몬 17); 그리고 교회 내에서 영적인 연합을 증진시키는 성품들을 보이라고 강하게 호소함(골 3:12-17; 몬 6, 15-17) 등이다. 이 두 서신간의 개념적 연결점을 만드는 간-본문성의 다른 예들은 전에 살펴보았던 몇몇 주요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전제들이다(아래의 “전제들”을 보시오). 이외에, 빌레몬서에서의 바울의 권면과 그의 다른 서신들 간의 어휘적 평행구들이 여럿 있다(예를 들면, 엡 4:2-3, 12-13, 16, 32; 6:9).

- **전제들** — 저자가 그의 독자들과 공유하는 다양한 생각, 가치, 태도, 그리고 느낌 등을 가리킨다. 저자는, 자기 자신이 전제로 삼는 관점(넓은 의미의 세계관을 포함하여)이 자신의 청중에 의하여 이해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주어진 본문에 적실성의 화용론적 원칙에 따라 적용하리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그들이 지식을 공유할 때, 비록 그것이 특별한 효과를 위하여 진술되었다 하더라도(예를 들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다고 19 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상기시키는 것), 그것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다. 몇몇 다른 주요한 전제들이 빌레몬서의 논지 밑에 깔려있다. 초대 기독교에서, 노예제도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 개선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다(방어하거나 지지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된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연합과 종교적인 교제로서의 교회에게는 필수적이었다(1-3, 23-25). 그래서 사역에서의 동반자의식의 표시는 그들이 살아남고 발전하는데 치명적으로 중요하였다(6, 13, 17). 빌레몬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21절); 더욱이 그는 자신이 오네시모의 잠정적 언도를 감할 수 있는 법적인 힘과 부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8절). 이 서신이 보내진(2, 25절), 골로새의 회중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한다고 한, 바울의 호소를 지지할 것이다. 바울은 곧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최선을 다하여 지킬 것이다-그때까지 오네시모의 건이 만족스럽게 해결이 안 되면 그 건을 해결하기 위하여(22절). 바울에

의하여 신자가 되고 그의 사랑스런 제자가 된(10절),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면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지만, 그의 주인에게 돌아감으로써 개인적으로 자신의 회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빌레몬에 의하여 긍정적인 결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다(1, 16절).

이런 가설적인 시나리오를 읽을 때, 바울이 빌레몬(일차적으로, 또한 그의 집에 서 모이고 있는 그리스도인 회중과는 이차적으로)과의 담화를 발전시키면서, 고대 수사학 교사들이 규정해 놓은 기초적인 동기 세 가지를 통합하고 있음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 세 가지는 관계를 확립하고(에토스), 생각을 확신시키고(로고스),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다(파토스). 이러한 어문적 전술은 의심할 여지없이 바울의 의도된 청중들 대부분에게는 익숙하였을 것이고, 현대어법으로 말한다면, 의사소통의 “관계적”(relational)(혹은 “교감적”), “정보적”(informative), 그리고 “정서적”(affective)(감동적인, 강제적인) 기능들과 일치한다.⁴³⁾ 이 세 가지 유형은 바울의 관점으로 치밀하게 조절되어서 그의 응용된 설득 전략으로 본문 전반에 걸쳐서 서로 짜여져 있다. 예를 들면, 이것들이 때로는 약속과 청원이 병치된 19-20절 같은 매우 짧은 구절의 영역 내로 모아지고 있다:⁴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 (수행적)

- 43) 이러한 넓은 수사학적 동기들은 본문 내에서 특정한 문체적 장치들과 설득 기술들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다. 예를 들면, 1-2절과 23-24절에서 개인들을 언급함으로써 지지하는 증인들을 간접적으로 소환하기; 빌레몬에게 마땅히 할 일을 명할 수 있는 능력 같은, 자신의 권리 혹은 권위를 방어적으로 스스로 폐기하기(8절); 감정적으로 충전된 개인적인 용어 사용(예를 들면, “간헐자”-1, 9절; “나이 많은 사람”-9절; “낡은”-10절; “간헐 중에”-10절; “동무”-17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호소함(불변화사로 제안된, “아마도”[*τάχα*]), 즉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셔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잠간의 이별”을 그들의 “영원한” 유익으로 바꾸시는 사역(15절);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 하물며 네게랴” -칼 베호멜(*qal wehomer*), 즉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진행되는 랍비적 수사학 장치(16절); 바라는 행동에 관한 대리적인 유비-“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17절); 문제와 반대에 대한 “예상”(18절); 삼입어구/생략(19상반절); “말하지 아니 하노라”하고 바로 말하기(*παράλειψις*, 29하반절);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나 일차적인 요청은 숨긴 채 수신자(들)이 알아내도록 남겨두기(21절);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실제로 명령하지 않고 수신자의 “순종”에 자신을 헌신하기(21상반절); (21하반절); “말보다 더”조차도 계산하고 삼가서 말하는 것이다(21하반절); 저자/화자가 추가표현을 첨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나온 논의와 연결되어있는, “한 가지만 더”라고 추가하기(2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기가 갚겠다는 바울의 “상징적 제의”(19절-이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그가 이 제의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못했을 것이다).
- 44) 독특한 “관점”을 본문에 적용하는 중심 되는 문학적 기술의 관점에 관하여, 바클레이(*Barclay*)는 “바울 서신의 중심 측면은, 자신의 호소에 가장 잘 맞는 관점과 순서로 등장인물과 사건을 그려내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진술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한다. *John M. G. Barclay, Colossians and Philemon, New Testament Guid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03.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빛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정보적)

오 형제여, (관계적)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명령적)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감정적)

바울의 논의가 펼쳐지는 발전과정의 이 절정 단계에서 “마음”(문자적으로, ‘창자들’ *σπλάγγχνα*)에 대한 언급이 그의 요청의 주요 대상-오네시모 자신(비교. 12절)-에 대한 가려진 언급이라고 보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암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쥐서 바울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⁴⁵⁾

개념의 좀 더 추상적인 단계에서, 설득적인 담화의 수사학적인 조직은, 능력과/혹은 결속력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인간관계적 거시 기능들이 본문 안에 실현되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좀더 분석될 수 있다. 전자,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직적 차원은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통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후자, 즉 수평적 차원은 둘 이상의 개인과 그룹 간에 감정적으로 밀착된 끈을 창조하고자 하는 갈망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을 작성할 때에, 그는-자신의 말하지 않은 소원 뿐만 아니라 분명한 소원까지도 최대의 영향력과 분명한 가치를 지닌 채 그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한 박자 한 박자를 능숙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가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암시하지만, 그는 이 권위를 고압적으로나 우격다짐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이와 반대로, 바울은 신사적이고 억제된 접근을 시행한다. 즉 자신의 최고의 갈망은 부분적으로, 하지만 전적으로 감추지는 않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인 빌레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 사역을 위한 공동관심사 속에서 조화, 형제애, 그리고 동반자관계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증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위에서 예를 든 대로(19-20 절),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숨씨 좋게 오네시모의 빛을 “갸졌다”는 약속을 하는 복종의 표현(연대책임)에서(첫째 줄), 자기가 빌레몬을 회심으로 이끌었던 것을 날카롭게 기억하게 하는 능력의 행사로(둘째 줄), 또 다시 “형제”-애라는 표현으로 돌아와서는(셋째

45)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간의 관계에 자신을 끼워 넣는 바로 그 지점에서(서신에서), 이 전략은 17절의 직접적인 호소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 여기에 바울의 전략의 핵심이 있다: 자신을 오네시모와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빌레몬은 돌아오는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 자신인 것처럼 여겨야만 한다[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 그래서 돌아오는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의 눈에는 전적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John M. G. Barclay, *Colossians and Philemon*, 108. 가장 “유익한” 하게 된 사람(11절)으로, “주 안에서 형제”(16절)로, 바울과 또한 빌레몬에게 큰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을 함께 묶어주는 신앙의 함축적 연대책임에 대한 호소로 마무리하는지를(다섯째 줄), 볼 수 있다.

일차적인 수사학적-논의 방향은, [문제 + 동기부여 → 호소]의 원인-결과 순으로 된 삼 원소들과 이것들의 다양한 본문 확장이나 변형들을 포함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의 권유적 담화의 필수적인 중추를 구성한다. 이 담화는 특성상 좀더 세분화되어 위협적인, 경고성의, 위로성의, 조언의, 동기부여의, 영감을 주는 것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주변의 상황적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고 적실성이 있는 가정, 전제, 암시, 함축, 그리고 다른 맥락화 하는 배경 정보의 관점에서, 중심의 호소에 실질적인 내용을 공급한다. 번역자들은, 성서의 권면 본문을 의미 있고 감동 있게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본문을 분석할 때, 이러한 서로 작용하는 열 가지의 변수들을 마음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배경, 상황, 혹은 가정 등에 관한 많은 관련 자료는 난외주나 해당 책, 장, 혹은 단락의 서론 부에 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담화의 기본 요점이 정확하게 개념화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자의 수사학적 표현 중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책략은 어딘가에-본문 내이나 주변의 본문에나-분명하게 진술되거나 암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번역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의사소통과정의 다소간 불충분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이다.

2.3. 문학적 방법론에 대한 요약 - 열 단계 연속과정

필자는 주어진 성서 본문에 대한 통합된 문학적 분석의 한 부분으로써 수행하고자하는 주요한 단계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단락을 맺으려고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이기에, 아래에 제안된 순서는 주제, 나오는 순서, 그리고/혹은 분석 목표 등에 따라서 쉽게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⁴⁶⁾

- 1 연구하고자 하는 성서의 책이나 단락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맥락)을 주의 깊게 조사하라.**
- 2 분석하고 있는 본문의 주변의 어문적 공동본문을 조사하고 지속성, 일**

46)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분석과정에서 완전한 담화분석(#7)을 더 빨리 수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열 단계는, 앞으로 나올 “준거 틀” 모델을 사용하는 성서 번역자들을 위한 훈련교본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의 빌레몬서에 적용되고 있다. T. Wilt & E. Wendland; 비교. Timothy L. Wilt, “A new framework for Bible translation,” ch. 2. 문학적 분석을 위한 이 열 단계 기본 과정과는 좀 상이한 공식에 관하여는,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7장을 보라.

치성, 그리고/혹은 대조의 지점들을 살펴라.

- 3 주요한 문학적 장르와 하부-장르를 그것들이 연합된 문체적 특징과 기능적 암시들과 함께 확인하라.
- 4 본문에서 모든 “나뉘는 지점”과 전이지점-즉, 형식, 내용, 혹은 기능상에서 한 가지 이상의 두드러진 전환들이 있는 분기 영역-을 살펴라.
- 5 형식적 혹은 개념적 반복(음운론적, 형태론적, 어휘적, 문장론적, 본문적)의 모든 예들을 기록하고, 그로 인하여 형성된 모형들을 살펴라.
- 6 주요한 예술적 장치와 수사학적 기술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본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결정하라.
- 7 전체 단락의 틀 안에서 모든 구성 구절의 상세한 담화분석을 행하라.⁴⁷⁾
- 8 모든 중심 용어, 개념, 이미지, 그리고 상징을 각각의 맥락적 배경에서 비교적인 (SL/TL) 연구를 하라.
- 9 본문 안에 스며들어온 두드러진 본문 내적 그리고 본문 외적 언급과 암시를 찾아라.
- 10 본문의 주된 의사소통적 기능을 확인하고, 직접적인 담화에서 그 일차적인 연설 행위를 그 상호 연관성과 함께 확인하라.

SL(source language, 원문) 문서에 관하여 앞에 나온 일련의 일반적인 석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문학적 번역을 할 때, 그 결과들을 적용할 좋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번역자는 원천 본문을 재고해보고, 이어지는 번역작업에 사용 가능한 모든 잠재적인 “[형식]-기능적 짝들”을 문학적 스타일과 구조의 관점에서 수집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⁴⁸⁾ 이 과정은 번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천 본문의 언어학적 형태들을 살펴볼 때조차도, 자신의 언어로 사고하도록(*think in*)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계는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 분리된 단계에서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가) 특별한 공동본문 내에서 원천언어의 문학적 형식과 그 전제된 의사소통 기능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나) 이와 상응하는 강조가 TL(target language, 번역문)에서 밀접한 문학적(연설적) 형식-기능 동등성을 발견하는 것에 주어져야 하는데, 특별히 특별한 문학 장르를 따른 중심 주

47) 이 방법론은 문학적 접근방식이 그 특색이지만, 언어학적 분석방법들도 분명히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연구과정에도 적용되는 특정한 문학적 방법들을 실체화해주기 때문이다.

48) 이런 중요한 실행은,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연속적으로 석의적-문학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수행될 수 있다. 형식-기능적 짝을 확인하는 과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하여, Lynell Zogbo and Ernst Wendland, *Hebrew poetry in the Bible: A Guide for Understanding and for Translating*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2000), ch. 4를 보라.

제적 용어와 표현의 영역이 부각되면 그러하다.

다음 단락에서 강조되겠지만,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번역은 전체적 장르 대 장르 이동이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표적언어 본문 내에서 다소간-즉, 적실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변형과정이 실행될 수도 있다.⁴⁹⁾ 이 같은 전략적 평가는, 이전에 결정된 사업명령(적요서, *Brief*), 특별히 그 일차적인 의사소통 목표(*σκοπός*, 꾀대)에 명시된 대로, 지역적 환경에 비추어서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더 논의될 것이다.

3. 번역에 대한 문학적 접근법을, 빌레몬서의 영어번역과 치체와(Chichewa)어 번역의 발취구절을 예시함으로써, 여타의 번역방법들과 비교하여 적용하기

본 단락은,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시각이 빌레몬서에서 발생하는 본문-비평적 그리고 번역상의 문제점들과 모호성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 예증해주는 여러 예들로 시작한다(3.1). 그 다음에는 성서 번역에 대한 “문학적 기능적-동등성”(LiFE) 접근법의 요약-즉, 그것이 무엇이며 다른 대중적인 방법론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이 따라온다(3.2). 그 다음에 이 “LiFE-식” 기술이 영어와 치체와어(Chichewa)(동-중앙 아프리카의 반투[Bantu]어) 번역본으로 제공되는 빌레몬서의 중심 “본체”에 적용되고 평가될 것이다(3.3).

3.1. 몇몇 해석학적 회색지대에 문학적인 빛을 비추기

누구나 성서의 어떤 부분을 번역할 수 있기 전에, 그는 먼저 그 본문이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빌레몬서에서 번역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본문비평적 문제는 약간 있고,⁵⁰⁾ 해석상의 더 중요한 어려움들은 많다. 다음에 나오는 주해들은 선택된 이 구절들에 존재하는 주요한 문제를 요약하고, 또한 문학적 관점이 어떤 경우에는(꼭 모든 경우가 아니라도) 해석자-번역자들이 명확하고 방어할만한 해결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증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임시적인 제안들도 제공한다.

49) 본문을 가공하는 “비용”에 대하여 인지적 “이득”을 저울질하면서; 비교. Ernst-August Gutt,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IL Inc., 1992), 24-25.

50) 이러한 본문비평적 사안에 대한 목록과 논의는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German Bible Society, 1994), 588-590을 보라.

- 몇 번역본(예를 들면, KJV)과, 비잔틴 본문, 그리고 대부분의 소문자사본에서는 압비아(2절)가, 명사 ἀδέλφη(“자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형용사 ἀγαπητή(“사랑을 받는”)의 수식을 받는다. 이 수식어에 대한 문학에 기반을 둔 이론적 근거는 이 경우에 순수한 본문비평적 접근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즉 앞서 나온 ἀγαπητῶ가 원문임을 확증한다.⁵¹⁾ 바울의 논의의 개인적인 측면이 빌레몬의 “사랑”의 성품을(예를 들면, 5, 7절) 강조해줘서 그가 나중에 이것을, 이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 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16 절), 자신의 호소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9절). 만약 이 용어가 본 서신에서 다른 이에게 적용된다면, 바울이 빌레몬의 태도 및 행실과 결합시키려는 사랑과의 강한 연결점은 약화될 것이다.
- 문자적 형태로는 모호하게 읽히는 5절에서 “믿음”과 함께 “사랑”을 말할 때, 이 성품(행동)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상당한 모호성이 있는데, 이것은 문학적 설명으로 가장 잘 해명될 수 있다.⁵²⁾ 바울은 이 문단에서 교차대구적 **A:B::B':A'** 구조를 도입하는데, 아마도 빌레몬의 경우에 이것은 모호한 골로새서 1:4절의 간본문적 평행구절과는 구별된다. 즉, 사랑 : 믿음 :: 주 예수 : 모든 성도의 구조가 된다. 다른 말로하면, 빌레몬의 사랑은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실행되고, 그의 믿음은 주 예수를 향한다.⁵³⁾ 이 예에서 문학적 간본문성(intertextuality)의 작동은,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 즉 빌레몬서 4절과 골로새서 1:3절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상응성 때문에, 더 쉽게 이루어진다. 실제로 또 다른 교차대구법이 이 동일한 두 중심 용어, “믿음”과 “사랑”이 각각 언급되면서, 빌레몬서 6절과 7절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주목하라. 전자는 또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후자는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
-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이후로는 TR)은 주목할 만한 본문적 지지와 함께 ἐν ἡμῖν(“우리 안에”)대신에 ἐν ὑμῖν(“너희 안에”)으로 읽는다(6 절). 전자가 “좀더 인상적”이며 “ὑμῖν으로 바뀌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좀더 쉬운지”⁵⁴⁾에 대하여 이해하기란 어렵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를 하는 서

51)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588.

52) 대안적인 이문들에 대하여는, John Banke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Philemon*, 18-19 와 J. Harold Greenlee, *An Exegetical Summary of Titus and Philemon* (Dallas: SIL, 1989), 120-121을 보라.

53) 해리스(Harris)는 이 구조가 다른 구조들보다는 선호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열거한다. Murray J. Harris, *Colossians & Philemon*, 250.

54) 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588.

신 전반에 걸쳐서 좀 더 개인적인 용어인 단수 “너”를 선호하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화(어)용론적-수사학적 사실이 좀더 그럴 듯하다. 그러면 유일한 예외는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즉, 공동의 복수 “너희”가 서두의 서신적 인사(3절)와 결론의 사도적 축도(25절)에 적합하다.

- 6 절의 ὁπως 구조는 “어쩌면 전 서신에서 분석하기 가장 어려운 구조이다”⁵⁵⁾이에 대한 한 가지(다른 것들 중에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 속격 구조 때문이다: “너의 믿음의 동반자 의식/교제”(ἡ κοινωνία τῆς πιστεώς σου). 그린리(Greenlee)는 이 어구에 대한 다섯 가지 상이한 해석을 열거하는데⁵⁶⁾, 의심할 여지없이 이보다 더 많다. 문학적 고려는 특별히 κοινωνία의 번역에 영향을 줄 텐데, 이는 이 용어가 본 서신의 주제적 핵심의 중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복음사역에 있어서의 “동반자의식”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한 것도(17, 21절). 그러므로 κοινωνία의 번역은 6절과 17절에서 자연스런 TL(표적 언어) 스타일에 맞춰서 이루어 져야 한다. 예를 들면, “너의 믿음에 의하여 형성된 동반자의식”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나눔”(NIV) 혹은 “교제”(GNB)와 같은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게 보인다.
- 7절을 시작하는 전치사 “for”(γάρ, 그리스어로는 접속사임)가 NIV, GNB, NRSB, REB, NJB 등과 같은 많은 현대영어 번역들에서 생략되었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문체적으로 정당화 될 수는 있지만, 이 서신적 단위(문다), 즉 4-6절 안에서 본 절과 앞선 절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분리를 만들어 낸다. 가능하다면, 그리스어에 있는 이 연결어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고, 이는 4절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에 대한 추가적 이유이거나, 6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근거를 가리킨다.⁵⁷⁾ “For”(왜냐하면)는 또한 연속과 연결을 표현하는 담화 표지로 사용된다⁵⁸⁾ 이 문단의 교차대구적 구조는 방금 전에 언급된 동기를 지지한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5절에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6절에서 “믿음”을 7절에서 “사랑”을 역순으로 말하면서, 각각의 개념을 더 상세하게 부연한다. 이러한 연결과/혹은 연속이라는 좀 더 큰 본문 기능을 전달하는 방법은 물론 염두에 두고 있는 TL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예를 들면, 영어로는, 강조어 “indeed”(참으로)가 이 역할을 할 것이다(히브리서 문학 구조에서 소

55) John Banke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Philemon*, 19.

56) J. Harold Greenlee, *An Exegetical Summary of Titus and Philemon*, 122.

57) Ibid., 124.

58) John Banke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Philemon*, 23.

위 “언명적[asseverative] 키”[כִּי]의 용례들과 유사하다).

- 사본적 증거는 9절의 *πρεσβύτης* “나이 많은 사람”을 지지하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코이네 그리스어에서는 종종 *πρεσβεύτης* “대사”-그들이 여기서 문맥에 맞는다고 느끼는 의미-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분명히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권력” 용어이다. 그러나 필자가 위에서 주장하였던 것처럼, 바울의 명백한 수사학적 전략은, 복음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빌레몬과의 “연대의식” 혹은 “동반자의식”에 호소하는 것에 보다 더 확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다(13, 17절). 따라서 그는, 바로 앞에서 진술한 대로(8-9절),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명령하기” 보다는 오히려 “간구 하는” 쪽을 택했다. 이것은 *πρεσβύτης*가 바울의 교회 안에서의 존경받는 위치와 역할(비교. 19절)에 대한 잠재적인 암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9절에서의 이 단어의 번역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현재 로마에 갇힌 자로 있는 상황에 대한 빌레몬의 동정심과 관심에 호소하는 그의 갈망을 반영해야 한다.
- 용인본문(TR) 전승은 그것을 기초로 한 번역본들과 함께 12절과 17절에 동사 *προσλαβοῦ* “영접하다/환영하다”를 포함시키고 있다. 실제로 12절에서 발견되는 본문적 어려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동사는 여러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세 군데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고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⁵⁹). 본문비평적 원리로 논쟁한다면, 이와 같이 중요한 명령이 어떻게 이 문단에서 생략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본 서신에서 바울의 전략적 방법의 일부로서 지연된 누설의 책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예를 들면,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을 11절 맨 끝으로 연기하기, 혹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에 대한 언급도 그의 절제된 논의의 마무리 부분까지 연기하기(19하반절) 등이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영접하라”는 곤란한 요청이 17절로 지연되어야만 하는 것이 수사학적 형식과 일치하고 또한 바울의 논의의 발전과도 적절히 어울린다 - 즉 그가 빌레몬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16절)라고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한 잠재적인 동역자로서 오네시모의 “유용성”에(13절) 대해 높이 평가하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전까지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 13 절에서 우리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의미론적 밀도”(semantic density)라고 칭한⁶⁰), 문학적 장치의 훌륭한 예를 만난다. 이는 그 본문 배경에서

59) John Banker, *Semantic structure analysis of Philemon*, 35.

60) Ernst R. Wendland, “What is truth? Semantic density and the language of the Johannine epist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2 John,” *Neotestamentica* 24:2 (1990), 301-333.

두(혹은 그 이상)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SL(원천 언어)의 중요한 어휘나 표현을 지칭한다. 이것은 (“모호성”[ambiguity]과는 상이한 개념으로서) 원저자가 실제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의도했던 것처럼 보이거나 최소한 그런 강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두 가지 의미가 그 지점의 담화내용에 타당하고 적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 중심 구절에서 바울은 ἐν τοῖς δεσμοῖς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복음의 매임 안에서”라는 동기를 부여하는 어구를 첨가하는데, 이는 그의 투옥에 대한 언급을 “때문에”(원인), “위하여”(목적), 혹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만, “의하여”(수단)-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중심을 둔 복음 메시지-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만약 의미론적 밀도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된다면, 순수한 모호성의 경우처럼, 두 가지 번역의 해법이 있다: 가장 지지를 받고 선호되는 의미는 본문에 두고 다른 것(들)은 각주로 내려 앉히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그 표현을 TL에서 두 가지 의미가 암시되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 예에서 영어로 “때문에”는(혹은 치체와어로는 *chifukwa cha*)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의미론적 밀도에 대한 여러 다른 예가 빌레몬서(신약 문서에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한 문서에 많이 나온다)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 중심 어휘인 *κοινωνία*인데,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즉, “동반자의식”이라는 역동적인 개념과 “교제”라는 관계적 개념이다.

- 17-18절의 두 개의 사실에 대한 εἰ(“만약에”) 조건절(직설법 동사가 나온다)은 서신의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바울의 수사학적 전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경우에서, 사도는, 가정적으로 사역 안에서의 그들의 “동반자의식”의 실재를 지적함으로써,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다시 “받아들여라”는 그의 단호한 명령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미 자신의 긍정적인 평가를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1절), 이런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빌레몬에게 남겨둔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만약에”의 사용은 바울이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동료의 견해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암시일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영어로, “왜냐하면”(since)으로 문장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평가에 대한 좀더 분명한 표시가 필요하다. 18절에서는 수사학적 상황이 다소 다르다: 대비적/연속적 시초 접속사 δέ(“그러나”)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마치** 그가 사도 자신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청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지에 대하여, 바울이 모종의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한 번 바울은 판단을 빌레몬에게 미룬다-즉, 오네시모의 “빛” 혹은 “불의”의 성격과 크기에 관하여. 빌레몬이 잘못된 일을 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바울은 전

혀 의심하지 않는데(우리의 번역은 이것을 시사해서는 안 된다),⁶¹⁾ 오히려 빌레몬이 자신의 종의 변화된 영적인 지위가 알려질 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래서 17절과의 형식적 평행어구가 불분명할 지라도, 최소한 영어에서는, 가정적 접속사 “만약에”가 적절하다.

- 19절의 율동적(예술적)이고 수사학적인 강조는 많은 번역들에서는 빠져 있다. 인칭대명사들의 명시적인 사용이 특별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마지막 동사를 예상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 전경을 형성한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값으려니와**”(ἐγὼ Παῦλος ἔγραυσα τῇ ἐμῇ χειρὶ ἐγὼ ἀποτίσω). 다른 언어들에서 원어의 전반적인 효과를 재현하려면 상이한 문체적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GNB은 주목할만한 시도를 하였다: “여기, 나는 나의 친수로 이것을 쓴다; 나, **바울이, 너에게 값을 것이다.**”
- 절정에 있는 20절을 이끌어 가는 확인의 수사학적 불변화사(ναί)는 TL에서 번역상의 관용적 동등성을 발견해야하는 또 다른 도전을 준다. NIV에서는 이것이 확실히 무시되었고, 많은 영어번역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문자적인 “yes”(오!)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아직 더 발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Well then…”(저 그러면…)(NJB), “”(…부디…)(CEV), “So…”(그래서…)(GNB) 등이다. 이와 비슷하게, 회구법 동사 ὀναίμην이 오네시모의 이름(Ονήσιμον; 비교. 10절)에 대한 단어유희라고 전제한다면(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누구라도 번역에서 가능하다면 이 시적이고 수사학적인 터치를 복제하고 싶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나로 너를 인하여 기쁨, 곧 **유익**을 얻게 하고 …” 정도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13절에 표현한 암시적인 갈망이 담화의 이 단계에서 접근가능하고 적실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누구라도 다음과 같이 더 대담하게 번역할 것이다: “나로 너를 인하여 **유익-즉 오네시모-을** 얻게 하고”⁶²⁾ 바울의 의도를 본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면 아마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나, 이와 같은 해석학적 가능성을 각주에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할 것이다.

61) 주석들에는 오네시모가 정확하게 어떻게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는가”(ἠδίκησέν), 혹은 정확하게 그가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빚졌는가”(ὀφείλει)에 대해서(18 절) 상당한 추측들이 있다. 또한 왜 그리고 어떻게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는가(10 절)와 연결된 사안에서도 질문들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D. G. Dunn,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and Philemon*, 302-305; Peter T. O’Brien, *Colossians, Philemon*,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Word Books, 1982), 266-267; Robert W. Wall, *Colossians and Philemon*, 183-185를 보라. 어찌되었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들은 분명하다: 오네시모가 매우 잘못된 무엇인가를 **하였다**; 그는 자기 주인, 빌레몬을 피해 도망하였다; 그는 이어서 사도 바울을 접촉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가면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이 편지를 사용하여 그를 대신하여 중재하고 있다.

62) J. Harold Greenlee, *An Exegetical Summary of Titus and Philemon*, 20.

- 20절은 또 한번 이 작은 서신-길이는 아주 짧지만 감정은 깊은-으로 전달 되는 감정에 호소하는 강한 뉘앙스 때문에 번역자의 주의를 끈다. “내 마음[창자]을 평안하게 하라”(ἀνάπαυσόν μου τὰ σπλάγχνα)의 그리스어의 문자적 번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반대의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기능적 동등성(LiFE) 번역을 해내려면 아주 창조적인 예술성이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부디, 나를 기운 나게 하라!”(비교. GNB, CEV). 또한 7절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 부분 마무리에 나오는 평행구로 반복을 통한 본문 내적인 공명을 유지하는 노력도 똑같이 어렵겠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다.
- 서신의 문학적 구조는, 앞에서 제안한 대로(2.2.2), 21-22절을 한 담화단위(산문 문단)로서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본문을 종이에 포맷을 지정하는 것과, 또한 연결되는 곳(21절과 22절 사이)뿐만 아니라 나누어지는 곳(20절과 21절 사이)을 표시해주는 데 사용되는 전이 기술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GNB는 21절부터 시작함으로써 간격을 만드는 것을 아주 잘했다(영어로): “나는 이것을 쓰면서, 나는 네가... 행할 것이고 확신한다.” 21절과 22절을 이어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어렵다. 접속사들 ἅμα δέ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즉,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집으로 환영할 때, 혹은 “한 가지 더”-즉, 두 번째 요청, 내가 이미 너에게 청하였던 것에 첨가하여, 예를 들면, 오네시모에 관한 요청을 의미할 수 있다. 아마도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의미론적 밀도”의 또 다른 예이다. 어느 경우이든, 번역은 원문의 담화구조를, 문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 대로, 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람이 21 절에서 22 절로 옮겨갈 때, 특징적인 강조로 짝 지워진 것인지 가능한 연속성을 제안하는 문학적 분석, 예를 들면, “그리고 한 가지 더-...”(비교. NRSV)와 같은 것을 말한다. 적절한 어휘적 연결성이 결여되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두 구절을 개념적인 단위로 다루지만, CEV는 이 두 구절을 함께 적절하게 묶는데 실패하였다: “나는 네가 내가 요청한 모든 것, 그리고 더 행할 줄을 확신한다. 부디 나를 위하여 방을 준비하라...”

확실히 또 다른 중요한 번역사의 이슈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 기준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기에선 지금까지 열거한 예들로 충분할 것이다. 이것들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성서 본문의 중심 의미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적실성 있는 동등성” 양

식으로 표적 언어에서 재-본문화될 수 있게 된다.

3.2. “문학적 기능적-동등성”(LiFE) 번역이란 무엇인가?

번역은 일반적으로 **복합적이며 상황화 된** 의사전달의 사례이다-본문 교환 혹은 어문적 **변형(trans-form-ation)**의 복잡한 과정이며, 다음의 기본적 두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 구두의 혹은 기록된 기호들의 의미 있고 함목적적인 선택, 배열, 그리고 분화인, 주어진 SL(source language, 원천 언어) 본문에 대한, 인지적으로 한 세계관의 영역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의, **이중문화간의(intercultural) 재-개념화 작업(re-conceptualization)**;
- 원문을 특정한 TL(target language, 표적 혹은 목표 언어)로, 필수적인 **초-본문적(para-textual)** 브리지와 청중이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배경적 자료들을 대동하고 이루어지는, 의미론적으로 정확하고, 형식적으로 적절하며, 화용론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이중언어간의(interlingual) 재-의미화(re-signification)** 작업.

첫 번째 과정은 원문의 모든 심층의 의미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특성들의 인지적 공정과 변형이 포함된다. 여기서 두 번째 과정, 즉, 첫 번째 것을 뒤따라서, 담화의 좀더 명백한 표면층의 의미론적, 구조적, 그리고 문체적 측면들을 다룬다. 번역의 초기 단계, 즉 재-개념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이 일반적으로 선도하고, 이로 인한 왜곡도 유입된다. 이후 단계는 TL에서의 재-작문 작업이다.

번역을 통한 의사소통은, 최소한 두 언어, 문화, 개념적 격자, 그리고 기호체계가 포함된다는 사실 때문에, 복잡하다.⁶³⁾ 번역자들이 원문에 접근할 수 없는 많은 프로젝트 상황에서 제 삼의 언어-문화적 그리고 인지적 틀(세계관)로 된 번역본을 소개해줄 필요가 있다. 이 번역본은 TL 뿐만 아니라 SL의 관점에서도 아주 낮은 것일 것이다. 그와 같은 “**브리지 번역(bridge translation)**”은 종종 영어, 스페인어, 불어, 혹은 러시아어 같이 **널리 의사소통 되는 주요 서양 언어(LWC= 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번역) 팀에게 몇몇 개념적 및 번역적 문제점들과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Swahili)어나 더 남부아프리카의 체와(Chewa)어 같이 지역적인 LWC

63) 그래서 좀 짧은 정의로 우리는, 번역은 동일한 본문을 상이한 언어적, 사회문화적, 상황적 맥락으로 **재-개념화와 재-작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 경우에,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이 지역의 다른 많은 언어처럼 전반적으로 동일한 어족(반투, Bantu)에 속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들은 더 많은 문화적 유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성서 번역은, 작성되던 최초의 상황과 현재사이의 거대한 시간-간격 때문에, 좀 더 도전이 된다. 그 결과, 성서 기자들과 그들의 작문적, 문화적 환경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조사될 수 없다. 더욱이, 원본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종종 본문비평적 질문들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성서 번역자들의 실제 시험은 최초의 “재-개념화”(re-conceptualization) 작업에서 나타난다. 일단 그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및 그 상황적 배경과 연관하여 그 속제를 해내면(비평적 주석, 사전, 성구사전, 그리고 파라텍스트[Paratext]나 로고스[Logos]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석의적 참고서 등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단계는 TL로 언어학적인 “재-제시”(re-presentation)를 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표적(목표) 그룹을 위한 적실성 있는 본문적 “적절성”(적실성, 수용성 등)을 결정하는 것은 아직도 번역자들에게 최상 수준의 (언어)능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만만치 않은 과업이다.

이종언어간 의사소통의 과업은, 성서의 경우에 원천 본문의 회자되고 있는 세상에서의 유명한 특성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뜨거운 본문”(hot text)이라고 부를 수 있다-거룩하고, 권위적이고, 경건하고, 규범적인 SL 문서(사본들의 편집된 사본이기는 하지만)이며, 이래서 가치 면에서 항상 그 번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어느 TL 번역본이라도, 그 TL 번역본으로든 다른 언어로 된 번역본으로든, 지속적으로 원문의 빛 아래서-뿐만 아니라 이전 번역의 긴 전통의 영향 하에서-비교해서 조사, 수정, 향상되어야만 한다. 그와 같은 비교평가 과정은 또한 자세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 여러 영역의 암시(언어 외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미 주지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가능한 많이 표현하고자 하는 갈망은(결국에는 성취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상적인 목표이다) 성서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제하고 있는 의사소통적 기능들과 감동적 효과들에도, 그 의도하는 청중과 그들의 사회적(그리고 종교적)배경과 상황적 맥락과 연관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⁶⁴⁾

64) 필자는 여기서 그 모든-형식, 내용, 기능, 그리고 효과라는-측면에서 완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야만 하겠다. 번역은 항상 모종의 왜곡을 포함하게 마련이다-즉, 첨가, 삭감, 보완 등의. 어떤 번역에서도 원문의 완전한 외연적 그리고 내포적 의미를 재생산해 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번역은 항상 전적으로 다른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The Bible Translator: Technical Papers* 52:3 (2001), 317.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 지의 관점에서의 주의 깊은 선택이, 동시대 목표청중과 그들이 처한 환경의 요구와 자질의 빛 아래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중요한 화용론적 번역의 “제한된 선”(limited good)의 원칙에 대하여

하지만, 원문에 갇아야 할 빛이 더 많다: 번역자들은 번역될 원천 문서의 언어적 그리고 문학적 **형식들**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그 의미론적 내용과 화용론적 의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식들 자체가 종종 의미를 전달, 전시, 표현하기 때문이다-즉, 문체적, 구조적, 수사학적, 그리고 심지어 **동일 구조(isomorphic)**의 특성에 대한 기호론적 중요성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이미 많이 살펴보았다. 즉, 동음이의의 익살과 두음법과 같은 사려 깊은 음운론적 효과들을 위시하여, 주제와 초점을 표시하기 위한 어순변환, 주제적 결합력과 강조를 만들어 내는 반복법, 한 담화 내에서의 구조적 절정과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들, 감동과 긴장감을 자아내는 수사학적 장치들, 그리고 본문을 개념적으로 아름답게 하고, 특별한 청각적 호소력을 주고, 어떤 논리적 개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술적 충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창조적인 형식상의 배열(예를 들면, 모종의 의미론적 반전을 제안하기 위하여 교차대조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잘 다듬어진 모든 문학적 작문은, 본문의 **형식이 의미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번역 노력에서도 그 정당한 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공급한다.⁶⁵⁾ 따라서 이것이 문학-지향적인 번역법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즉,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인식 가능한) 영역에서 입수할 수 있고 적절한 TL 형태들을 **최적으로 활용(maximal utilization)**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노력이다. 이 목표는 음성, 의미, 문장론, 혹은 구조의 측면에서 번역하는 언어의 어문 양식 중에서 가장 가까운 동등의 장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안하는 방법은 특정한 성서 본문에 시도될 수 있고, 적용될 때마다,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생산 수단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크게 혹은 적게** 성취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주지한 대로, 특별히 번역과정 동안에 생각해야 할, 중요성과 결과라는 **문학적인** 두 영역이 있다. “**예술적**” 관심은 우리를 구두 혹은 기록된 어문적 본문의 **형식적**, 즉 미적 그리고 양식상의 측면들에 집중하도록 이끈다. 다시 말하

아래에 좀더 언급될 것이다.

65) 그래서 라틴어 *traddutore-traditore*, 거칠게 번역하면: “번역자는 반역자다”(The translator is a traitor)라는 잠언은 어문적 담화의 형식에도 적용된다. 본문이 더 문학적일수록, 번역자는 더 “반역적”이 된다! 더욱이, 번역의 “두 가지 주요 모델”-즉, 원문에 대한 “형식적 모방”(formal imitation)과 “의미론적 동등성”(semantic equivalence)에 목표를 둔 번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Carlo, Buzzetti, “Mini-notes: A ‘new’ resource in translating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special issue 55:3 (2004), 408.), 최소한 고려해보아야 할 또 다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것은 의미론적 동등성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취하면서 번역과정에서 **최고로 탁월한 유용성이 있는** TL의 구조적 그리고 문체적 형식들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번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적이고 솜씨 좋은 번역자는 본문들을 이중언어간에 교환작업을 하는 “무역업자”(trader)이다.

면, 담화에서 무엇이 아름다우며, 듣기 좋으며, 기억하기 좋으며, 감각적으로 호소력이 있는가에 관심을 쏟게 된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시적, 관계적(교감적)이고 의식적(제의적)** 기능들을 강조하게 된다. 다른 한편, “수사학적” 관심은 우리로 **기능적**, 즉 본문 전달의 역동적 측면, 예를 들면, 무엇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화용론적으로 효과적인가에 마음을 쏟게 만든다. 이 경우는 의사소통의 **표현력이 풍성함, 정서적, 엄숙한** 기능들을 강조한다.

문학적(혹은 “시적”)⁶⁶⁾ 접근법의 형식적 영역은 많은 곳에서 합쳐지고 겹쳐지는 두 방향으로 확장된다. 한 방향은 성서의 예술적 미를 원문과 번역문의 관점에서 조사한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성서 본문을 **미적으로** 매력 있게-즉 그 본문에 대한 가상의 청중의 눈, 귀, 그리고 관심을 사로잡고, 그래서 저자가 그의 어휘들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다른 의사소통의 목적들을 고양시키는-만드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학적 경향성의 두 번째 방향은 원천본문과 목표본문의 효능, 혹은 설득력을 고양시킨다. 성서의 저자들은 지(minds), 정(hearts), 의(wills)를 사로잡기 위하여-즉, 그들의 청자와 독자들이 어떤 것을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실행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언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여기서 분석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서의 영향력을 다양한 감정, 열정, 태도, 그리고 분위기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experientially)** 느끼도록 해주는 특정한 문체적 특징들을 확인하려고 시도한다.⁶⁷⁾ 이것들이 함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청중들에게 능력과 결속력의 다양한 급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분명히 나타나는 원문의 예술성과 수사학성은 전체적으로 그 본문의 신뢰성, 권위, 그리고 진정성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모든 번역이 단지 원문의 부분적(참으로 아주 창백한) 반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원천언어(SL) 본문의 선별적 구성요소만이 목표(혹은 표적)언어(TL)에서 적절히, 동등성 있게는 그만두고라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개념적 전이는, 그 형식들이 매우 다른, 종종 혁신적으로 상이한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언어의 어문적 흐름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의 **선택**은 이루어 져야한다-즉, 번역배경에 의하여 제시되고 “상황적 적실성”(situational relevance)과 일치하는, 전체적인 인지적 그리고 감성적 준거 틀의 빛 안에서, 선택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기서 “완전성 요소”가 적용가능 하다. 즉, 원저자와 그의 초기 의사소통의도들에 충성하여, 의미의 중요한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간섭, 왜곡, 혹은 손실 등을 최소화

66) **시학(poetics)**의 분야는 문학에서 형식적(구조적 그리고 문체적) **예술성(artistry)**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것의 분석, 해석, 그리고 비교검토 등을 포함한다.

67) 신학적인 전망에서, 성서의 다양한 저자들의 경우에 이 문학적 동기부여와 본문적 실행은 성령의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운행하심에 의하여 인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하고자 하는 갈망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업의 복잡한 특성의 관점에서, 본 단락의 시작부분에서 언급했던 두 단계로 된 번역에 대한 축소형 정의를 확장해볼 가치가 있다. 다음은 좀더 체계적으로 “개념화된” 요약인데, 상이한 현행 접근법들을 포함하려고 시도하는 동시에 특별히 TL에서의 문학적 번역의 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였다(즉, 바) 항에서)⁶⁸⁾

번역은:

가) 개념적으로 중재된 재-작문작업(recomposition)이다. [번역자는 “중재자”, 혹은 어문적 “주식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는 자기의 모든 “고객들”에게-원저자와 그의 의사소통 의도들뿐만 아니라 목표/소비자 청중의 필요와 갈망을-공평하게 설명해야 한다.]

나) 맥락적으로 “틀에 짜인” 본문의 [“맥락”은 주어진 본문의 인식, 해석, 그리고 적용에 영향을 주고 그것을 인도하는 완전한 인지적-감정적 틀을 지칭한다.]⁶⁹⁾

다) 상이한 의사소통 배경 안에서 [번역자는 재-형식화를 중재해야한다. 즉, 이것은 원문에서 새로운 언어, 정신세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로의 어문적 재-의미화이다.]

라) 최선의 적실성으로, [목표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과정적 노력을 들이지 아니하고, 최대수의 유익한 개념적, 감정적, 의지적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마) 가능한 한 기능적 동등성의 양식으로, [목표(표적)본문은, 의미론적 내용, 화(어)용론적 의도, 내포적 공명, 감정적인 영향력, 예술적 호소력, 그리고/혹은 수사학적 능력, 그 문학적 장르의 일치성 등의 의미의 변수의 관점에서, 원문의 유사성을 충분할 정도로 나타내야 한다.]

바) 즉, 다소간, 문체적으로 주목받는, [문체적 교화(친숙함)(domestica-

68) 이 차트는 Ernst R. Wendland, *Translating the Literature of Scripture: A Literary-rhetorical Approach to Bible Translation* 단락 2.7을 재작업한 것이다.

69) 좀더 구체적으로, “적실성 이론”의 관점에서, **맥락**은 한 사람의 “인지적 환경”-그 사람 개인의 정신에 기초한 추론들로 구성된 정신 구조, 혹은 개념적-감정적 틀이다: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이전 **학습**; 종던 나쁘던 과거 **경험**; 직접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 고려하고 있는 본문에 대한 현존하는 **공동-본문적** 배경; 현재의 **전체들**(무대에 나타난 다른 대담자의 “인지적 환경”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지각 가능한 의사소통 **자극들**(그 사람이 우연히 읽고, 바라보고, 그리고/혹은 듣게 되는 본문을 포함하여 기호론적 어문적 혹은 비-어문적 부호들); 비-의사소통적 자극들, 즉, 현재 배경에 우연히 나타나는 **소음**, 아마도 심지어 현재의 의사소통 과정을 방해하는 것 등이다(비교. Ernst-August Gutt,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Dallas: SIL Inc., 1992], 21-24.)

tion, 혹은 이질화, foreignization), 즉 관용어법화(idiomacity, 혹은 부자연스러움, unnaturalness)의 정도가 TL의 관점에서는 다소간 강하게 인식될 것이다.

사) 지정된 임무에 맞춰서 [TL 본문의 정확도와 수용성의 수준은 번역 프로젝트를 이끄는 관련 조건들, 즉 프로젝트의 일차적 목표(들), 참모의 경험과 훈련, 유용한 자원들, 품질관리과정, 공동체의 소원과 요구사항들, 행정과 경영 과정, 원하는 완성 일정, 등등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아) 관련된 TL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되고 [목표가 되는 사회적 종교적 배경의 전체적인 의사소통 틀은 프로젝트 명령서, 혹은 **적요서(Brief)**를 제정하는데 결정적이다. 이것은 먼저 주의 깊게 조사하고, 모든 주요 후원자와 지지자들의 동의를 얻고,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언급하고,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진행하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번역의 정의 혹은 어느 특정한 번역에 대한 질적 평가는 다음 세 가지 주요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 번역자가 받아들이는 번역의 잠재적인 이론적 **모델(model)** (예를 들면, 원천-본문 혹은 목표(표적) 본문 지향의; SMR-코드, “생성적(generative)” 본문-언어학적, 혹은 “적실성”에 기초한);
- 하나 이상의 선호되는 관행의 배경 내에서 청중과 연관된 번역에 대한 지정된 **동기(motive)**, 혹은 목표(*σκοπός*); 그리고-
- 번역자의 “성서”관을 포함하여 재-작문 과정이 수행되는 스타일 혹은 **양식(manner)**(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문학적인 대(vs.) 관용적인).

위에 제시한 번역에 대한 좀 더 긴 정의 안에서, 필자는 두드러진 “문학적” 구성요소를 통합하였다.“목표(*σκοπός*) 이론”뿐만 아니라 “적실성 이론”으로부터의 식견에 도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맥락화된 “틀”-지향의 기능적 접근법으로 상술된 견해이다.⁷⁰⁾ 그 목적은, 최신의 번역 프로젝트의 배경과 분명하게 정의된 의사소통 목표들 안에서 수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성의 관점에서, “충분

70) “적실성 이론”은 번역을 포함하여 본문 가공과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적이고 추론적인 전망을 공급한다(Ernst-August Gutt, *Relevance Theory: 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을 보라). “목표(*σκοπός*) 이론”은 독일 번역전문가 학파에 의하여 개척된 번역 이론과 실제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지향적,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접근법이다. Christiane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1997)을 보라; 비교. 또한 성서 번역의 문제점들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적용에 대하여는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비교. Timothy L. Wilt, “A new framework for Bible translation,” ch.2).

한 유사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적실성 이론은 기능적 동등성 방법론을 넓은 인지적 용어들로 맥락화 하는 것을 돕고, 목표(*σκοπός*) 이론은, 특정한 청중 및 배경과 관련하여 바람직함과 수용성의 관점에서 번역 과정 동안에 어떤 기능이 강조될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와 같은 접근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⁷¹⁾ 더 넓은 목적은 실제로 더 탄력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특정한 번역 임무(목표 이론에서는 프로젝트 적요서[Brief]라고 불린다)의 틀 안에서 상이한 과정적 선택권을 허용한다.

번역에 대한 문학적 기능적 동등성(LiFE) 방식은, SL과 TL 문서 모두의 관점에서 본문 분석과 이동의 형식, 혹은 스타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접근법은 다음에 열거하는 특징들을 소개함으로써 좀더 설명될 것인데, 이 특징들이 함께 이 실제적인 방법론을 성서 번역에 적용될 때 더 두드러지게 해준다:

- 본문-가공의 **다 측면적, 담화-중심적, 장르에 기초한, 전체론적(holistic)** 기술(비교. 단락 2.3의 분석을 위한 열 단계)
- 주어진 성서 담화를 그 전제된 쌍방적인 **연설과 본문 행동**의 관점에서 그 명백한 **수사학적 전략**들과 더불어 평가하는 탁월한 **화용론적-기능적** 구성요소
- 원 문서뿐만 아니라 TL 본문의 언어외적 **사회-문화적 배경**도 고려하면서, 완전한 의사소통 **틀들**, 즉 메시지 전달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관심
- 담화의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측면들-그것이 전제하는 효과, 호소력, 미, 그리고 그것이 의도하는 그 때와 지금의 청중 혹은 독자와의 관계에서의 적실성 등-에 초점을 맞춤
- 원천 본문과 목표 본문의 **구두-청취적**(“연설적”) **차원**, 또한 그것에 대한 인쇄된 페이지에서의 **시각적 배열**, 혹은 인쇄 포맷, **읽기 쉬움**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성서 본문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번역에서 재생산된, 중요한 구조적 혹은 문체적 특징들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초-본문적 보충적 장치**의 필요에 대한 인식
- 번역본 **사용자들**(그들의 소망, 필요, 한계, 가치, 기대, 등등)과 그 용례(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그 번역본이 사용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으로 감독되는 민감성

71) “한 가지 번역은 결코 원천 본문의 모든 측면들을 반영할 수 없다. 번역들은 항상 원천 본문의 어떤 측면들을 선택하며 번역적 필터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번역의 사회적 기능, 즉 목표(*σκοπός*)이다.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308.

LiFE를 적용한 최상의 유형은 TL본문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구조적 수준 등에서 전체적인 **장르-대-장르(genre-for-genre)** 변형에서 인식된다. 이런 종류의 번역본은 TL의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수단들을 번역 모델로 선정한 장르에 맞춰서 가장 넓게(또한 적합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일한 선택은 아니다.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잠재적인 “LiFE 형태들”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절차상의 원리가 탁월한데, 바로 적어도 최소한의 정도라도 모든 번역은 “문학적”(“웅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⁷²⁾ 일차적인 목표는, 프로젝트 임무에 의하여 정해진 대로 상세하고 적실성이 있는 관점에서, 쉽게 **읽히고**, 분명하게 정의된 TL 청중의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는 번역된 본문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LiFE 접근법이 성서에 적용될 때, 다섯 가지 기본적인 전제 혹은 가정이 내재한다:

- 기초적인 기본 본문인, 성서의 정경은 상이한 많은 장르와 문체로 구성된 거의 틀림없이 탁월한 “문학적” 문서이다.
- 특성상 문자적이거나 관용적인 대부분의 성서 번역에서, TL의 유용한 문학적/웅변적 **자원들이** 종종 부분적으로도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성서 전체와 특정한 본문을 번역하는 측면에서 LiFE 번역 적용의 다양한 등급, 혹은 전략들이 가능하다.⁷³⁾
- 관여된 목표(표적) 언어에 따라서, 언어학적 형식의 상이한 특성들이 “문학적 고양”(literary enhancement, 전경 깔기, 강조하기-좀더 “적실성 있게” 혹은 “교화되게”[친숙하게])을 위하여 선정될 수 있다.
- 문학적(예술적 = 수사학적) 번역은, 능력 있는 번역자들이 자신들의 독창성과 창작성을 생산적으로 발휘하도록, 미학적으로 자극하고 지적으로 만족을 준다.

72) “웅변적인”(oratorical) 번역은 **낭송되고, 듣고, 암송되고**, 그리고 구두로 전달될 수 있고, 또한 그 목적으로 위하여 작문된 문학적 번역이다. 그러므로 본문은 음성적 호소력과 소리의 미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명시적 절차의 문제로서 큰 소리로 **번역되고 시험된다**. 구두성에 호소하는 것은 꼭 어문적 예술의 구두적 장르가 성서번역자들이 모방해야하는 최선의 모델을 공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를 들면, 치체와(Chichewa)어의 구두 서사에 특징적인 많은 문체적 장치들은 기록된 담화에는 적합하지 않고 또한 부자연스러운 소리이다. 예를 들면, 정확한 반복의 분량, 감탄사의 사용, 과다한 연결사, 등등이다. 이 주제에 대한 몇몇 눈에 띄는 이슈들을 자세히 토론한 것을 보려면,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 and primary orality,” *The Bible Translation: Technical Papers* 51:1 (2000), 101-114을 보라.

73) 이런 관점에서, LiFE 방법은 실제로 새로운 번역 접근법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보완적이고, 어떤 번역유형에라도-특성상 상대적으로 “교화된”[친숙한] (혹은 “이질화된”) 번역에라도-다소간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전제는 다른 전제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공급한다: 만약 성서의 본문이 어느 정도 특성상 “문학적”이라면(기능적으로 중요한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특질들을 보여주는).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의미”의 차원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목표를 정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조직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번역 자체에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성서 본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한다.⁷⁴⁾ 잠재적 적용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주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문학적 연대성과 고양성의 등급과 여러 상이한 분야들이 프로젝트의 기술적인 조직과 실제적인 용량에-규모 면에서 성서전체를 생산하는 것에서부터 특별한 종교적 상황을 위하여 기획된 간단한 선택부분에 이르기까지-따라서 가능하다. 필자는, 기본적인 최소한으로써, LiFE번역방식을 TL 본문의 음운론(phonology), 즉 음성 구조에 시종일관하여 적용하는 것이 최상 책이며 아마도 가장 수용성 있는 해법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자연스럽게 울동적인 담화의 흐름,⁷⁵⁾ 구술 발음 단위에 기초한 연속적인 선배열의 균형 잡힌 모형, 단어와 구의 관용적 배열, 음조가 좋은 두운법과 유운법, 명백한 말 재롱, 그리고 TL 장르 내에서 공통적인 관심사라면, 내적 혹은 말미 리듬 기법 등이다.⁷⁶⁾

74) 본문의 문학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의 풍성한 의미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번역의 복잡성을 문학 이론적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문학은 기호적 의미나 중요성보다 더 많은 것을 통합하는 언어 사용의 가장 복잡한 형태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둘 때, 의미가 있다. 시어에서는,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또한 로트만(Jurij Lotman)이 ‘아름다움은 정보다’(Schöheit ist Information)라는 어구를 만들어낼 때 예술적 본문의 핵심으로 보았던 의미의 농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언어의 모든 측면과 가능성이 신중하게 활용된다. H. du Plooy, “Listening to the wind in the trees: Meaning, interpretation and literary theory,” J.A. Naude and C. H. J. van der Merwe, eds., *Contemporary 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A South African Perspective*, Acta Theologica 2002 Supplementum 2, 266-279.

75) 문학에서의 리듬에 대한 판단에 관한 적절한 경고에 대해서는 Simon Crisp, “Does a literary translation have to be literal?” S. Crisp & M. Jinbanchian, eds., *Text, Theology & Translation: Essays in Honor of Jan de Waard*, Reading (UK: United Bible Societies, 2004), 49를 보라.

76) 하한선(최종 결론): 어떤 성서 본문이든-크든 작든, 시이든 사문이든-성서 본문과 자국어 번역본, 이 둘 다의 풍성한 음성적 잠재력과 특유의 표현적 아름다움(언어적 진수)에 예민하게 귀 기울임으로써 가능한 정도와 등급까지 문학적 양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되어야만 한다?). 물론, TL로 번역하는 문학적 방법인 “교화하기”(친숙하게 하기)의 좀 더 혁신적인 적용은 원 SL 본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동등성의 결핍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유형의 반복과 좀 더 큰 구조적 유형(묶음 쇠[inclusio], 교차대구법, 아크로스티크[각 행의 머리글자를 모으면 말이 되는 유희시]배열) 등이다. 이러한 상실은 예술적-수사학적 번역본이 특정한 청중을 위해서 자아내게 될 증가된 심리학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s)(문학적 지각력, 수사학적 감화력, 미적 호소력)에 의하여 상쇄할 수 있어야만 한다. 크리습(Simon Crisp, “Does a literary translation have to be literal?”)은 영어로 된 문자적 번역 성서의 상대적인 문학적 잠재력에 관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개관을 제공한다.

그래서 “문학성”(literariness)의 구성요소(어문적 자원의 풍부함, 수사학적 설득력, 등)는 다양한 장치들과 여러 조처들을 통하여 번역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의 경우에도 항상, 강조점은 원문의 의미론적 **내용**에 견고히 맞춰있지만, 번역할 때, **예술적으로** 그것의 의사소통상의 의미를 전달하기, 감정적 함축과 내포적 연상을 포함하기에도 관심이 있다. 이것은 표적(목표)언어의 언어적 “진수”와 문학적 자산(재고조사)에 따라서 성취될 것이다. 후자는 상이한 장르의 담화를 구별하는 다양한 문체적 특성들을 말한다. 즉, TL과 그 문학(연설문)에서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 민감한 일반 사람들에게 의하여 최근에 인식되고 평가된 것들을 의미한다. 요컨대, 다음 도형으로 도식화된 대로, 유능하고 창조적인 번역자들이 작업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의 연속선(continuum of possibilities)**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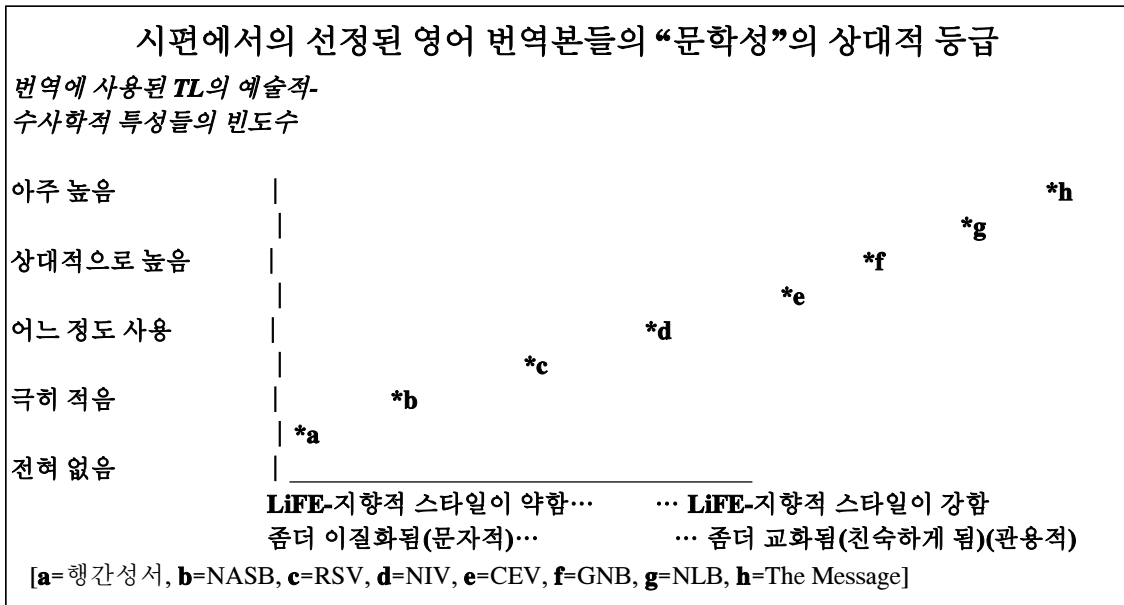
제안된 LiFE식 번역의 연속선:

덜 문학적임 ←===== “문학성”(literariness) =====→ 좀더 문학적임

[적용된 문학적 특성들(증가되는 범위로):음운론적<형태론적<어휘적<문장론적<본문적]

번역의 상이한 유형들(혹은 “스타일”)도 이 연장선을 따라서 범위가 정해진다. 즉, 한 쪽 끝의 “이질화된”(foreignized) 형식적 대응 번역에서부터 다른 한 쪽 끝의 충분히 “교화된”(친숙한)(domesticated), 기능적 동등성 장르 변형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주요한 필요조건과 지침은 모든 번역이, TL로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본문을 번역한다는 점에 목표를 둔, 최소한의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문학적 운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차트는 대중적인 영어 번역본들의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이다. 즉, 히브리 시편의 시적 담화의 경우에, 성서 본문안의 상이한 문학적 속성을 명시해주는 측면에서 서로를 비교한 것이다.



이것은, 예시와 토론의 목적만으로 도입한, 극히 인상적이고 비과학적인 도표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탁월성의 **질적인** 척도나 번역의 상대적인 **품질**을 제시하고자함이 아니다. 이와 같은 대비적인 시각적 평가는 타 언어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번역들의 관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석의적이고 문체적인 면에서, 원문의 어떤 측면들을 번역자들(그리고/혹은 그 후원자들)이 그들의 작업하는 동안에 경시하거나 중시하고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번역은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강점과 약점을 지닌다,

인간의 언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번역이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것은,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여, 성서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풍성하게 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회언어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번역들을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다.⁷⁷⁾

3.3. 빌레몬서를 영어와 치체와(Chichewa)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LIFE식 번역방법을 적용하기

문학적 기능적-동등성 번역이 치체와(Chichewa)어로는 어떻게 읽힐 것인가,

77) “번역의 한 가지 유형만으론 사람들이 성서에서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채워주기에는 불충분하다. Lourens de Vries, “Bible translations: Forms and functions,” 312. 물론, 이것은 그들이 다양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아래의 내용을 더 보라).

아니 더 바르게 말한다면, “들릴 것인가”?⁷⁸⁾ 완전히 상이한 스타일의 번역과 짝을 이루어서 단순히 비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마도 이것을 최선으로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다음에 배열해놓은 빌레몬서의 “본체”의 주요부분(8-22 절)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번역본은 각 경우에 상대적인 문학적 번역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부쿠 로파투리카(Buku Lopatulika)(BL, ‘신성한 책’[Sacred Book])로 불리는, 첫 번째 본문은 1923년에 전체성서(전서)로 출판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개신교 교회에 나가는 대중을 위하여 치체와(Chichewa)어로 이루어진 최초의 성서 번역으로 준비되었다. 이 BL은 자국어의 언어적, 문체적, 수사학적 자원들을 충분히 다룰 수 없었던 선교사들에 의하여 주로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하고, 충실하고, 믿을만한” 번역은 다소간 원문의-이때는 히브리어 그리고/혹은 KJV같은 영어번역본-문자적 재생산이라는 신학적인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는 이념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자주 재앙으로 변하였다. 왜냐하면 아래에 배열한 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배열하여 출판되었던 BL 샘플은 이 언어의 충분한 공동본문 권에서 교육받은 독자들에게도 거의 인지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번역은 오늘날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것으로 남아있다(가톨릭은 그들의 문자적 “선교사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그래서 이러한 지속성 속에서 “KJV 효과”, 즉 자국어 본문을 성경자체와 동일시하는, 그래서 변화될 수 없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번째 샘플은 **부쿠 로에라(Buku Loyera)**(BY, ‘거룩한 책’[Holy Book])이라 불리는, 1998년도의 현대 “대중어(popular language)”번역본에서 따온 것이다. 이 성서 번역본의 이념은, 첫 번째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외관상 아주 많이 교회 통합적이며 치바이부로(Chibaibulo), 즉“성서 언어”-교회나 학교에서 국적을 상실한 성직자들의 영향 하에서 발전되어 온 제의화되고 교회화된 방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 BY는 완전히 자국어 구사자들에 의하여 작문되고 편집되었고, 나이다(Nida)의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원칙-비록 이 기준이 다양한 방식으로 채택되고 맥락화되지만-에 고무되고 인도 받았다⁷⁹⁾

78) 치체와(Chichewa)어는 동-중 아프리카의 주요 LWC(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 광역 의사소통 언어)인데, 그 지역에서 추산되기로는 천오백만 명에 의하여 제일 언어와 제이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말라위(Malawi)의 주요 언어이며, 잠비아(Zambia)와 모잠비크(Mozambique)의 공식 언어이다.

79) 비고. Ernst R. Wendland, *Buku Loyera: An Introduction to the New Chichewa Bible Translation*, Kachere Monograph 6 (Blantyre: CLAIM, 1998), 67-113.

이 비교 연구의 목적을 위해, BY는 치체와어의 좀더 문학적(“연설적” 발성법적) 스타일로 본문을 번역하고 포맷하여 개정되었다.⁸⁰⁾ 따라서, 이 실험적 번역은 좀더 특정한 목표청중을 마음에 두고 있다-즉, 비교성서연구용과 대중적인 음악이나 드라마연출용으로 성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활력 있는 어문적 번역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이다. 이처럼 색다른 스타일의 번역은 신선하고 생각하게 하는-즉, 미적인 호소력과 수사학적인 감화를 주는-방식으로 말씀을 전달하고자하는 목적에 의하여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래서 이 번역은, 현대의 도덕적·영적 이슈들에 대한 그들의 삶과 연관된 특정한 질문과 관심의 맥락에서, 본문을 감상하고 또한 활기차며 날카롭게 말하는 젊은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준다.⁸¹⁾

이 어구조차도 이 두 번역 간에 명백한 스타일과 내용의 측면에서 꽤 차이가 있다. 문학적 의미에서 치체와어에서 좀더 중요한 변화들을 참고로 다음에 열거하였다:

- BY 본문이 운율적으로 짜여진 발성 단위의 측면에서 구성되고 포맷되었기 때문에, 독자(낭독자)가 다음 면으로 쉽게 움직이고 담화를 이해할 수 있다.⁸²⁾ 이것은 또한 본문의 좀더 자연스럽고, 뉘앙스가 많은 공중 낭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BL 본문은 독서효율에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보인다. 특히 하이픈을 과도히 사용한 부자연스러운 단어분리와 종종 나오는 부적절한 줄 마침-즉, 한 의미로 이루어진 구조단위 중간에서 끊어버림-등이다.
- 운율적인 줄 배열 이외에, BY 본문은, BL번역에는 없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음조가 듣기 좋은 음운론적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종종 나오는 말미 리듬 (각운)(예를 들면, 21절의 /-i/음); 두운법(예를 들면, 19절의 Nkosasowekera kukukumbutsa kuti); 유음법(예를 들면, 22절의

80) 필자가 이 작문 연습에서 따른 주된 자국어 모델은 대중적인 치체와 부흥강사들이 보여주는 모델인데, 그들의 설교실황(기록되지 않은)이 지방 라디오 방송에 방송되었다(예를 보려면, Ernst R. Wendland, *Preaching that Grabs the Heart: A Rhetorical-stylistic Study of the Chichewa Revival Sermons of Shadrack Wame*, Kachere Monograph 11 [Blantyre: CLAIM, 2000]을 보라). 물론, 이 역동적인 구두 설교 스타일을 어느 특정한 성서 본문의 문어적 번역에 조화시키기 위하여, 약간의 보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간단히 말하면, 상황적으로 수용성 있는 양식으로 빌레몬서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이 부흥강사들의 활기찬 구어체 어문 기술은 상당히 어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했다.

81) 역자주 - 저자의 설명에 부합하도록 영어번역은 한글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82) 실제로 출판된 번역에서는 본문의 독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더 큰 활자체와 더 넓은 행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hifukwa ine ndimakhulupirira kuti); 11절의 “쓸모 있는”이라는 어휘와 관련된 재담(명사 “일”-*ntchito*에 대한 단어유희로 보완되었는데, 이에 상응하는 BL의 “유익한”-*pindulira*보다더 뛰어나고 자연스럽게 소리 난다).

- BY에는-바울의 논점과 중심 용어를 두드러지도록 하는-기능적으로 강조된 어순배치와 통합된 대명사적 지시사가 많다. 예를 들면, *Tsono, ndithudi, m'dzina la Khristu* “그러면, 확실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8절); *Iyeyu ndi Onesimo!* “이 이는 오네시모다!”(10절; 이 계시적인 행의 극적인 간결성에 주목하라); *indedi, iweyo pamodzi ndi ine ndemwe* “그래 정말로 내 자신과 함께 너도”(11절); *mlanduwu ukhale wanga ndithu!* “바로 이 불의를 참으로 내 것이 되게 하라”(18절; 이 예의 첫 단어는 다음의 특성에 대한 예시도 된다); *a nonsenu-adzandibwezera kwa inu!* “너희 모두의-그분은 나를 너희에게로 나가게 할 것이다!”(22상반절; 시에서의 구 결치기[*enjambement*]와 유사한, 이전 행으로부터 겹침은 연결사 생략(*asyndeton*)-연결 접속사의 결여-과 짝을 이루면서, 대명사 “너희들”을 강조하는 문단 **말미강조**를 만들어낸다).
- 균형 잡힌 행 구조를 생성하거나 원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BY에서 과다하거나 정교한 여러 본문확장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koma inetu pakutero ndikumwa ngati* “나는 이를 행하면서 ... 처럼 느낀다”(12절); *pofalitsa Uthenga Wabwino waufulu* “자유의 좋은 소식을 방송함으로써”(13절, 여기서의 말씨는 주된 생각들의 전경을 깔아주는 교차대구적 음성패턴을 만들어낸다); *Ine ndimamkonda mwanayu kwambiri* “나는 이 자녀를 매우 사랑한다”(16상반절); *ndiponso makamaka mnzako mkhristu* “그리고 더한 것은 너의 동료 그리스도인이다”(16하반절); *Inde, mau amene ali m'munsimu* “그렇다, 바로 이 밑에 있는 말이다”(19상반절); *ndi moyo wako womwe wachikristuwu!* “[그는] 바로 너의 그리스도인 생명(활)이다!”(19하반절) 등이다.
- 여러 개의 관용구와 수사적 표현들이 BY 본문을 꾸며줘서, 어조에서 좀더 힘이 있게 하고 말씨에서 더 매력 있게 한다. 예를 들면, *ndikukugwira mwendotu* “나는 참으로 너의 발을 붙잡고 있다”(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탄원자가 무릎을 꿇고 그/녀가 호소하는 사람의 발을 잡을 때처럼, 10절); *umlandire iyeyu ndi manja awiri basi* “그를 너의 두 손을 들어 환영하라”(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처럼, 17절; 마지막 단어는 강조하는 불변화사임); BY에서 이 전체 문단의 밑에 깔린 감정은 강조된 “심장”이미지에 기초한 회화적 표현의 연속에 의하여 응집력 있는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mtima*-8, 12, 14, 16, 20, 21절).

앞에서 이루어진 비교 작업은 평가적 판단을 이끌어내고자 함은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두 샘플 본문을, 번역본으로라도, 읽음으로써 쉽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 BL 번역본은 분명히 읽거나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반면에 문학적인 번역인 BY는 원문을 어문적으로 창조적이며 관용적인 양식으로 표현한다 - 마치 바울이 이 설득력 있는 호소문을 원래 치체와어로 작성한 것처럼. 이것은 후자의 번역이 꼭 전자의 번역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그 번역의 목표 청중이며 그 번역이 프로젝트 위임장(적요서, *Brief*)에 명시된 특정한 준거 틀 안에서 일차적으로 성취하고자 의도하는 목적(*σκοπός*)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위에서 제안한 많은 상황에서, 두 번역본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주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성서 연구 학생들에게 BL은 실제로 기록된 대로의 성서 본문의 문자적 형태에 대한 거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며, 반면에 보완된 BY는 그들이 바울의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접근하게 해주며 동시에 바울이 자신의 논의를 표현한 문학적인 힘과 호소력에 대한 생각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유익을 합쳐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주석-본문번역이 중대하게 다른 경우에 BL과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열거해주는 강해 노트나 각주에 포함된 것을 잘 달은 BY 번역본일 것이다.⁸³⁾ 그래서, LiFE번역 방식은 유일하며 모든 목적을 이루는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제안도 아니고, TL로 나올 수 있는 한 가지의 추천된 본문 산출물에만 제안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최소한 번역자들의 개인적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상황의 여러 다양성에 따라서, 많은 등급의 성취가 가능하다.⁸⁴⁾

83) 부제티(Buzzetti)는 그러한 “짧은 각주”는 “보통 독자들(한 번에 한 번역본 이상을 다루기 힘든)에게 쉽게 거의 모든 적실성이 있는 구절에서 다른 성서 번역들[즉, 독자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주된 대안적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게 해 줄 수 있다... 그 번역이 어떤 유형에 속하든 상관없이, 그 결점들은 조직적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Carlo Buzzetti, “Mini-notes: A ‘new’ resource in translating the Bible?” 409. 이탤릭체는 필자의 언급임). 이런 유형의 참고 노트가 마지막에 언급한 것을 완전히 성취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 비교과정은 분명히 우리의 성서연구의 질을 충실하게 할 것이다. 치체와어 학습용 성서 편집위원회의 최근 모임에서(2004년 11월), 두 가지 본문판을 시험출판하자는 제안이 있었다-즉, 한 페이지의 원편 단에는 BL번역을 그리고 그에 평행 하는 형태로 오른 편에는 BY번역을 싣고, 마주보는 페이지에는 그에 대응하는 주해 노트와 문맥적 노트와 다른 본문외적인 것들(지도, 관주 등등)을 싣는 성서를 출판하자는 제안이었다.

84) 번역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과업과 걸맞지 않으면, 새로운 번역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치체와어 번역은 *Chipangano Chatsopano mu Chichewa cha lero*이다(CC, 현대 치체와어 신약성서, *The New Testament in today's Chichewa* (Nairobi, Africa : International Bible Society, 2002). CC는 영어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상대적으로 문자적인 변형이며, 그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문자적인 번역조차도 문학 중심적인 손질을 통하여 언어학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자국어에 좀 더 자연스러운 음성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떤 경우도 포맷상의 보완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TL에 이질적인(“외래적인”) 어문변화를 덜 주기 위하여, 어순, 기본문장구조, 그리고 약간의 다른 작은 변화들이 도입될 수 있다. BL번역본에서 10-11절을 약간 개정하면, 이러한 여러 가능성들 예시해주도록 아래와 같이 재생산될 수 있다:⁸⁵⁾

작은 LiFE가 만들 수 있는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가?

4. 문학적 접근법이 지니고 있는 타당한 몇몇 함축성들

이 결론부에서 필자는 문학에 기반을 둔 방법론에서 비롯된 몇 가지 함축하는 바들을 간단히 논의할 것이다. 첫째로, 성서 본문을 비-관습적인 양식으로 제시하는 번역에 적용될 때(4.1)와, 둘째로, 위원회 계획과 프로젝트 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많은 이슈와 관심사들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4.2) 등이다. 필자의 일반적인 목적은 포괄적이며, 교차-매체 번역전략(cross-media translation strategy)- 즉, 전체적인 본문간 교환 프로그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작업과정의 일부로서 예술적-수사학적 방법론을 자유롭지만 현명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4.1. 비전통적 성서번역에 있어서의 LiFE

“비-관습적”(혹은“비-전통적”)이라는 용어는 전달에 있어서 인쇄되지 않은 수단이 그 특성이거나 상이한 인쇄 포맷을 전제로 하는 성서 생산품을 지칭한다. 바로 그 특성에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은 담화를 표현하는 좀 더 역동적 양식이 요구된다. 특별히, 시편이나 예언적 신탁 같은 곳에서 등장인물의 대화나 직접화법 등이 관련된 곳에서 더욱 그러하다. 좀 더 생생하고 구어체적 LiFE 번역이 당연히 필요한 곳은, 아래에 예시된 샘플 페이지 같은, 성서 만화 혹

작동 방식(modus operandi)은 결과적인 의미에 관한 한 자국어 본문에 많은 강조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 12절은 NIV에서 이렇다: “I am sending him-who is my very heart-back to you”; 비교. CC: *Ine ndikumubwezera kwa twe-amene ndi mtima wanga weniweni*,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렇다: “나는 그를 너에게 돌려보낸다-그는 나의 참 심복(장)이다.” 서신의 결말(25절)은 이렇다: CC: *Chisomo cha Ambuye Yesu Khristu chikhale ndi mwimu wako*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운이 너의(단수) [조상의] 영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85) 역자주 - 저자의 설명에 부합하도록 영어번역은 한글로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은 좀 더 광범위하게 수준을 높여서 “만화 소설”일 것이다:

삼손과 들릴라

그래서 말을 담은 다양한 하얀 “거품들”안에는 인상적인 시각적 삽화에 어울리는 어문적으로 강렬하지만 간결한 스타일의 말이 곁들이게 하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화자들과 관련한 상이한 배경-즉, TL 지지자들의 문화적 사회 언어적 환경에서 바라본-을 적절히 그려내기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 사회적 다양성들(사회적 방언들 [sociolects])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 언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이질적인 인종적 그리고 사회적(종교적인 것도 포함하여) 근원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삼손은 들릴라와 사뭇 다르게 말하는 것이 기대될 것이다.



관용적인 LiFE 스타일 번역은 또한 오디오-카세트(CD)나 비디오 제품과 같이 성서 본문을 구두-청각적으로 제시하는 종류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매개체의 감각적 특성 때문에, “기능적 동등성”을 좀더 생생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관련 문단의 문학적 속성들을, 그 다음에는 그 문단의 특정한 장르와 관련된 속성들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참여자와 당면한 환경에 적용할 때, 본문의 청각적인 특성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사에서 그려지고 있는 특정한 인물들과 관련하여 말 빠르기, 음색, 어조, 높이, 리듬, 혹은 시편기구나 예언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적인 목소리, 혹은 야훼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 등이다.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에, 목소리는 어느 정도 크고 강한 남자의-아마도 지적으로 너무 선명하지 않은-음향적 인상을 자아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들릴라가 말하는 부분은, 관련된 언어 내에서의 전형적인 풍자

만화와 같이, 유혹적이고 요염한 목소리를 지닌 젊은 여자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배역들은 미리 주의 깊게 조사되고 그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 연결되면 부정적인 방식으로 본문을 내포적으로 채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치체와어판 “예수 영화”에서 그리스도 역은 너무 높고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런 부적당한 청각적 특질은 주님의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몇몇 비-관습적 제품들은 번역자들에게 장르-대-장르 LiFE 번역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인식된 TL 동등성이 성서 본문을 공적으로 제시 하는데 활용된다. 이것은 특별히, 자국어에서 가까이 상응되는 것들을 각각 지혜, 찬사, 장송 스타일의 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잠언, 시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같은 특유의 시적 본문의 경우에 효능이 있을 것이다. 지역 모델들은, 공적인 성서발표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일의 관점에서 약간 개조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문적 어문 예술가들이 번역자와 상담역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그리고 연구조사와 시험판을 가지고 배정된 목표 지지자들 가운데서 실지시험(field-test)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이 따로 배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너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잠언의 선택부분을 교훈적 자국어 노래의 형식이나 다양한 에이즈관련 사안들을 다루는 쪽지를 만드는 매력 있는 음악배경을 지닌 것 등으로 작문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노래 장르는 젊은 청중을 겨냥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에 대한 역동적이며 시적인 번역을 동반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이와 흡사하게, 룯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쉽게, 공중 드라마 연출에 빌려줄 수 있는, 토착적인 서사 스타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좀 더 혁신적인 제품의 각 경우에, 진기함 혹은 예술성 혹은 수사학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점은, 특정한 필요와 특별한 소비자 그룹에게 효과적으로 성서를 제시하는 일에서, 형식(구조, 스타일), 내용, 그리고 기능을 자연스럽게 통합해내는 것이다. 목표(표적)언어와 문학의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자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청자들의 매일 당면하는 긴박한 사회적 영적 생활 경험에 의미도 있고 적실성도 있는 방식으로, 번역해내는 수단으로써 개발되어야 한다.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번역으로 유인함이 아니라, 좀 더 약동하는 스타일을 통하여 자신들의 성서를 취하여 더 깊은 깨달음과 이어지는 개인적 적용의 수준까지 가도록 그들을 격려함에 있다.

4.2. 프로젝트 생산품-행정, 경영, 그리고 품질 관리

번역위원회가 성서의 특정한 본문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어문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원래 고대근동의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인지되었을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예술적 그리고 수사학적 기술에 의하여 선별적으로 돋보이게 되고 강조된-그 고유한 내용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물론 우리는 멀리 떨어진 성서적 배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에 대하여 결코 지나치게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이용 가능한 학문연구에 비추어서 주의 깊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본문 연구는, 지지할 수 있는 해석학적 가설의 방향으로 현대 분석자들을 이끌어 줄 수 있다.

원문에 대한 철저한 언어학적 문학적 연구는 번역의 과업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주어진 책의 문체적 특징, 담화 구조, 수사학적 장치, 그리고 연설 기능의 전반적인 조직은-목표 언어로 이루어지는 어떤 본문 재창조도 가능성이 있는 의미론적 손실, 이득, 그리고 왜곡 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비교되고 평가되어야 하는-기초적인 해석적 “모델”을 구성한다. 이런 번역의 실제 모양은, 예를 들면, 목표언어(TL)에서 얼마나 문자적으로 혹은 관용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는, 상호간에 미리 동의된-즉, 번역자들과 지원 직원의 연합된 능력뿐만 아니라 일차적인 의사소통 목표(*σκοπός*)와 일치하게-프로젝트 명령(적요서, *Brief*)에 의해서도 지배된다.

그러나 번역프로젝트를 위한 이 기본적인 안내 강령(조직구성, 위탁조건[권한] 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확실히, 조직과 행동을 위한 그러한 청사진은 진공상태에서 그려질 수 없다. 즉, 그 번역본이 섬기기로 의도된 풀뿌리(민중의) 지지자들과 분리된 채 만들어 질 수는 없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토론한 문제를 꺼내오는데, 즉 프로젝트 이전의 철저한 “시장조사”와 그 후속조치로써 지속되는 시험 프로그램, 평가,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 생산품의 개정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것은 새로운 “준거 틀”과-연합 성서 공회가 최근에 참여하는 교회들과 다른 지지하는 대리인들과 동반자 정신으로 실행하고 있는 번역 계획과 경영과-일치하게 접근하는 것이다.⁸⁶⁾ 그래서 프로젝트는-그리스도인 지지자그룹이 그 그룹전체나 어떤 그 그룹의 특정한 목표청중을 위해서 준비하기 원하는 새로운 번역 혹은 개정판에 관련이 있는-다양한 사안과 영향력들을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시작된다. 이런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적 변수들(situational variables)**은 많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 **역사적**, 예를 들면, 오래 전에 만들어지고 숭배 받지만 부자연스러운 오래

86) 이 번역 행동 계획은 Timothy L. Wilt, “A new framework for Bible translation”; Timothy L. Wilt, ed., *Bible Translation: Frames of Reference*, ch.2와 부록 F에 잘 진술되고 예시되었다.

된 번역본

- **사회문화적**, 예를 들면,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두드러진 언어-문화로부터의 압력
- **교회적**, 예를 들면, 그 지역 교회들 가운데 교회통합적 협력의 정도
- **정치적**, 예를 들면, TL로 이루어지는 문학사업을 위한 정부의 공적인 지원, 혹은 그것의 부족
- **제도적**,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돕고자하는 그 나라의 성서공회의 갈망과 능력
- **교육적**, 예를 들면, 자국어에 대한 청년과 성인의 기능적 문맹도
- **언어적**, 예를 들면, 그 언어의 여러 주요한 방언과/혹은 사회적 방언들의 유무
- **전달적**, 예를 들면, 새로운 번역본출판에 대한 적절한 매체와 포맷

위에 열거된 목록들은 긴 영역의 계획과 견고한 경영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는, 기초에서부터 전 공동체의 두드러진 필요와 가능한 자원들을 접근하는데 까지 세워지는, 협동사업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변수들은-번역 원칙, 정책, 우선순위, 과정, 인사구조 등을 상세히 기술하는-공식적인 협정서와 상품제작서류(적요서, *the Brief*)안에 자세히 진술 될 것이다. 이것은 프로젝트 그 자체를 위하여 세운 의사소통 목적(*σκοπός*) - 청중-중심의, 상황에 민감한, 그리고 지역적으로 상황화된 - 의 우선 순위화 된 목록의 관점에서 상호간의 협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미치지 못했던 혹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청중들에게 미치고자 새롭고 좀더 나은 길들을 찾으면서, 위 목록의 마지막 “전달적” 요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그룹들(예를 들면, 도심 청년, “탈진한” 그리스도인, 문맹자들)들에게는, 작은 글씨로 페이지마다 인쇄된 전형적인 성서 모델은 사실상 닫혀진 책이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읽고 싶지도 않고, 읽으려는 노력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대안적 매체(예를 들면, 오디오, 비디오, 라디오, 전자적 매체, “만화” 등)와 동시에 상이한 번역기술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LIFE방식의 번역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아마도 좀더 생동감 있는 음악 스타일과/혹은 좀더 만화 같은 시각적 효과를 수반한다. 우리는 매개체가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지만, 추가적인 어문적 정기, 활력, 생명력은 바로 사람들이 적어도 처음 본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초청장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문학적인 번역을 생산하는 목적을 지닌 노력에서 성공하려면 수많은

중대한 필요조건들(*critical pre-requisites*)이 있음이 분명하다. 그것들은 다음 것들을 포함한다:

-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적구조**(시인을 포함한 TL의 어문 예술가들과 SL 해석자들)
-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생산품 전후의 연구 활동들을 포함한)
- 전체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재정**(직원급여와 작업 시설물들을 포함하여)
- 자격이 있고 헌신된 행정 위원회(가능하다면 교회통일적인 대표들로 구성된)
- 번역자 **훈련/견습생제도의 기회들**(일을 시작하기 전과 그 후 주기적으로)
- 숙련된 **상담역들**(번역, 자국어, 매체관련 준회원 조언자들)
- 교회/공동체의 넓은 **지지기반**(가능한 한 가장 넓은 지지 층으로부터)
- 잘 조직되고 실행되는 행동과 경영 계획(예를 들면, **원문충실도>선명도>관용어성>근접성**과 같이 힘 있는 본문의 질 우선 등급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계획)
-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충분한 **시험** 과정들(번역에 대한 평가와 그 후속의 개정을 위한)
- TL지지자들에 의하여 인식된 대로의 프로젝트를 위한 분명히 정의된 **문학적 필요/갈망/목표**
- 성서 석의, 해석학, 번역, 맥락적 연대성 등의 관점에서의 보조적인 **청중 교육**
- 사전행동으로 대처하는 공중관계와 자원 지원프로그램(목표 공동체를 그 프로젝트의 스스로 동기 부여된 “소유자들”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앞에 요약한 이에 상응하는 여러 잠재적으로 심각한 “제한하는 요소들”-특별한 문학적 번역 사업과 완성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못하게 하는-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이런 요소 일곱 가지가 마음에 떠오르는데, 의심할 여지없이 이보다 더 많다(이것들은 이미 주지하였던 많은 관심사들을 통합한다)

- **역사적:** TL로나 관련된 언어로 된 기존의 영향력 있는 번역들, 특별히 중대한 성서적 어휘 분야에서는 어떤 새로운 번역도 어느 정도는 기존 번역들과 일치하거나 그 유형을 닮아가야 한다.

- **교회적:** 성서의 “풀어쓰기”(paraphrase)-이것은 “진정한 번역”이 아니다-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주요 지역교회의 반대.
- **시간적:** 프로젝트를 특정한 시간의 틀 안에서 완성하라는 계속되는 압력, 연구조사, 시험, 개정, 목표-그룹 교육(예를 들면, 새로운 번역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등을 위한 기회나 재정을 거의 혹은 아주 허락하지 않음.
- **행정적:** 후원하는 교회들이나 경영위원회 측에서 요구되는 것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어떤 종류든 간에 문체적으로 신선하거나 자국어로 이루어지는 관용적인 번역에 대한 미지근한 지원.
- **재정적:** 직원 봉급이 박한 것과 수준 이하의 사무실 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측면과 국면에서 그 사업을 적절하게 하기에는 부적절한 예산 배정.
- **질적:** 문학적 번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지 못한 번역자들과 지원 직원(그들 가운데 시인도 없고 수사학자도 없는)(가능하다면 번역 자문역들도 포함하여!).
- **양적:** 이러한 문체적으로 좀더 민감한 특성을 지닌 비표준적이며 지역에서 재단된 번역본에 대한 현재 혹은 잠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청중 혹은 독자층.

간단히 말해서, 문학적(예술적-수사학적)번역은 계획하기도 쉽지 않고 생산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한 언어 공동체가 충분한 정도의 성공을 최소한 보증하기 위하여 투여하려고 준비한 시간, 재능, 그리고 재산의 관점에서 최고의 최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서 연구와 번역에 문학적 접근법의 주요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바로 개념적 **조명(illumination)**이다. 이 방법-다른 수용된 석의적 절차와 접속되어 사용되는-은 성서 본문을 상이한 많은 수준에서 더 잘 분석하고 또한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기, 세워줌, 삶에 적용하기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떤 종류의 후속 의사소통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된다. 구조와 스타일, 예술성과 수사학은 확실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담화의 **필수조건(sine qua non)**-영감 받은 원저자에 의하여 의도된 대로의 핵심 메시지-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다신 한번 바울의 이 작은 빌레몬서의 긴급한 동시대적인 적실성을 지적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서신의 주요한 주제적 개념들을 기억한다: 애정(사랑), 빛 짐, 동반자-의식, 봉사(비교. 단락 2.2.4). 이것들은 이상적인 대인관계를 요약한다. 즉, 우리가 이와 동일한 네 가지 요소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 인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대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

이다. 확실히, 주님은 몸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본으로 보여주시야만 하셨다.⁸⁷⁾ 그래서, 어떤 널리 퍼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관련된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성품 혹은 행동이 그 몸(the Body)의 동료 지체들을 향한 상호적인 관심에 적용 된다면, 언제나 세상 어디서나,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있다.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빌레몬에게 행하는 바울의 호소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개인 삶을 향한 복음의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적용이다:

바울이 그 상황을 다룬 방식은, 사회적 환경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곳마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응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모범으로 보여준다... .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전망은... **코이노니아** -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이 주어진 구속받은 사람들의 회중-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적 차이들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단단히 묶고 있는 가치들을 제쳐놓은[내려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아버지]는 동등한 기회의 하나님이다!⁸⁸⁾(괄호 안은 필자의 첨가).

그러나 이 작은 서신으로부터 나온 질질 끄는 하나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끝에 남겨져 있다. 바울이 복음적인 기반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작성한,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조율한 요청에 대하여 빌레몬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최소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서신이 성서의 정경 안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초기 성도들의 연합된 교회 생활 내에서 심각한 개인적인 위기와 믿음의 시험이었을 것이 분명한, 이 열렬한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다고 보여진다. 참으로, 이 빌레몬서의 효능 있고 도발적이며 사전 행동으로 대처하는 메시지가 오늘날도 수많은 “오네시모”를 모든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대면해오고 도전해 온다.⁸⁹⁾

87) “루터는 [빌레몬서에서] 신학적인 전형을 추적하였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 시키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소송사건을 변호하기 위하여와 자신을 오네시모와 동일시하였다” John M. G. Barclay, *Colossians and Philemon*, 120.

88) Robert W. Wall, *Colossians and Philemon*, 189. 괄호 안은 필자의 첨가.

89) “마약중독자들, 노인성 치매로 머리가 고갈된 이들, 죽음의 대열에 서있는 자들, [에이즈 판명이 난자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속인 자들을 포함하여, ... 우리의 동료 교회식구들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로 취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최고로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부추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냈다면, 우리는 **빌레몬에게 보낸 이 우편엽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한 편지-폭탄(a divinely benevolent letter-bomb)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James T. Burtchaell, *Philemon's Problem: A Theology of Grace*, 334; 괄호 속은 필자의 첨가).